통일의 길에 이름을 남긴 애국인사들

5

평 양 출 판 사
주체109(2020)년

차례

리극로편

조선어연구에 뜻을 품고 …… 6
첫 조선말사전의 편찬 …… 14
무엇을 주저하랴 따르면 된다 …… 21
운명의 닻을 내리다 …… 29
초대내각상으로 …… 34
청운의 꿈이 현실로 …… 45

리종만편

짓밟힌 꿈 …… 60
민족의 번영을 위한 길 …… 69
크나큰 포용력에 감화되여 …… 80
애국지사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사랑 …… 93

류영준편

수난의 심연 …… 108
구원의 품 …… 120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없다 …… 128

김창준편

《지상천국》의 꿈을 안고 ······ 149
환상이 깨여지다 ······ 156
진짜 《하느님》을 보았다 ······ 166
조국전선서기국 초대국장으로 ······ 181
영생의 품 ······ 198

백남운편

저항의 길을 택하다 ······ 208
민족대단합의 격류속에서 ······ 215
공화국의 첫 교육상 ······ 233
크나큰 신임과 은총속에 ······ 247
생이 다할 때까지 ······ 251

리극로 편

조선어연구에 뜻을 품고 ······ 6

첫 조선말사전의 편찬 ······ 14

무엇을 주저하랴 따르면 된다 ······ 21

운명의 닻을 내리다 ······ 29

초대내각상으로 ······ 34

청운의 꿈이 현실로 ······ 45

경력

- 1893년 8월 28일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두곡리에서 출생
- 1912년-1921년 중국 무송현 의병부대 훈련도감,
  무송의 백산학교와 환인현의 동창학교 교원
- 1921년-1927년 도이췰란드 베를린종합대학 졸업
- 1929년 1월-1942년 조선어학회 회장
- 1942년 7월-1945년 8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함흥형무소에서 감옥생활
- 1946년 건민회조직, 남북합작통일전선 위원장
- 1948년 4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
- 1948년 9월-1953년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무임소상
- 1953년 12월-1974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단 성원으로 활동
- 1978년 9월 13일 사망
- 1990년 8월 15일 조국통일상 수상

저서

- 《조선어어음의 된소리음리에 대한 과학적천명》(1928년)
- 《훈민정음의 독특한 음성관찰》(1932년)
- 《조선어표준말 모음》(1936년)
- 《조선말력점연구》(1957년)
- 《조선말조연구》(1966년)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귀중한 한생을 값높게 살기 위해 분투해왔으며 또 그 삶이 빛나고 영원하기를 갈망하여왔다.

그렇다면 어떠한 인생이 후세에도 길이 값높게 평가되는 생인가.

누구나 바라마지 않는 빛나는 한생, 영원한 삶은 과연 그 무엇으로 하여 이루어지는것인가.

기울어져가는 조선봉건왕조의 말기에 태여나 망국노의 설음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애국의 마음안고 조선어연구에 심혼을 바쳐온 리극로선생.

《고루》라는 별호그대로 사람들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세상을 동경하며 타향만리를 방황하던 리극로선생이 자기의 인생행로에서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 진정으로 참다운 생을 사는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열렬한 극적체험으로 절감한 때는 과연 언제부터였던가.

그것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크나큰 격정속에 접하고 그이의 독창적인 민족어고수사상에 크게 탄복하며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민족운명의 구세주, 한생토록 믿고 따를 인생의 기둥이심을 심장으로 깨달은 그때부터였다.

바로 이 극적인 체험, 과감한 운명의 선택이 없었다면 오

늘날에 다시금 돌아보는 통일애국인사로서의 그의 삶도 없었을것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빛내여온 그의 통일애국의 삶은 오늘도 참다운 삶, 참다운 애국이 무엇인가를 후세에 가르쳐주며 민족과 더불어 영생하고있다.

조선어연구에 뜻을 품고

1893년 8월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두곡마을의 가난한 농가에서 8남매의 막내로 태여난 리극로선생은 3살때에 어머니를 잃고 모진 가난과 천대속에 유년시절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향학열에 불탔던 리극로선생은 가난에 쪼들려 겨우 살아나가는 집안의 살림살이를 도우려고 어린 나이에 농사일을 하면서도 가까운 곳에 있는 서당을 기웃거리며 어깨글을 익혔다.

그 나날 학교에서 조선말을 했다고 쫓겨나고 벌을 서는 동갑또래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는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겨 제 나라 말도 마음놓고 하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혼자서 울분을 터뜨리군 하였다.

민족수난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운 참혹한 현실에 차츰 눈을 뜨게 되면서 우리 민족이 개명하지 못했던탓에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리극로선생은 1912년에 집을 뛰쳐나와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내도산의 독립군부대에서 훈련도감을 하기도 하고 무송에 있는 백산학교와 환인현의 동창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수난자, 망국노가 된 불쌍한 겨레를 구원할 방도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당시 그에게 그 어떤 뚜렷한 리념이 있어서가 아니였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다하니 하루빨리 조선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이 강하게 지배했던것이다.

하기에 리극로선생은 기나긴 세월 중국 상해에서 로씨야의 씨비리로, 다시 유럽으로 여기저기를 방황하며 겨레를 구원할 방도를 모색하기 위한 학문탐구에 열중하였다.

1921년부터 베를린종합대학에서 경제학, 언어학, 철학,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그 대학에 동방어학부 조선어과를 창설하고 한 3년동안은 조선어강사로도 있었다. 후에 런던대학과 빠리대학에서 언어학과 조선어음성학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기도 하였다.

이 나날에 그는 정치경제학박사에 이어 철학박사학위까지 받을 정도로 세계의 여러 대학들에서 수많은 책들을 탐독하고 연구하였으나 그가 찾고저 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한 방책

은 그 어느 책갈피에도 없었다.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가슴끓이며 1927년 2월 브류쎌에서 열린 제1차 세계약소민족대회에 독립요청서를 가지고 조선대표단 단장으로 참가하기도 한 그였다.

리극로선생은 중국, 일본, 로씨야, 도이췰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유명하다는 곳은 다 다녀보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열변》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당시에 세계적으로 명망높은 정치인들, 과학자들과 마주앉아도 보고 때로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순례하는 다른 나라의 성지들도 두루 편답해보았으나 주리고 종된자의 세상을 끝장낼 《꿈의 나라》를 이루어낼 길을 찾을수가 없었다.

17년동안 여러 나라를 방황하면서 빼앗긴 나라를 찾자면 민족의 얼인 우리 말과 글을 지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그는 조선어연구에 뜻을 두게 되였다.

1920년대말 리극로선생이 조국에 돌아오자 철학박사, 경제학박사의 학위까지 받은 그에게 함께 일할것을 권고하는 기업가들도 있었고 벼슬길에 나서서 두각을 나타내라고 권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귀국시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 모든 권고를 물리치고 조선어연구를 전문으로 할 자기의 의향을 표명하였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다.

그가 아일랜드에 갔던적이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모

국어대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있었다. 간판과 도로표식을 비롯하여 모든것이 영어로 표기된것을 보고 리극로선생은 일제의 강점하에서 점차 빼앗겨가는 우리 조선말과 글도 저런 신세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심이 들었다. 말과 글을 빼앗긴다는것은 민족의 얼을 빼앗기는것으로서 그것은 죽음보다도 무서운 일이였다.

그 우려심이 조국에 돌아가면 모국어를 지키는 운동에 한생을 바칠것을 결심하게 된 동기로 되였다.

그리하여 리극로선생은 조선어발전에 기여할 일념으로 한성에 도착한 즉시 조선어연구상황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량심적인 언어학자들과 함께 우리 말과 글의 연구를 목적으로 조직된 학술단체인 조선어연구회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그는 신간회 성원으로도 활동하였다.

1927년 2월 한성에서 창립된 신간회의 창립취지는 그 발기인들이 《고목신간》이라는 뜻에서 신간회라고 한 명칭자체에 잘 반영되여있었다.

《고목신간》이란 오랜 나무에서 새 줄기가 자라난다는 뜻이다. 명칭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신간회는 새로운 기초우에서 민족력량의 총집결을 지향하였다.

당대의 애국인사들과 사가들이 신간회를 가리켜 민족단일당이라고도 부를만큼 초기에 이 단체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와 신뢰는 컸다.

리극로선생은 바로 이러한 신간회조직에 은근한 기대를 걸었던것이다.

1930년 9월 신간회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된 리극로선생은 장춘에서 **김일성**장군님의 지도를 받으며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최일천을 만나게 되였다.

그와 만나 며칠 안되는 기간이였지만 독립을 열렬히 념원하였던 리극로선생은 그와의 친분을 두터이 할수 있었다.

헤여지기에 앞서 최일천은 그에게 길림에 가서 황백하도 만나보고 그 일대에서 무르익고있는 항일무장투쟁기운을 체험하면 조선독립에 대한 신심이 생길것이라는데 대하여서도 이야기해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리극로선생은 길림으로 가서 황백하를 만났다.

리극로와 황백하는 환인현 동창학교에서 여러해동안 함께 교편을 잡고 우정을 두터이 한 관계로 연고가 있는 사이였다.

황백하를 통하여 그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투쟁업적에 대해 알게 되였고 **김일성**장군님께서 광범한 반일대중을 묶어세워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전개해나가시는 격동적인 이야기도 전해듣게 되였다.

길림에 체류하는 나날 리극로선생은 상해와 하와이에서 목

격한바 있는 종래의 반일독립운동풍조와는 전혀 다른 청신한 민족자주의 독립기운을 후덥게 체험할수 있었다.

애국심과 혈기에 넘치는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외세의존적인 《청원》이나 민족개량주의적인 《실력배양》이 아니라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무장한 강도 일제를 무장으로 쳐물리치고 나라를 되찾을 일념으로 분연히 궐기한 그 투철한 자주독립사상에서 리극로선생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다년간 학문탐구와 더불어 조선독립의 길을 찾아 끝없이 방황하다가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출발선에서 광명의 빛을 보게 되였던것이다.

그때부터 그의 가슴속에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동경심이 그들먹이 차올랐다.

리극로선생은 한성으로 돌아오면서 진정으로 애국을 하고 짓밟힌 겨레를 구원하려면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결심을 굳게 다지게 되였다.

그로부터 몇달후에 학술단체로 유지되고있던 조선어연구회를 애국적량심을 지닌 각계각층의 광범한 지성인들을 망라한 반일애국단체인 조선어학회로 개편한 리극로선생은 조선어 언어규범의 종합체인 조선말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갔다.

그는 조선어사전편찬 집행위원, 조선글맞춤법 제정위원, 외

래어표기법 및 부수문제협의회 책임위원, 조선어표준어사정위원, 조선어학회 간사장이 되여 조선어학회 성원들과 함께 우리 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말 도로찾기운동을 전개한것을 비롯하여 조선말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갔다.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일제의 조선어말살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5년 6월에 조선말보급을 금지시켰으며 학교들에서 조선말을 하는 학생들에게 《불온분자》의 딱지를 붙여놓고 상급학교에 갈수 없게 하거나 일자리도 얻을수 없게 하였다.

조선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과정에 일본말을 쓰도록 강박하였으며 려행시에는 일본말을 하지 않으면 차표도 팔아주지 않았고 상점에서 물건도 살수 없게 하였다. 지어 로인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일본말로 외우지 않으면 《비국민》이라며 마구 때리였다.

이러한 일제의 책동은 우리 말과 글을 없애버림으로써 조선민족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려는데 그 간악한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때 최일천이 1936년 한성에 나와 조선어학회를 지도하고있던 리극로선생을 찾아왔다.

장춘에서 처음 만났던 최일천을 6년만에 다시 만났던것이다.

일제에 의한 파괴책동과 그에 매수된 개량주의자들에 의하

여 1931년에 해체되고만 신간회에 대한 허무함에 빠져있던 그에게 있어서 최일천의 출현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것이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발표하시였다는 소식과 함께 그 강령을 받아안았을 때 그의 가슴은 기쁨과 희망, 신심으로 한없이 부풀어올랐다.

그이께서 친히 작성하시여 발표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 제8조에 노예로동과 노예교육을 철폐하고 군사교육을 반대하며 우리 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것을 내용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여있었던것이다.

크나큰 흥분속에 **김일성**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조선어를 고수발전시키는 사업을 항일혁명투쟁의 중요한 문제로 내세울데 대한 사상을 전달받고 리극로선생은 그이의 열렬한 애국애족의 사상에 무한히 감복됨을 어찌할수 없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 진정 그것은 일제의 민족어말살책동으로부터 조선의 말과 글을 꿋꿋이 지켜낼수 있게 하는 애국의 대강이였던것이다.

리극로를 비롯한 조선어학회 성원들은 민족어를 지키고 발전시키는것이 이 나라 지성인으로서 민족앞에 지닌 마땅한 본분이며 나라를 찾는데 이바지하는 애국투쟁으로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하기에 이후 조선어학회는 조선어연구에 뜻을 둔 사실상의 반일투쟁단체로 발전할수 있었다.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 말과 글도 지키고 빼앗긴 나라를 찾을수 있다는 신념을 더욱 깊이 새겨안으며 리극로선생은 반일애국의 길에 적극 뛰여들었다.

첫 조선말사전의 편찬

일제의 민족어말살책동이 극도에 달한 속에서도 리극로선생과 조선어학회 성원들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나갔다.

《우리 말 맞춤법통일안》에 대한 강습을 전국적범위로 확대해나갔으며 신문, 출판물들에 적극 도입하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나갔다.

어려운 자금난을 겪으면서도 기관지 《조선글》의 발행을 중지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조선기념도서출판관을 조직하고 여기에 려운형, 안재홍, 리종만 등 유명한 인사들을 인입시켜 조선말출판물을 더 많이 발행하도록 하였으며 조선말사전편찬준비사업을 다그쳤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37년 6월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가 보천보의 왜놈들을 쳐부셨다는 소식이 국내의 신문들에 실렸다.

이 통쾌한 소식에 접하고 조선사람들모두가 커다란 충격과 흥분을 금할수 없었는데 특히 리극로선생을 비롯한 조선어학회 성원들의 심정은 남다른것이였다.

민족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오른 시기에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거느리시고 국내에 진출하여 멸적의 총성으로 일제를 전률케 하고 억눌린 겨레의 가슴에 조국해방의 신심을 안겨주신 소식을 들은 조선어학회 성원들은 《조선은 죽지 않았소. **김일성**장군님을 모신 조선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라고 감동에 목메여 보천보전투승리를 경축하는 축배를 들었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민족의 얼인 조선어를 끝까지 지켜나갈 각오를 다졌다.

그후 리극로선생을 찾아온 최일천은 민족어를 지켜나가기 위한 어학회의 활동이 반일애국투쟁이라고 고무해주면서 보천보전투의 의의가 조선사람은 모국어를 버리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성을 일본놈 성으로 바꾸지 않을것이다,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일본놈과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것 등을 내외에 선포한데 있다는것을 알려주고 조국광복회조직들이 확대되는데 발맞추어 어학회안에서도 핵심성원들로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올데 대한 의견을 전하였다.

리극로선생은 그것을 찬동하고 그 준비사업을 착실히 해나갔다.

그리하여 그해 9월 리극로, 리윤재, 정렬모 등 어학회의 핵심성원들은 회합을 가지고 **김일성**장군님을 받들어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실천하는 애국의 한길에서 변함없이 싸울 맹세를 다지면서 조국광복회 비밀조직을 무었다.

그들은 조직의 명칭을 따로 내오지 않고 어학회신분그대로 활동하였고 조선어연구의 합법적활동과 함께 광범한 군중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는 비합법적활동을 다같이 진행하였다.

조국광복회 조직성원들의 주동적인 활동으로 조선어학회는 조선말사전편찬준비를 마감단계에서 결속해나가는 한편 학자들을 양성하는 양사원을 설립하고 애국적인 지식청년들이 여러 분야의 과학을 전공하도록 하였다.

김일성장군님 계시여 조선은 반드시 독립된다는 신심을 간직한 리극로선생은 조선어학회사업에 더욱 열정을 기울이는 한편 조선연무관, 조선씨름협회와 같은 민족적성격이 짙은 단체들을 개편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청년들의 심신을 단련시키고 회원들에게 반일감정을 심어주기에 힘썼다.

한편 《조선속담딱지》라는 놀이를 만들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민족의 우수성이 깃든 조선속담을 많이 알고 널리 활용하면서 민족의 얼을 지켜나가도록 하는데도 관심을 돌렸다.

조선어학회의 이러한 활동은 전민항쟁로선의 요구대로 장차 조국해방성전에 각계각층의 애국적인민들을 궐기시키기 위한 반일애국활동의 한 고리로 되였다.

1940년 여름에 또다시 리극로선생을 찾아온 최일천은 일제의 파쑈적탄압은 멸망을 촉진시킬뿐이라고 하면서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민족어를 끝까지 고수하며 조국은 반드시 해방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때 최일천은 일본관헌들의 박해와 감시가 심해지자 《동아일보》지국의 일을 할 때 만주 각지를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수집해놓았던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투쟁자료들과 독립운동자료들을 가지고 한성에까지 나와 당시 조선어학회를 책임지고있던 리극로선생에게 그 자료들을 모조리 넘겨주었다.

그 자료들속에는 **김일성**장군님의 지도밑에 오가자에서 발간된 《농우》잡지묶음도 있었다.

《이것은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자료들입니다. 적의 감시와 추적속에서 사는 나에게는 이 자료들을 간수할 힘이 없습니다. 나라가 독립되면 이 자료들로 력사저술을 하려고 하는데 리선생이 어떻게 하나 그때까지 잘 보관해주기 바랍니다.》

최일천은 이런 부탁을 남기고 떠나갔다.

리극로선생은 그의 부탁대로 이 자료들을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자기 집에 깊숙이 간수하였다.

조선말사전편찬준비도 끝나가고 인쇄교정에 들어가던 1942년 7월이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반일감정을 고취하며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이 모든 활동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던 일제경찰은 조선어학회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그를 비롯한 수십명의 애국적학자들을 체포하였다.

진주만기습을 신호로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조선에서의 일체 반일적요소를 탄압할 구실을 조선어학회사건에서 찾은것이였다.

고이소총독과 다나까경부총감의 특별지령아래 리극로, 리윤재, 한징, 안재홍 등 수십여명의 관련자들이 이른바 《문화운동의 가면을 쓰고 조선독립을 목적한 실력양성단체인 조선어학회에 가입해 민족관념을 북돋움으로써 <개정치안유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였다.

일제교형리들은 이들의 애국적지조를 꺾어버리려고 별의별 악독한 고문을 다 들이대였다.

특히 리극로선생의 애국의지를 꺾어보려고 일제는 그의 손톱과 발톱을 모조리 뽑아내고 어깨뼈까지 부스러뜨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고문으로써도 조선독립의지와 민족어를 지키려는 그의 굳센 지조를 꺾을수 없었다.

조선어사전편찬을 구실로 일제가 조작해낸 조선어학회사건

에서 리극로선생은 모진 고문끝에 6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형량은 이 사건관련자중 가장 무거운것이였다.

인간의 진가는 가장 어려운 때에 알수 있다는 말이 있다.

가혹한 고문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였지만 리극로선생을 비롯한 애국적지식인들은 힘차게 노래를 부르며 놈들을 전률케 하였다.

백두산 어화어화 김대장산아
푸르는 청년전위 모두 모였네
차려라 정신 차려 반일의 길에
우리를 밀어주는 백두산의 얼
…

이 노래는 리극로선생이 지은 《조선연무관》노래로서 어학회회원들을 비롯한 애국적청년들이 왜놈들의 눈길을 피해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

리극로선생은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숭배심을 안고 《조선연무관》의 노래에서 백두산을 김대장산으로 칭송하였던것이다.

교형리들의 악형속에서도 굴함없이 백두산을 우러러 노래한 이들의 굳센 절개, 그것은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이를 따

르는 길에서 변함없을 신념의 분출이였다.

민족의 태양을 받들어 참답게 살려는 굳은 지조가 있었기에 리윤재, 한정과 같은 애국적지식인들은 일제경찰의 악착한 고문으로 감옥에서 희생되면서도 조국광복회 지하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완강한 법정투쟁으로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마침내 조국해방의 날을 떳떳이 맞이할수 있었다.

해방과 더불어 감옥문을 나선 리극로선생과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항아리에 넣어 땅속에 묻어두었던 사전원고들과 일제에게 압수되였던 일부 사전원고들을 서울역부근 통운회사 창고에서 찾아내여 해방의 기쁨속에 사전편찬에 다시 착수하였다.

첫 조선말사전은 이렇듯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1948년에 드디여 편찬될수 있었다.

이것은 그후 여러차례 편찬된 조선말사전의 기초적인 사전으로서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일제의 민족어말살책동에 항거하여 민족어를 보존발전시키고 풍부화시킨 귀중한 성과였다.

조선어학회 성원들은 단순한 국어학자가 아니라 민족의 혼, 민족의 얼을 지켜낸 훌륭한 사람들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리극로선생이 지도한 조선어학회와 민속운동도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 그 정신에 따라 민족문화와 민족

의 얼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후날 리극로선생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

《…일제의 민족동화정책, 민족어말살정책을 반대하여 싸울수 있었던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나는 암담하던 민족의 앞날을 환히 밝혀주던 어버이수령님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정신적량식과 고무를 받을수 있었다. …》

무엇을 주저하랴 따르면 된다

남녘땅에서 해방을 맞이한 리극로선생은 최일천이 쓴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를 보풀이 일도록 읽으며 나라를 찾아주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정을 안고 분렬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실분은 **김일성**장군님 한분뿐이심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당시 남조선에서는 미군정에 의하여 새 조선건설을 위한 애국적인민들의 민주주의적활동이 심히 억제당하고있었으며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세력의 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었다. 더우기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책

동으로 말미암아 국토의 분렬과 민족분렬의 위기는 첨예화되여 우리 민족은 불안과 우려를 금할수 없었다.

1948년에 들어와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은 극도에 달했다.

미제는 1948년 1월 8일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끌어들이고 2월 26일에는 유엔소총회에서 남조선단독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비법적인 결정을 강압통과시키고 《단독정부》를 조작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본격화하고있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3월 18일 다가오는 5월 10일에 남조선단독선거를 실시한다는것을 공포하였다. 한줌도 안되는 반동분자들은 외세를 등에 업고 단독선거준비로 분주탕을 피우며 민족분렬을 고취해나섰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분렬을 막고 삼천리강토에 통일독립된 새 조선을 일떠세우실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의 소집을 발기하시고 남조선의 여러 인사들을 회의에 초대하시였다.

열화같은 민족애를 지니신 어버이수령님께로 향한 겨레의 마음이 강물처럼 굽이쳐 흐르는 속에 4월 3일 북남협상파세력들인 건민회를 비롯한 200여명의 당단체대표들이 서울에서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를 결성하였다.

결성모임에서는 남조선단독선거를 실시하려는 미국과 유엔에 항의하는 결의문과 민족통일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전민족적으로 지지하여 필요한 원조운동을 전개할것을 호소하는 특별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남조선에서 량심적인 학자들과 체육인들, 지식인들을 망라한 건민회 위원장으로 사업하던 리극로선생은 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파견하신 일군으로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할데 대한 련락을 받았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다니…

너무도 꿈만 같은 현실앞에서 리극로선생은 장군님의 존함이 모셔진 초대장을 두손으로 받쳐들고 그린듯이 서있었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리극로선생이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민족적량심과 애국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국내와 해외에서 민족어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의병대에도 관여하였던 민주인사라고 하시며 그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대표로 선출하도록 하시였던것이다.

최일천에게서 처음으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때부터 언제면 자기도 그이를 만나뵙고 가르치심을 받을수 있을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끓이던 리극로선생이였다.

한편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은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각방으로 방해하였다. 협박전화를 걸어오는가 하면 극우익깡패들을 내몰아 시위와 롱성을 벌리게 하였다.

4월 6일에는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지가 남북련석회의참가자는 《공산분자》나 《용공분자》로 몰겠다는 성명을 내고 김구와 김규식의 북으로 향한 마음을 돌려세워보려고 회유와 기만을 다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남북련석회의에 참석할 남조선의 적지 않은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늦어질수 있는데로부터 련석회의를 수일간 연기해줄것을 요청한 김구, 김규식선생들의 제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시고 4월 14일로 정했던 남북련석회의 개최날자를 4~5일간 연기하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에 크게 감동된 리극로선생을 비롯한 남조선의 저명한 지식인, 문화인 108명은 4월 14일 김구, 김규식선생의 북행을 성원하는 동시에 북남협상만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보내주신 초대장을 품에 깊숙이 간직한 그는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평양으로 떠날 결심을 표명했다.

을사년과 경술년의 국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거든 **김일성**장군님의 높은 뜻을 따라야 한다는것이 리극로선생의 굳은 신념이였다.

하루빨리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고싶은 열망을 안고 리극로선생은 건민회 위원장의 직함으로 남조선신문기자단 단장

과 함께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선참으로 북행길에 올랐다.

남북련석회의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분망한 나날을 보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리극로선생일행이 38°선을 무사히 넘어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무척 반가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의 분렬을 막기 위하여 사선을 헤쳐온 리극로선생일행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일군들에게 평양으로 잘 안내하도록 당부하시였다.

그리하여 리극로선생일행은 아무런 불편도 없이 평양에 무사히 도착할수 있었다.

평양에 도착한 리극로선생은 세상천지를 돌고돌면서도 찾을수 없었던 위인이시며 항일전의 총포성소리를 들으면서 그토록 뵙고싶었던 위인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남북련석회의가 진행되는 모란봉극장 휴계실에서 리극로선생을 몸소 만나주시였던것이다.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겠다고, 얼마나 고생하였겠는가고 하시며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더없이 반가운 안색으로 그를 이끄시여 자리에 앉혀주시였다.

처음으로 만나뵙지만 반갑게 대해주시고 존대하여 불러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는 리극로선생의 가슴속에는 환희의 물결이 세차게 출렁이였다.

백두의 광야를 누비며 왜적을 격멸하고 나라를 해방시켜주

시여 온 겨레가 경모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렇게도 젊으시고 겸허하시단 말인가?!

홍분을 감추지 못하는 리극로선생을 자애로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금 조국앞에 국토의 영구분렬이라는 엄중한 위기가 닥쳐왔는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힘을 합쳐 통일적자주독립국가건설에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선생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믿음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리극로선생은 너무도 황송하여 진정을 담아 이렇게 말씀올렸다.

《장군님… 저 같은 사람이 국사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날 리극로선생은 련석회의의 높은 연단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하신 보고를 커다란 감격속에 자자구구 가슴속에 새기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북조선의 판이한 정치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전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남조선에서의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파탄시키고 통일적인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리시면서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통일적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며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벌려야 한다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리극로선생은 자기가 그처럼 모대기며 찾던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방략이 일목료연하게 밝혀진 어버이수령님의 보고를 열광적인 박수로 지지찬동했다.

끓어오르는 격정으로 하여 장내는 끝없이 설레였다.

남북련석회의가 열린지 3일째 되는 날 리극로선생은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소집하신 남북련석회의자체를 놓고도 우리 민족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치적력량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것은 민족자주력량의 표현이라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그것은 그의 솔직한 심정의 토로였다.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남조선에서 나라가 분렬될 위기에 처한 현실앞에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지만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할 합리적인 방향과 방도를 내놓고 대중과 호흡을 같이하는 정치인은 보지 못하였던것이다.

오직 어버이수령님께서만이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하시고 국난타개를 위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민족의 투쟁강령, 행동의 지침을 마련해주시고 온 겨레를 통일적자주독립국가건설에로 이끌어주시였던것이다.

하기에 회의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온 그는 동료들에게 《통일대업을 이루어주실 향도자는 오직 위대한 **김일성**장군님뿐이시오.》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리고는 즉흥시를 읊었다.

태양의 빛발이 삼천리를 비친다
따르자 인민들아 무조건이다
그이를 따르자

백전백승의 령장께서 여기 계시니
무엇을 주저하랴 따르면 된다
이것이 나의 신심이다

참으로 민족적인 량심과 지조를 귀중히 여기시여 애국적인 민주인사로 내세워주시고 나라의 분렬위기를 막기 위한 민족적대회합에까지 초청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야말로 리극로선생으로 하여금 진정한 애국의 길에서 삶을 참답게 빛내일 수 있게 해주신 은인이시였다.

운명의 닻을 내리다

평양에서의 꿈같은 나날은 리극로선생에게 있어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의 품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선택하게 한 운명적인 나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를 성과적으로 마치신 후 회의참가자들에게 평양에 체류하면서 여러 행사들에도 참가하고 공장, 기업소, 학교를 비롯하여 인민이 주인된 새 생활이 약동하는 북반부의 현실을 참관하도록 하시였다.

그 나날 리극로선생은 남북련석회의지지 평양시민대회와 5.1절기념 군중대회와 열병식을 보게 되였다. 난생처음으로 그런 행사들을 목격한 그의 감격은 컸다.

시민대회와 5.1절기념 군중대회에서 각계각층 시민 수십여만명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시위광경은 그대로 어버이수령님의 두리에 뭉친 인민의 힘을 과시하는 장엄한 화폭이였다.

더우기 리극로선생은 5.1절기념 행사장 주석단에서 시위군중이 비를 맞는데 나라고 우산을 쓰겠는가고 하시며 만류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눈앞에서 현실로 목격하며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자신께서는 비를 맞으시면서 오히려 남조선에서 온 인사들의 옷이 젖을세라 우산을 펴주도록 해주시는 절세의 위인의 자애에 넘친 사랑에 그는 눈시울을 적시였다.

5.1절기념 열병식과 무력시위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를 올리며 보무당당히 행진하는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핵심으로 씩씩하게 자라는 만경대혁명자유자녀학원(당시) 학생들의 미더운 모습!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며 물결쳐 흘러가는 무장장비들!

리극로선생은 나라가 해방된지 3년도 안되고 정규군이 창건된지 석달도 안되였는데 이런 무장력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가고 연방 감탄하였다.

미덥고 끌끌한 새 조선의 무장력을 보는 리극로선생의 눈앞에는 강도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길무렵의 일들이 가슴아프게 떠올랐다.

몇천명밖에 안되는 조선군대에게 똑똑한 무기를 메워주지 못하여 하루아침에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한 우리 민족.

화승총마저 변변한것이 없어 일제의 《토벌》에 쓰러지던 의병들의 모습이며 정병 3천명만 있으면 왜적과 싸워 이길수 있다며 가슴을 치던 피타던 절규…

그러던 우리 민족이 드디여 그처럼 갈망하던 진정한 인민의 군대를 가지게 된것이다.

그러면서 리극로선생은 약소국으로 버림받던 우리 조국에 강력한 군대를 창건하시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일수 있게 해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에게 끌리는 리극로선생의 끝없는 흠모의 마음은 인민적정치가 찬란히 펼쳐지는 북반부현실을 돌아보면서 더욱 두터워졌다.

일제놈들이 달아나면서 조선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제철소를 복구할수 없다고 하였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여러차례 이곳을 찾으시여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지혜를 주시여 제철소를 자체의 힘으로 복구하고 쇠물을 뽑아내고있는것을 보면서 감동을 금치 못해하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위대한 현실을 보았다. 이 위대한 현실은 우리 민족이 완전자주독립할수 있으며 그 길은 오직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북조선이 걷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깨달았다.》

리극로선생이 **김일성**종합대학을 참관하였을 때였다.

여기에서 그는 남조선에서부터 안면이 있던 이 대학의 김광진학부장으로부터 북반부에 종합대학이 생기게 된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해듣게 되였다.

해방후 어느 한 군중대회장에서 교육부문 일군들을 만나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에 필요한 간부들을 하루

빨리 양성하여야 한다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들을 많이 세우는것과 함께 대학들을 세워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는 많은 대학을 한꺼번에 세울수 없다고, 우리는 종합대학부터 먼저 내와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대학창설에 대해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있던 그때 그것도 당장 종합대학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교육일군들은 민족의 인재들을 키우는 교육사업을 귀중히 여기시는 그이의 숭고한 뜻에 감명을 금할수 없었다.

교원문제해결이 난감해졌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서 교원, 학자들을 데려올것을 발기하시고 몸소 교원위촉장까지 보내시여 수많은 교원, 학자들을 평양으로 불러주시였다.

그뿐만이 아니였다.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로동자, 농민의 자녀들을 받아들이다나니 원주률을 구하는 초보적인 공식도 모르고 뉴톤의 만유인력법칙 같은것은 듣느니 처음인 학생들을 위해 대학에 예비과를 내올데 대한 독창적인 가르치심을 주신것도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대학의 터전을 잡아주신것도 바로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이렇듯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여러 난문제

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고 인민의 첫 대학—**김일성**종합대학이 예견된 날자에 온 세상에 자기의 탄생을 소리높이 선포할수 있었던것이다.

…

김광준학부장으로부터 종합대학이 서게 된 사연을 들은 리극로선생은 연방 터져오르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억제할수 없는 흥분으로 가슴설레이며 그는 그날 새로운 대학청사건설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였다.

리극로선생은 그후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는 자리에서 품고 있던 가슴속 소망을 담아 이렇게 말씀올렸다.

《장군님! 신흥의 기상이 넘치는 북에 와보니 더이상 어데도 가고싶은데가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내 여기 그대로 눌러앉아 민주건국에 몸을 바칠가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진정어린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잘 생각했다고, 선생이 북반부에 남는다면 할 일이 많다고, 함께 손잡고 민족문화도 건설하고 우수한 우리 나라 언어도 발전시키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새 조선의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사업은 응당 선생과 같은분들이 맡아주어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장군님!…》

리극로선생은 감격이 극에 달하여 다음 말을 잇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해놓은 일도 별로 없고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도 어버이수령님슬하에서 일하고싶은 간절한 소망에서 우러나온 청이였건만 그이께서는 쾌히 수락해주시고 함께 손잡고 새 조국건설을 해보자고 고무해주시고 굳게 믿어주신것이다.

이렇게 되여 리극로선생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는 나이에 평양에 운명의 닻을 내리게 되였다.

초대내각상으로

태양의 품에 운명의 닻을 내린 리극로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사랑과 믿음속에서 애국애족의 값높은 인생길을 걸을수 있게 되였다.

인민이 주인된 진정한 주권국가를 그토록 갈망하던 우리 민족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1948년 9월의 그 나날 리극로선생에게는 너무도 감격스러운 영광이 차례지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던 뜻깊은 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공화국 내각성원들을 발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투사들, 국내에서 활동하던 인사들과 함께 얼마전에 진행된 북남총선거에서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된 리극로선생을 무임소상으로 내세워주시였다.

리극로선생은 내각성원들의 명단에 자기의 이름이 오른것을 보고 너무도 크나큰 신임에 높뛰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였다.

어제는 민족적량심과 애국적지조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민주인사로 불러주시더니 오늘은 새 조선건설을 위하여 해놓은 일도 없는 자기를 초대내각의 상으로까지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

진정 그이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들모두를 사랑과 믿음의 한품에 안아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돌이켜보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리극로선생이 공화국북반부에 삶의 닻을 내린 첫 시기부터 처자를 남조선에 남겨두고 통일성업에 몸바치려는 그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나이많은분들인데 잘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은 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려운 걸

음을 하였기때문에 옷차림이 말이 아니라고, 바꾸어 입을 의복도 없이 평양에 와서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그들에게 옷을 한벌씩 해주어야 하겠다고, 늙은이들이 단벌옷을 입고 다니는것이 보기가 딱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친히 리극로선생의 이름도 불러주시며 옷의 색갈과 모양을 그들의 년령과 취미에 맞게 해주라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리극로선생은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극진한 보살피심속에서 새옷과 모자와 신발을 받아안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리극로선생의 건강을 념려하여 풍치수려한 명승지들에서 휴식하도록 은정깊은 배려도 돌려주시였다.

리극로선생이 명승지들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낼 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 두고 온 그의 가족들의 신상을 걱정하시며 그들을 빨리 데려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리극로선생은 평양에서 가족들과 만나게 되였다.

리극로선생의 생활과 건강을 두고 깊이 마음 써오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느날 그의 가족들이 림시 거처하고있는 곳을 찾아주시였다.

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게 된 리극로선생의 부인은

어쩔바를 몰라하며 그이께 큰절을 올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러지 말라고 하시며 그사이 서울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였는가고, 많은 식구들이 38° 선을 무사히 넘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시간을 낼수가 없어 오늘에야 찾아왔다고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선생의 부인에게 생활에서 불편이 없는가를 알아보고나시여 지금 남조선에서는 외세와 반동들이 살판치고있으며 더우기 량심적인 사람들과 진보적인 민주인사들에 대한 폭압소동이 그칠 날이 없는데 잘 왔다고 하시였다.

떠나시기에 앞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금 리극로선생이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것 같은데 선생이 무리하지 않도록 부인이 잘 돌봐드려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퇴근하여 그 소식에 접한 리극로선생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거듭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눈시울을 적시였다.

그날 밤 리극로선생은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내 만일 인생 50고비에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과 같으신 위대한 령도자를 만나뵈옵지 못했다면 어떻게 오늘과 같은 복락을 누릴수 있었겠는가.

김일성장군님은 나에게 새 생명력을 주신 어버이이시고 새 삶을 주신 은인이시며 무한한 영광을 안겨주신 유일무이한 스승이시다.

강산이 열백번 변한다한들 내 어찌 장군님의 그 은혜를 잊을수 있으랴. …》

1948년 12월 중순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내각성원들의 사택마을을 또다시 찾으시였을 때였다.

친어버이심정으로 매 가정의 살림살이형편을 알아보시던 수령님께서는 문득 남조선에서 들어와 내각 무임소상으로 일하고있는 리극로선생도 이 마을에서 살고있겠는데 그의 자식들이 보고싶다고 하시는것이였다.

리극로선생의 맏아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집에 들어서자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에게 리극로선생의 아들인가고 하시며 이름은 무엇인가고 정겹게 물어주시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차림새를 훑어보시고나서 새옷까지 해입으니 제법 어른같다고, 옷이 몸에 꼭 맞는다고, 체격이 좋은데다가 이렇게 새옷까지 해입으니 아주 름름해보인다고 하시며 매우 기뻐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육친의 정 넘친 어조로 지금 몇살인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를 하나하나 물어주시며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것은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기술인재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일제가 파괴한 이 땅우에 보다 큰 공장과 발전소를 건설하는 새 조국의 기술인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리극로선생의 맏아들은 자연과학을 배워 나라에 필

요한 기술인재가 되겠다고 정중히 말씀올리였다.

1949년 1월 2일에도 리극로선생의 둘째아들이 올리는 세배를 받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게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공부를 잘해서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그의 장래를 축복해주시였다.

실생활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특출한 위인상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고 그이의 넓은 도량과 포용력에 완전히 매혹된 리극로선생은 수령님의 대해같은 믿음에 맡겨진 중책을 훌륭히 수행하는것으로 보답하기 위해 애썼다.

1950년 초가을 준엄한 전쟁의 와중에서도 공화국정부에서는 지방들에서 현물세납부사업을 옳게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내각성원들을 각 도에 파견하였다.

리극로선생도 평안북도에 파견되여 사업하게 되였다.

그가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였을 때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였다.

그는 서둘러 후퇴길에 올라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강계로 가서 사업정형을 보고드리였다.

사업보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을 찾아뵈온 리극로선생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신의주 도경찰부로 호송되다가 탈출하신 연포리주막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였다.

그때를 회상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한생을 남조선과 해외에서 보내다가 해방후 건국을 앞두고 북반부에 들어온 리극로선생한데서 연포리주막집이야기를 듣는다는것은 참으로 놀랍고 희한한 일이였다. 지금처럼 우리 아버지의 사적이 널리 공개된 때라면 몰라도 연포리주막집이 무슨 집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때에 그런 말을 들으니 나로서는 신기한 생각이 들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리극로선생에게 물었다.

<리선생이 어떻게 되여 우리 부친의 력사를 다 아십니까?>

<나는 벌써 20년전에 김형직선생님 명성을 들었습니다. 길림에서 어떤 고마운분이 장군님일가에 대해서 자상하게 이야기해주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만 끝나면 춘부장님에 대한 전기를 쓰고싶습니다. 그런데 붓끝이 무뎌서 망설이고있습니다.>

평상시 그처럼 과묵하고 조용하던 리극로선생이 이날은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많은 말을 하였다.

우리는 내각이 자리잡고있는 번잡한 방을 떠나 인적이 드문 독로강(장자강)기슭을 거닐면서 한시간 남짓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리극로선생은 후창군(당시)에서 일을 끝내고 강계로 나올때 언젠가 길림에서 들었던 김형직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곳 연포리에 김형직선생님께서 탈출하신 주막집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가보고싶었다.

그리하여 군내무서장과 함께 말로만 들었던 연포리의 주막집을 찾았던것이다. 아직도 그냥 남아있는 그 집을 보며 리극로선생은 참으로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었다.

일제경찰들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 김형직선생님을 모시고 극적인 탈출을 도와주던 황씨의 모습이 방불하게 그려지는것만 같았다.

그가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는데 옆에 서있던 후창군 내무서장이 의아해하며 도대체 이 집과 어떤 연고관계에 있길래 그러는가고 묻는것이였다.

그러니 아직도 이곳 사람들은 이 집에 깃든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있었단 말인가?!

우리 민족의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 뜻깊은 사적이 깃들어있는 이곳을 이 고장 태생들이 모르고있다는것이 그는 믿어지지 않았다.

리극로선생은 이 집이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일제경찰놈들에게 잡혀 호송되던 도중에 기적적으로 탈출하신 곳이라고 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리극로선생은 그곳 일군들에게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사적이 깃든 이 주막집을 잘 보존할데 대하여 간절히 부탁하고서야 발걸음을 옮기였다.

어버이수령님께 이런 사실들을 두서없이 아뢰이며 리극로선생은 후대들이 선렬들의 투쟁력사를 모르면 후레자식이 되는 법인데 일군들이 전통교양을 잘하는것 같지 않다고 걱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였다.

《창건된지 두해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있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혁명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선생의 말을 듣고보니 나도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드는지 몰랐다. 이 땅을 찾기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선렬들의 령혼이 우리의 눈앞에 한꺼번에 날아와 싸워서 이기라고, 조국을 끝까지 수호하라고 절규하는것 같아서 뜨거운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조선이 다 망했다고 떠들던 때에 연포리에 대한 리극로선생의 이야기가 나에게 힘을 주었다.》

이처럼 리극로선생은 어버이수령님을 받들어 상의 중책을 수행하면서도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선전하는데도 앞장에 섰다.

어버이수령님의 배려로 리극로선생이 공화국의 대표로 1955년 6월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열리는 세계평화옹호력량대표자회의에 참가하게 되였을 때에 있은 일이다.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사절로 세계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렬차로, 비행기로 대륙을 횡단해가는 리극로선생의 감회는 깊

었다.

근 30년전 망국의 그 세월에 피눈물을 뿌리며 세계약소민족대회장에 찾아갔다가 렬강대표들의 조소와 멸시를 받던 일이며 머나먼 이국땅에서 불쌍한 겨레의 처지를 통탄하며 절망속에서 헤매이던 나날들…

그러했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국제회의에 당당하게 자기의 사절단을 파견하고있는것이다.

그 무엇이 우리 민족을 이처럼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되게 하였는가.

예나 지금이나 강산도 그 강산이고 민족도 그 민족이 아닌가.

생각이 깊어질수록 리극로선생의 가슴은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세차게 부풀어올랐다.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그때 항일혈전을 벌리시여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온 세상에 떨치신 어버이수령님!

위대하신 수령님 계시여 조국도 민족도 있고 그이의 품속에서 자기의 삶도 행복도 꽃펴날수 있음을 절감한 리극로선생이였다.

하기에 그는 회의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제국주

의련합세력을 타승한 영웅조선의 사절단이라며 환호하는 대회장에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소리높이 칭송하였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민족대단결과 통일전선을 이룩하는 사업에서 리극로선생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기대를 표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조국통일을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성업에 한몸바칠 맹세를 지켜 리극로선생은 전후시기와 60년대, 70년대에 이르는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원칙들과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써왔다.

정녕 리극로선생이 공화국 초대내각상으로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력적으로 활동하여온 전 과정은 한 평범한 민주인사에게 베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두터운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은정의 서사시로 통일전선운동력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청운의 꿈이 현실로

생의 말년에 리극로선생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한적이 있다.

《내가 젊은 시절에 품었던 꿈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대로 실현되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하자던 꿈도 그대로 실현되였고 조선어를 마음껏 연구하자던 꿈도 그대로 실현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의 복락을 누릴수 있었겠느냐!》

리극로선생이 자식들에게 한 이 말은 자기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학문연구의 꿈을 활짝 꽃피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감사의 송가였다.

청운의 꿈이 현실로!

누구에게나 꿈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꿈은 결코 바란다고 하여 누구나 쉽게 실현할수 있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하다면 어떻게 되여 리극로선생에게 이런 행운이 차례지게

되였는가.

그가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기지 않았더라면, 인생의 닻을 여기 평양에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런 행운을 생각조차 할수 없었을것이다.

리극로선생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겼을 때는 나이가 55살이나 되였을 때였다.

그 나이에 이르도록 리극로선생은 민족성을 지킬 일념으로 국내에 있을 때나 해외에 있을 때 조선어문을 연구하는데 정력을 바쳐왔다.

그리고보면 그의 생은 학자로서 학구적인 생활을 기본으로 하여 흘러왔다고 해야 할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런 리극로선생을 품에 안아주신 그날부터 학자로서의 그의 꿈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조선어문을 계속 연구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리극로선생은 1948년 9월 9일 공화국이 창건된 다음 초대내각 무임소상으로 사업하면서도 조선어문연구회사업을 책임지고 할데 대한 수령님의 신임을 받아안았다.

공화국이 창건된지 10여일이 지난 1948년 9월 하순 어느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리극로선생을 또다시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급히 달려온 그를 반갑게 맞아주신 그이께서는 그동안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알아보신 후 그에게 새 과업을 주려 한다고 하시였다.

리극로선생은 몸가짐을 바로가지며 자못 긴장해졌다.

얼마전 공화국 초대내각의 무임소상으로 된 리극로선생은 당시 복잡하게 조성된 정세를 먼저 생각하며 어버이수령님을 경건히 우러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선생은 해방전부터 일제의 조선어말살정책을 반대하고 모국어를 고수하기 위하여 싸워왔고 조선어문학자들과도 잘 아는 사이이므로 선생에게 조선어문연구회사업을 맡기려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리극로선생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조선어문연구사업은 그가 큰 포부를 안고 수십년간 심혼을 고스란히 바쳐온 전공분야였던것이다. 조선어문연구사업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청운의 꿈이였고 필생의 업이였다.

백만장자의 재산과도 바꾸기 싫고 그 어떤 유혹에도 버릴수 없었던 소중한 그의 꿈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리극로선생의 이런 포부와 소원을 헤아리시고 무임소상으로 사업하는 한편 조선어문연구사업도 계속할수 있도록 그에게 조선어문연구회를 책임질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던것이다.

리극로선생은 그것을 자기에 대한 더없는 믿음으로 받아들

였다.

당시 종파분자들은 민족의 앞날과 과학문화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이른바 《문자개혁》이라는것을 들고나와 무슨 《새 문자》를 당장 써야 한다고 떠들면서 민족사의 발전과 민족문화건설을 집요하게 방해해나서고있었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믿음을 받아안은 리극로선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이께서 주신 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훌륭히 수행해나갔다.

리극로선생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우수한 학자들과 토의를 거듭하여 짧은 시일에 대중적의견이 반영된 조선어문연구회개선대책과 《조선어사전》 및 《조선어문법》편찬안을 작성하여 어버이수령님께 올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조선어사전과 조선어문법을 편찬하는데 있어서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에 편리하게 우리 말을 발전시켜나가도록 그 구성을 잘 만들고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게 우리 말을 정리하고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리극로선생은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커다란 격정속에 받아안았다.

지금까지 조선어문연구사업을 전문으로 해왔지만 주체적견지에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였다.

1948년 10월말 어느날인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리극로선생부부를 몸소 저택에 불러주시였다.

그들이 방안에 들어서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만나니 대단히 기쁘다고, 얼마전에 선생의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 선생부부를 집에 초청하겠다고 하였는데 오늘에야 그 약속을 지키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식탁에 앉혀주시였다.

《정숙동무가 선생부부를 위하여 저녁식사를 마련하였는데 별로 차린것은 없지만 제 집처럼 생각하고 많이 들어야 하겠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황송하여 어쩔줄 몰라하는 그들부부에게 거듭 음식을 권하시며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들부부는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숙녀사의 겸허하고 소탈하신 인품에 끌려 어느덧 어려움을 잊고 단란한 한가정의 분위기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최일천과의 련계밑에 활동하던 나날들에 대한 리극로선생의 이야기도 주의깊게 들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선생이 조선어학회를 조직하고 일제의 조선어말살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것은 참으로 높이 평가할 애국적활동입니다.》

별로 한 일도 없는 자기를 그토록 과분하게 평가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앞에서 리극로선생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리극로선생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선생이 오래전부터 조선어를 연구해왔고 또 현재 조선어문연구회사업을 맡아보고있는것만큼 우리 말과 글을 발전시키는데서 선생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선생은 조선어에 대한 연구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그 우수성을 옳게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똑똑한 <조선어사전>이 없습니다. 어문연구회에서는 앞으로 <조선어사전>을 편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몸소 저택에까지 부르시여 조선어연구사업을 더 잘하도록 거듭 가르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가슴에 새겨안으며 리극로선생은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기어이 보답할 마음속 결의를 다지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리극로선생을 부르시여 어문연구회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료해하시고나서 한 일군에게 전화로 리극로무임소상동무에게 우산장휴양소의 방을 내주어 어문연구회집단이 일할수 있게 해주도록 하시였다.

리극로선생은 어버이수령님의 각별한 관심속에서 편집집단과 함께 《조선어문법》편집을 끝내고 《조선어사전》편찬사

업을 다그쳤다.

그러나 이 사업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으로 말미암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전쟁의 중화를 한몸에 지니시고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리극로선생을 만나주시고 전쟁전부터 편찬중에 있던 《조선어사전》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긴박한 정세속에서 차를 보내주시여 《조선어사전》원고들을 안전하게 운반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다시 형편을 물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리극로선생은 격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인쇄는 중단되였지만 원고는 손실없이 보존하고있다고 말씀올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걱정했는데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며 사전원고를 어떻게 썼다고 망탕 다루겠는가고, 원고가 살아있다니 됐다고, 인쇄는 원고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기회를 봐서 찍도록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정녕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 한 학자의 연구사업의 성과를 위해 이런 사랑, 이런 믿음을 안겨준 령도자가 동서고금 그 어디에 있었던가.

리극로선생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의 신심을 가다듬고 그이께서 틔워주신 지혜의 나래를 활짝 펼쳐 조선어문연구에 전념하였다.

그가 조선어문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 누구보다 기뻐하신분은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전쟁의 포성이 울부짖던 준엄한 나날 그이께서는 리극로선생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후보원사의 영예를 지니도록 해주시고 조선어문학연구소 소장의 중책을 맡겨주시였다.

1952년 11월 22일부 《로동신문》 1면에는 《내각결정 183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을 조직할데 대하여》가 대서특필되였고 그옆에 과학연구사업에 공로가 있는 학자들에게 원사, 후보원사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기사가 크게 실리였다.

그 신문에 언어학 후보원사가 된 리극로선생의 이름이 실리였던것이다.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리극로선생의 열의는 나날이 높아만 갔다.

그는 년로한 몸도 아랑곳하지 않고 1949년에 연구출판한 《실험음성학》에 기초하여 조선어의 억양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규범성을 해명하기 위한 《조선어조연구》에 달라붙었다.

누가 그에게 그런 연구를 하라고 요구한것은 아니였다.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리극로선생을 비롯한 언어학자들에게 우리 말은 류창하고 높고낮음과 길고짧음이 있으며 억양도 좋고 듣기에도 매우 아름다운 언어이다, 우리 말은 표현이 풍부하여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잘 나

타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수도 있고 울릴수도 있으며 웃길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민족어를 적극 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던것이다.

이를 가슴속깊이 새겨두었던 리극로선생은 언어학자로서 자기 부문에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 자신의 행복도 영예도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조선어조연구》라는 연구과제를 스스로 맡아안았던것이다.

어조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리극로선생은 초학도의 자세로 평양음악대학(당시)에서 음악강의를 받기도 하고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그곳 사람들의 회화에서 억양을 채보하여 연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심해지는 로쇠는 리극로선생의 연구활동을 이모저모로 방해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조선어연구에 심혈을 깡그리 바쳐가는 리극로선생의 더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귀중히 여겨주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로년기에도 연구사업을 잘할수 있도록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리극로선생이 전문병원에서 검진도 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주시고 연구사업에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사업조건과 생활상편의를 보장해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리극로선생이 펴그나 시일이 흘렀으나 론문집을 다그쳐 끝내

지 못하여 안타까움에 모대기던 그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 경축행사에 그를 불러주시고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까지 선물로 안겨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아름찬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로운 사랑속에서 리극로선생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을 후덥게 느끼며 더욱 분발하여 연구사업을 다그쳤다.

마침내 리극로선생은 공화국창건 25돐을 맞으며 론문집 《조선어조연구》를 세상에 내놓을수 있었다.

론문집 《조선어조연구》는 훌륭히 완성되여 우수한 우리말의 억양변화를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조선어를 규범화하고 문화어를 적극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80고령에 집필완성한 론문집 《조선어조연구》!

참으로 그것은 망국의 설음을 안고 몸부림치던 그때로부터 조선어연구에 뜻을 두고 한생을 언어학연구에 바쳐온 로학자의 삶을 끝없이 빛내여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고귀한 결정체였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모든 성과를 고스란히 리극로선생에게 안겨주시였다.

하여 리극로선생은 생일 80돐을 맞는 해에 공화국원사의 칭호와 함께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의 따뜻한 보살피심과 세심한 손길속

에서 그는 생의 말년까지 애국의 길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일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극로선생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크나큰 믿음은 일찌기 리극로선생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생의 말년까지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서 사업하도록 보살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 그대로였다.

한때 리극로선생이 나쁜 놈들의 모함에 걸려 자식들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되였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극로선생은 어버이수령님의 신의를 절대로 저버릴수 없다고 하시며 그의 《죄》는 잘못된것이라고 하시면서 초소를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던 자식들을 다시 대학교단으로 불러주시고 인민군대에 복대시켜 한등급 더 높은 군사칭호를 수여받게 해주시였다.

세월이 흘러 리극로선생의 자식들도, 그와 오래동안 함께 일해온 학계의 친지들과 그의 제자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있던 때인 1993년에 리극로선생의 생일 100돐을 기념하여 《최근 새롭게 밝혀진 조선어학회의 성격과 그 반일애국활동》이라는 제목으로 학술토론회를 조직하여 그의 공적을 길이 전하도록 하여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1993년 2월 어느날인가는 리극로선생의 자녀들의 사업과 생활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리극로선생은 생전에 일을 많이 한분이라고, 선생의 이름은 해내외동포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과 조선어의 발전을 위하여 헌

신해온 그를 뜨겁게 회고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리극로선생이 미처 못다한 일을 그 자식들이 해야 한다고 하시며 모두가 조국의 통일과 나라의 부강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도록 잘 도와주자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책임적으로 보살펴줄데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도 안겨주신 사랑이 부족한것만 같으시여 리극로선생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해주시고 조국통일상수상자, 반일애국렬사로 내세워주시였다.

참으로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과 꼭같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품이야말로 리극로선생과 그 자녀들이 참다운 애국의 길에서 온갖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으며 복받은 삶을 누려올수 있은 위대한 사랑의 품이다.

리종만 편

짓밟힌 꿈 ……………………………………………… 60

민족의 번영을 위한 길 …………………………………… 69

크나큰 포용력에 감화되여 ……………………………… 80

애국지사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사랑 …………………… 93

경력

- 1885년 1월 14일 경상남도 울산군 대현면 룡잡리에서 출생
- 1912년 일제의 토지략탈에 맞서 농림주식회사 설립
- 1938년 대동광업주식회사 사장, 대동공업전문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경영. 출판사 설립
- 1945년 남조선의 조선산업건설협의회 위원장, 기관지 《독립신보》 경영
- 1949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에 참가
- 1954년 중공업성 지질탐사관리국 고문
- 1955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 1957년 8월 제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 1977년 1월 17일 사망
- 1990년 8월 15일 조국통일상 수상

해방전 민족산업을 일떠세워볼 어벌찬 꿈을 품은 사나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리종만.

꿈을 이루기 위해 안해본 일이 없었다.

농업이면 농업, 광업이면 광업, 어업이면 어업…

왜놈들이 판을 치는 험악한 세상에서 손을 대는 일마다 실패가 뒤따랐지만 결코 그의 도전의식을 꺾을수는 없었다.

뼈를 깎는 아픔과 쓰디쓴 실패, 좌절의 수많은 언덕을 넘고넘으며 방황하던 그는 약관의 나이로 세상을 떠돌아다닌지 30년세월만에 일약 금광업에서 성공하여 당시로서는 누구나 놀랄만 한 부자로 되였다.

왜놈들도 부러워할만치 막대한 재산을 얻게 된 그에게는 또다시 남다른 꿈이 부풀었다.

고향사람들을 위해,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큰일을 하고싶었던 그의 꿈은 나라없던 그 시절에는 펼칠수도, 지켜낼수도 없었다.

오로지 저 하늘의 태양과도 같이 만사람을 한품에 안아 보살피고 이끌어주시는 절세위인의 품에 안기여서야 그의 애국의 꿈과 리상은 비로소 이루어질수 있었다.

애국의 꿈과 리상을 안고 통일되고 부강한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은 리종만선생의 생활체

험은 위대한 어버이의 품속에서만 통일애국에 바쳐진 삶이 빛날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짓밟힌 꿈

리종만선생은 1885년 경상남도 울산군 대현면 룡잡리에서 7남매중 둘째아들로 태여났다.

남쪽끝 바다가에 있는 룡잡리는 마을 한가운데로 개울이 흐르고 뒤에는 높은 산을 배경으로 들판과 논밭이 길게 자락을 펼치고있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농어촌이다.

이런 시골에서 뛰여놀며 그는 어려서부터 한문을 공부했으나 16살에 병을 만나 3년을 병석에서 보내게 되였다.

그는 열아홉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지만 얼마후 또다시 병이 도져 학업을 놓을수밖에 없었다.

그가 20대에 접어든 때는 일제가 조선의 국권을 완전히 빼앗고 식민지정책을 더욱더 로골화하고있던 시기였다. 문화, 산업 등 모든것이 너무나 한심하게 뒤떨어진 말그대로 무지와 몽매의 시대였다.

더구나 고향마을은 조그마한 반농반어의 포구였으므로 마을사람들은 모두가 락후한 생활을 하고있었다.

그저 밭이나 갈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아무러한 희망도 없이 사는 마을사람들을 보며 리종만선생은 고향사람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없을가 하고 모대기였다.

그는 나날이 령락되여가는 고향을 위해 무엇인가 보람있는 일을 하고싶어 1912년에 향리에 흩어져있는 서당을 통합하여 대흥학교를 세웠다. 신식교육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였지만 고향사람들을 위해 독학으로 신학문을 공부하고 교편을 잡은 그는 밤을 새워 공부해가며 신학문과 신문화를 학생들에게 배워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봉건적인습에 빠져있는 동네로인들의 눈밖에 나 1년만에 학교문을 닫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사람들모두가 높은 문명을 지닌 리상사회를 건설하자면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소박한 꿈을 안은 그는 마흔을 코앞에 두고는 가족을 이끌고 무작정 한성으로 올라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고학당을 세우고 그것을 운영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기도 하였다.

고학당에서는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중학과정까지의 교육을 시켰는데 보통사람 같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리종만선생은 맨손으로 떠받쳤던것이다.

얼마 안되는 재산마저 고학당에 쏟아붓고보니 가정살림살이형편은 말이 아니였다. 온 식구가 굶기를 밥먹듯 했으며 가

장집물을 차압당하기도 하였다.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하면서 방세를 내지 못해 열흘이 멀다하게 옮겨다녔다.

잘 곳이 없어 길거리를 헤매면서도 그는 고학당을 위해 고심했다.

고학당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못해본 일이 없었다.

직접 만두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석탄손수레를 끌기도 하였으며 인력거를 끄는가 하면 청소부를 따라다니기도 하였다. 자기는 굶으면서도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고스란히 학교에 내놓았다.

가족과 함께 남의 집 곁방살이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우연히 허헌변호사집 사랑채에 들어갔는데 당시 변호사 겸 보성전문학교 교장이였던 허헌선생은 그를 물심량면으로 후원해주었다.

리종만선생이 이렇게 별의별 고생을 다하며 애를 썼지만 고학당은 경영난으로 5년만에 문을 닫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대흥학교와 고학당의 실패를 통해 작은 학교를 하나 경영하려 해도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는것을 절감하게 된 그는 뜻을 펼치자면 스스로 재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그후 기나긴 세월 이를 악물고 돈을 벌기 위해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만 했다.

논밭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부산에 나가 어물상을 차려놓기도 하였고 남의 배에서 품팔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목숨만 겨우 건지기도 하였으며 중석광산을 차려놓기도 하고 금강산의 깊은 산골짜기에 목재소를 차려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개천옆에 쌓아둔 목재가 심한 큰물피해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나니 또다시 빈털터리로 나앉게 되였다.

가슴에 품은 꿈을 이루기 위해 바다로, 산으로, 들로 떠돌아다닌 15년세월이 그에게 남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과 이마에 깊게 팬 주름, 손바닥에 단단하게 박힌 굳은살이 전부였다.

그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운명을 저주하고 심지어 고단한 인생을 끝내버리려는 모진 마음도 먹어보았다.

그러나 원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였다. 더구나 리상사회에 대한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을수는 없었다.

다시금 용기를 가다듬고 달라붙었지만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실패가 스무번을 넘기다보니 더는 슬프거나 괴롭지도 않았다.

1928년 그는 한 친구와 동업으로 또다시 금광개발에 나섰다. 자본은 친구가 대고 탐사와 채굴은 그가 맡아 리익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3년만에 어느 한 금광에서 금맥이 터지자 그는 마침내 자기가 꿈꾸던 사업을 할수 있게 되였다는 기쁨과 흥분에 휩싸이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간, 모든게 수포로 돌아갔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그는 자신이 피땀흘려 일군 그 금광에서 돈 한푼 받지 못한채 쫓겨났던것이다.

나라고 성공 못한다는 법은 없다.

그는 보잘것없는 자금을 가지고 또다시 이를 악물고 함경남도 신흥군에서 기린광산을 차렸다.

기린광산은 큰 수입을 안겨주지는 않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을만큼의 소득은 안겨주었다.

기린광산을 발판삼아 좋은 바탕과 품질이 보장된 금광을 찾아다니던 그는 1932년 일본인이 경영하던 영평금광을 사들이게 되였다.

그가 벌린 스물아홉번째 사업이였다.

영평금광은 옛날부터 잘 알려진 사금광산이였지만 한동안 폐광으로 방치된 상태에 놓여있었다.

유명한 사금산지라면 부근에 틀림없이 석금(돌에 박혀있는 금)이 묻혀있을것이라고 판단한 그는 이번에는 꼭 성공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광산개발을 대대적으로 벌려 몇년후에는 국내에서 제일가는 《금광왕》이 되였다.

그야말로 부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를 베풀기 위해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의 처지가 일시에 역전되였다.

오랜 실패끝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목돈이 생기자 리종만선생은 그 돈을 나름대로 백성들을 위한 의로운 일에 아낌없이 바치였다.

1937년 5월 금광회사의 창립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그는 자기가 번 돈의 3분의 1을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소작농을 위해 내놓겠다는 《폭탄선언》을 하였는데 소작료를 30%만 받겠으며 30년이 지나면 아예 한푼도 받지 않겠다는 그의 말은 참으로 충격적이였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전조선인구의 8할이 농사에 종사하는것만큼 농촌의 생활수준은 곧 조선인의 생활수준을 의미합니다. 농민의 빈궁은 우리가 가장 력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제가 20여년동안 광업에 종사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금전을 만지게 되였으니 이제부터는 조선농촌을 다시 살리기 위해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자고 이런 계획을 한것입니다.

처음 광산을 시작할 때도 돈을 잡으면 꼭 농촌사업을 해보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리종만선생이 조선농촌을 살리는데 이바지할 명목으로 창설한 대동농촌사를 포함하여 사회에 기여한 돈은 수십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미력하게나마 전력을 다하여 사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려는 마음을 지닌 그였기에 1937년 10월에는 왜놈들의 《신사참배》강요문제로 페교위기에 처한 평양숭실전문학교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하여 또 한번 세상을 감동시켰다.

평양에 하나밖에 없는 사립전문학교가 페교를 결정하자 교원과 재학생, 동창회, 평양유지들은 40년력사를 가진 학교의 간판을 내리게 할수 없다며 숭실전문학교존속운동을 벌렸다.

조선사람들 누구나가 어떻게든 학교의 간판을 내리는것만은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대한 액수의 인수자금과 조선총독부의 악랄한 방해로 숭실전문학교는 끝내 페교되고말았다.

이에 분격한 리종만선생은 평양에 자연과학과 기술공학계통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키워내는 대동공업전문학교를 세웠다.

이 전문학교는 1938년 6월 숭실전문학교가 페교된 직후 학생 80명을 둔 한개의 학과(광산과)로 정식으로 개교했다.

전문학교는 1944년 페교될 때까지 5회에 걸쳐 수백명의 조선인졸업생을 내놓았다.

그뿐아니라 그는 《일하는 사람은 다같이 잘살라!》는 경영철학을 내세우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였고 추가리윤을 로동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전국에 225만평의 농

지를 소유한 4곳의 집단농장도 건설하였다.

한편 출판사도 내오고 《광업조선》, 《농업조선》과 같은 출판물도 발행하고 광업과 과학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서적들을 출판하였다.

그러나 자기 손으로 일군 재부로 가슴속에 품었던 꿈을 실천에 옮기려던 그의 소망은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하에서는 결코 빛을 볼수가 없었다.

1943년 조선총독부의 금광강제정리사업과정에서 그의 광산기업은 해체되였고 자금난으로 리상농촌의 꿈도 접게 되였다.

같은 해에 출판사도 공업전문학교 운영자금마련을 위해 팔아넘기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듯 리종만선생은 민족산업을 일떠세워보려고도 해보고 민족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학교도 세우고 출판사도 경영하였지만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민족을 위한 참다운 일을 전개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였다.

일제는 그에게서 집도 재산도 다 빼앗고 강제로 경기도에 있는 사찰로 내쫓았다.

꿈이 무참히 짓밟힌 그에게 차례진것은 나라없는 식민지백성의 모멸감뿐이였다.

그후 사찰에서 은거생활을 하던 리종만선생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싸우고계시는 **김일성**장군님

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전해듣게 되였다.

그때마다 무릎을 치며 《이제 두고봐라. **김일성**장군님은 하늘이 낸분이시니 머지않아 이 나라는 해방되고 대통운이 틀게다.》라고 말하군 하였다.

사찰에서 조국해방을 맞이한 리종만선생은 커다란 감격과 기쁨을 안고 한달음에 서울로 달려갔다.

당시 서울에서는 미국이 남조선에서 주인행세를 하고있었다. 미제의 군정통치라는것도 사실상 일제의 총독통치와 다를바가 없었다.

해방후 남조선의 조선산업건설협의회 성원으로 사업하면서 그는 우리도 공화국북반부에서처럼 장차 일제와 지주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무상분배하여야 하며 큰 기업소의 국영화와 중소기업의 협동화를 실현하고 계획경제를 해서 국가정책을 계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내산업건설을 발전시키고 외국자본의 침입을 방지해야 한다는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이것이 미군정청의 마음에 들리 없었다.

미군정청은 저들의 군정통치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가 운영하던 삼척공업지구운영권까지 박탈하였다.

민족산업을 잘 일떠세워보려던 그의 커다란 포부는 이렇게 외세에 의하여 또다시 무참히 짓밟히고말았다.

참다운 리상사회에 대한 애국의 꿈을 실현해보려고 그리도

모지름을 써보았지만 외세가 있는 남조선땅에서 그것은 한갖 신기루에 불과하였다.

리종만선생은 민족적울분으로 가슴을 쳤고 도대체 어느 길로 나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모대기였다.

그러한 그에게 재생의 밝은 서광이 마침내 비치여들었다.

그 빛과 더불어 참다운 애국의 인생이 바야흐로 시작되였다.

민족의 번영을 위한 길

남녘땅에서 해방을 맞이한 리종만선생은 여러 기회에 북행길에 올랐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뜻을 이룰수 없었다.

그가 위대한 태양의 품으로 찾아올 용단을 더욱 굳히게 된 것은 평양에 갔다온 려운형과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거족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김구로부터 장군님을 직접 만나뵈온 이야기와 련석회의소식을 들은 후였다.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이 떠받들어야 할 유일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민족은 오직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로 나가야 한다. 장군님께서는 남의 힘으로가 아니라 바로 조선민족의 힘을 한데 모아 통일독립을 하자는 립장이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한다면 당파나 종교의 소속, 재산의 유무, 정치적견해여하를 불문하고 반드시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단결해야 하오.

나는 이전에 공산주의자들이란 협애한 사람인줄로만 알았는데 이번에 가보니 도량이 크고 관대하기 비길데 없다는것을 알았소.

김장군님과 같으신분이 진정한 공산주의자이라는것을 나는 이번에 내 눈으로 실지 보고서야 진심으로 느꼈단 말이요.

그런 공산주의자라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공산주의를 나무라겠습니까.

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가겠소.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요.》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면서 김구는 자기의 완고하고 편협하던 정치적견해를 고쳤던것이다.

김장군님과 같으신분이 진정한 공산주의자이시다!

이 말은 불세출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의 탁월한 정치적식견과 고매한 덕성에 대한 온 겨레의 걷잡을수 없는 동경과 흠모의 분출이였다.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리종만선생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품이라는것을 절감하였다.

리승만역도의 반민족적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당해보면서 그의 이런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언제인가 리종만선생이 리승만역도한테 불리워간 일이 있었다.

리승만은 그에게 지하자원개발에 경험도 있고 수완도 있으니 남강원도일대를 맡아 개척해달라는것이였고 또 그쪽의 민심이 소란하니 알아차리고 적절한 대책도 미리 세워달라는것이였다.

리종만선생이 운영하던 《독립신보》가 자기들의 정치내막을 폭로하였다 하여 강제로 폐간시킨 리승만이 이번에는 광산개발을 미끼로 그를 인민들의 투쟁을 무마시키려는 저들의 음흉한 책동에 리용해먹자는것이였다.

생각할수록 분하였다.

그후 그가 자기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리승만역도는 그에게서 산업운영권을 빼앗아 매판자본가들에게 넘겨주었다.

리종만선생의 경우 남조선의 썩은 사회에서 개가죽을 쓰고 굴욕을 참는다면 재산도, 사회적지위도 다 보존될수 있을것이였다.

하지만 민족적량심을 팔아 자기의 리익을 챙길수는 없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에 그를 불러주시였다.

그때 리종만선생의 생각은 깊어졌다.

개가죽을 쓰고 굴욕을 참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도 지조를 지키는 보람속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그는 환갑나이에 많은 재산과 사회적지위, 소중한 가정을 뒤에 두고 혈혈단신 평양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품으로 갈 대용단을 내리였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남조선의 조선산업건설협의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력사적인 대회장에 들어서게 되였다.

1949년 6월 25일.

바로 이날 그는 오매불망 뵙고싶던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미제의 분렬책동에 대처하여 광범한 애국력량을 결속하기 위하여 소집된 대회로서 남북조선과 해외의 70여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참가하였다.

그가 회의장인 모란봉극장에 이르니 북과 남에서 모여온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장내가 꽉 차있었다.

리종만선생은 북과 남의 대표들이 모여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문제를 론의하게 되였다는 기쁨으로 하여 마냥 가슴이 높뛰였다.

한편 민족자본가로서 반일애국의 뜻을 품고 일본놈들과 담을 쌓고 지냈다고는 하지만 그의 심중에서는 공화국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고 대해주겠는가 하는 위구심과 초조감이 좀

처럼 가셔질수 없었다.

어쨌든 자본가로서 왜놈의 통치밑에서 큰 기업을 한 부자가 아니였던가?

이윽고 주석단으로 키가 후리후리하고 위풍이 당당한 젊으신분이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앞서 걸어나오시자 모두가 일제히 일어나 우렁찬 박수소리와 환호성을 터뜨렸다.

아! **김일성**장군님이시다!

박수소리와 환호성은 더욱 세차게 울려퍼졌다.

환호하는 회의참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시며 회의장에 들어서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며 옆에 있는 허헌선생을 비롯한 주석단성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남조선에서 들어온 대표들가운데 리종만선생이 왔으면 주석단으로 올라오십시오.》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주석단으로 오른 리종만선생이 옷깃을 여미며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려 하자 일어서시여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산업계에서 명망이 있는 리종만선생을 오늘 이렇게 만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선생이 년로한 몸으로 38선을 넘어 먼길을 오시느라고 수고하였습니다.

나는 선생이 남조선의 산업건설협의회의 대표로 평양에 와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에 참가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시면서 그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에 참가한데 대하여 훌륭한 애국적거사로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과분한 평가까지 받고 너무도 송구하여 그는 《장군님을 뵈올 체면이 못되는줄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긴 세월에 나라를 찾아주시느라고 얼마나…》라고 하며 감격에 목메여 인사의 말씀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다.

몸소 자신의 곁에 앉혀주시며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소탈한 풍모앞에서 그는 어느새 서울을 떠나 평양으로 향하면서도 지워지지 않던 한가지 생각, 북에서 나를 어떻게 대해줄것인가 하던 걱정이 가뭇없이 사라지는것을 느끼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휴식시간에도 쉬지 않으시고 그와 뜻깊은 담화를 하시였다.

《지난날 선생은 많은 재산을 가진 기업가였지만 일제와 담을 쌓고 민족적량심과 애국적지조를 지켜왔습니다. 선생은 일제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나라의 지하자원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후대교육사업과 계몽사업에 기여하여왔습니다.

선생은 해방후에도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리승만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잘 싸웠습니다. 우리는 선생의 애국적지조를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국토완정과 조국의 번영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언제나 선생과 같은 애국자들과 손잡고 나갈것입니다.》

정녕 너무도 분에 넘치는 평가였으며 값높은 믿음이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장장 20성상 항일혈전을 벌려 조국을 해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리종만선생을 민족적량심과 애국적지조가 있는 애국자라고 높이 내세워주시였던것이다.

애국자란 마음먹었다고 하여 되는것이 아니다.

나라를 위해 참답게 살려면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야 하며 위인의 품에 안길 때라야 애국의 길을 걸을수 있다는것을 그는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도, 외세가 살판치는 남조선사회에서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뒤돌아볼수록 자신의 애국은 마음뿐이고 념원뿐이였음을 자책하던 그였다.

그런데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우국충정을 애국자라는 고귀한 이름으로 값높게 빛내주시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휴식도 잊으시고 그에게 민족적단합을 위한 통일전선로선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면서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서 모두가 새 민주조선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한 사상의 진수에 대해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각계각층의 근로대중을 건국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접하는 그의 생각은 깊어졌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수많은 애국적기업가들이 건국로선을 받들고 민족산업의 발전과 나라의 완전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는 속이 확 트이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새겨들으며 그는 절세위인의 높으신 덕망과 고매한 인품, 사리정연한 말씀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나라잃은 불우한 민족자본가로서 제딴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며 한 크지 않은 일도 애국적지조라고 높이 치하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누를길 없어 리종만선생은 평양에 남아 인생말년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힘껏 일하고싶다는 외람된 청을 올리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뜻을 긍정하시듯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선생이 이번에 평양에 남아서 사업할 의향을 표시하였는데 앞으로 조국의 통일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오늘 조선민족앞에 나선 최대의 과업은 국토완정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실현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중대

한 민족사적과업은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의 통일을 념원하는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총집결하여 단합된 힘으로 투쟁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고, 이번에 남북조선의 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전국적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를 가지고 거족적구국대책을 강구하려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사업에 적극 참가하기 바라며 앞으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서 책임적인 임무를 맡아주었으면 한다는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안겨주시였다.

정녕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의 품은 무한히 넓고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감격에 젖어있는 리종만선생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시 외세에 의하여 식민지화된 남조선의 민족산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시면서 우리 나라 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을 알려주시고 그가 민족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 사업에도 기여할수 있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는 금, 은, 동, 철을 비롯하여 귀중한 유용광물이 많이 매장되여있다고, 참으로 우리 나라는 자원이 가득찬 나라이라고, 선생은 새로운 광맥들을 찾아내고 광산들을 개발하는 사업에 힘써주어야 하겠다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의 광물자원의 분포

상태에 대하여 알려주고 광산운영기술과 경험도 가르쳐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회의휴식시간도 퍼그나 흘렀으나 다정하신 눈길로 송구스레 앉아있는 그를 바라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선생이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많이 해줄것을 기대한다고, 선생이 불편없이 사업할수 있도록 내각에서 잘 돌봐주도록 하겠다고 하시면서 선생은 나이도 많은데 건강에 각별히 류의하셔야 하겠다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이윽고 회의장으로 향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는 그의 눈굽은 뜨거워올랐다.

나이 60이 되도록 인생의 갖은 우여곡절을 다 겪으며 애국의 마음도 육체도 쇠진해버렸던 황혼기가 언제였던가싶게 참다운 애국애족의 길에서 재생한 기쁨으로 하여 그의 두눈에서는 뜨거운것이 하염없이 흘러내리였다.

어버이수령님이시야말로 열화같은 인간애와 하늘땅보다 넓은 도량, 한없이 소탈한 풍모, 이 세상 모든것이 머리숙일 위대한 포용력과 고결한 덕망으로 민족을 안아 보살펴주시는 희세의 영웅이시구나 하는 생각에 감개무량하기 그지없었다.

과연 조선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로구나!

심중에 맥박치는 이 한가지 생각으로 그날 저녁 잠자리에 누웠어도 리종만선생은 좀처럼 잠들수가 없었다.

감격과 흥분은 계속 새로운 감회를 불러오기만 하였다.

비록 숱한 고생을 겪으며 더듬은 길이기는 하나 평양으로 온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싶어 거듭 희열을 느끼였다.

하기에 후날 그는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썼다.

《가슴속에 조선민족의 더운 피가 맥박치고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따라나서야 한다.

나는 이 길이야말로 나라의 통일독립을 위한 길이고 민족의 번영을 위한 길이며 또 이 길에 개인의 행복도 영예도 있다는 가장 고귀한 진리를 깨달았다. 나의 어제와 오늘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크나큰 포용력에 감화되여

새로운 감회와 의욕속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 제2일회의를 맞이한 회의참가자들은 뜻밖의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바로 간밤에 서울에서 김구선생이 피살되였다는것이 아닌가.

이날 회의의장인 홍명희선생은 김구선생의 뜻하지 않은 재난과 관련하여 대회의 이름으로 조의를 표하였다.

《…김구씨는 조선독립을 위하여 노력분투한분입니다.

비록 그가 민주주의적자주독립방향에 대하여서는 모호하여 갈팡질팡 헤매는 반민주주의적, 철저치 못한 견해가 있기는 하였지만 어쨌든 미군주둔을 반대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인사였습니다.

이런분이 리승만괴뢰도당의 손에 의해 재난을 입은것은 분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김구씨의 재난에 대하여 애도하며 동시에 그의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합시다.》

대회장은 자못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아까운분을 잃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매우 애석해하시면서 그를 살해한 놈들

에 대한 격분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거의 한생을 반동적인 정상배들속에 섞이여 사소한 정견의 차이나 비판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면 덮어놓고 따돌려 박해를 가하는것만 보아오던 리종만선생에게 있어서 이것은 커다란 충격이 아닐수 없었다.

사상과 정견, 주의주장을 떠나 온 겨레를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포옹력,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그 품, 뜨거운 그 사랑에 대하여 그는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되였다.

김구선생이 당한 재난소식은 대회참가자들을 더없이 격분에 사무치게 하였고 토론자들은 일치하게 하루빨리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 이튿날에 계속된 대회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강령과 선언서를 채택하였으며 리종만선생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위원 및 상무위원으로 선거되였다.

이는 그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의 표시였다.

이 크나큰 믿음은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조국과 민족을 저버리는 일이 없이, 량심을 흐리는 일이 없이 살아온 민족자본가에 불과한 그를 애국의 대오에 떳떳하게 내세워주는 태양의 따뜻한 손길이였다.

리종만선생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튼튼히 결속할데 대한 방침이 얼마나 위대한 생활력

을 가지고 천만사람의 가슴을 들끓게 하였는가를 대회가 끝난 직후인 6월 29일에 열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경축평양시민대회에서 더욱 절절히 느낄수 있었다.

구름처럼 모여든 수십만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새 조국건설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열정이 한껏 어려있었다.

이 도도한 흐름에 남조선에서 온 인사들도 합류되여 실로 민족대단합의 거창한 흐름이 거리에 차고넘쳤던것이다.

얼마나 미더운 힘의 과시였던가!

이날도 리종만선생은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주석단으로 올랐다.

각계각층 대표들이 연단으로 달려나와 조국전선선언서를 지지하여 열화같은 결의들을 토로하였다.

그들은 일치하게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울 철석같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만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고수되고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과 조국의 무궁한 번영이 담보되며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여 겨레의 숙망인 조국통일위업도 성취될수 있는것이다.

외세의존과 사대망국풍조가 차고넘치는 남조선땅에서 비분과 좌절로 밤을 지새우며 한탄하던 그는 너무나 대조적인 현

실앞에서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이 거창한 흐름속에 합류되고 하나의 의지로 용해된 자신을 찾게 된것이다.

리종만선생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위원 및 상무위원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내각간부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당시의 그의 나이가 예순세살이였다.

인생을 새롭게 살기에는 너무도 늦은감이 드는 나이였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배려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껏 일해볼 열망으로 가슴 불태우며 그는 공부를 시작하였다.

비록 늙기는 하였지만 아는것이 힘이라는 진리앞에서 무엇을 주저할것인가.

늙음을 한탄할것이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하여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자신을 채찍질해가며 리종만선생은 백배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학교과정을 마치고 신심에 넘쳐 일을 시작한 때 침략자들은 끝내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리종만선생이 외국에 가서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또다시 취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

외국에 가있었던 선생은 1954년 정초에야 귀국하게 되였다.

압록강을 건너서며 그는 상처입은 조국강산의 참혹한 모습에 가슴이 미여져오고 너무도 격분하여 그 아픈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할길이 없었다.

그가 조국에 도착한지 며칠 지나서였다.

그날도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사무실에 나가 일하다가 방금 점심을 하고난 참인데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는 련락이 왔다.

서둘러 차에 올라 그이께서 계시는 방으로 들어서니 몇몇 간부들이 수령님의 두리에 서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을 다시 뵈옵게 되는 순간 리종만선생은 그 기쁨을 무엇이라 형용할수 없었다.

《수령님, 그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뜨거워오르는 격정에 그는 문안인사조차 변변히 올리지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손에 드셨던 연필을 놓고 마주 나오시여 그의 손을 잡아주시며 매우 반가와하시였다.

《선생이 몸성히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래도 외국땅이 자기 집만 하겠습니까. 앉으십시오.》

가렬한 전쟁의 중하를 겪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신 어버이수령님을 뵈온데다가 그이의 따뜻한 손길에 접한 리종만선생은 흥분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주하신 책상우에는 큰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매일 매 시각 작전지도를 보시며 침략자들과의 싸움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늘은 지도를 펼치시고 전후복구건설을 령도하시느라 침식을 잊고 사업하신다고 생각하니 그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그이께서는 그의 건강과 생활에 대하여 세세히 물으시고나서 선생을 급하게 만나자고 한것은 복구건설과 관련하여 의논할것이 있어서 오라고 하였다고, 전후복구건설을 하자니 동이 많이 요구된다고, 동을 한t도 좋고 두t도 좋으니 있는것을 다 파내자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능과 수완도 딸리고 광업계에서 오래동안 일해왔다는 이름뿐인 자기를 여전히 믿어주시고 나라의 중요한 사업을 토론해주시는데 힘을 얻은 그는 신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였다.

《장군님! 문제없습니다. …동도 많고 금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린 그는 해방전 대동광업주식회사를 경영할 때 북부일대의 여러 지대를 돌아다니며 탐사한 내용과 어느 한 산에 20만t의 동광석이 매장되여있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대단히 좋은

자료를 선생이 알려주었다고 하시면서 그럼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해보자고 하시며 중공업성 지질탐사관리국의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을 기다리시는 동안 선생에게 동광석을 어떻게 캐내면 좋겠는가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채광은 어떻게 하며 그 처리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도 못하였던 그는 아무런 대답도 드릴수 없었다.

잠시후 그 일군이 방에 들어서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리종만선생을 가리키시며 그를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일군이 처음 본다고 대답을 올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사를 하오. 리종만선생이요. 앞으로 국장동무는 리종만선생을 모시고 사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로 부르시고 동광석을 캐내기 위한 탐사조직과 수송, 고압선인입과 기본건설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따져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다시금 전후복구건설에 동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강조하시면서 송전선을 복구하는데도 그렇고 앞으로 철도의 전기화를 실현하는데서도 동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순간 리종만선생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였다.

흘러간 오랜 세월 속절없이 묻혀있던 은금보화가 바야흐로 해빛을 받아 인민의 행복에 이바지하게 되였다는 희망과

기쁨과 함께 그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울려준것은 복구건설의 첫 단계에서 벌써 철도전기화를 실현할 전망을 펼치시는 그이의 가르치심이였다.

그때 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미 가렬처절한 전화속에서 지질학자와 자리를 같이하시고 서해안간석지개간문제를 두고 의논하셨고 건축가를 부르시고서는 평양의 복구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주시고 설계를 작성하게 하시였으며 전선길에 잠시 들리신 파괴된 농촌마을에서는 여기에 앞으로 대규모적인 과수원을 조성하자고 하시며 인민들을 고무해주신 사실을 알았더라면 더욱 놀랐을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기술자들을 데리고 어느 한 산에 나가 조사해볼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오늘부터 리종만선생을 동무네 고문으로 임명한다고, 앞으로 동무들은 리종만선생을 도와서 일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당부하시였다.

숭엄한 감정으로 그이를 우러르는 리종만선생의 뇌리에는 어느 한 일군으로부터 전해들은 정전직후에 있었던 일이 되새겨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후 절실히 필요한 동광석을 찾으시려고 어느 한 지점에 대한 탐사에 실로 막대한 자금을 돌려주시였다.

푼전이 귀하였던 때라 일군들은 그 엄청난 액수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만일 동광이 없다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러한 일군들에게 그 돈을 다 쓰고도 동광석이 없으면 산꼭대기에 후대들이여, 여기에는 동이 없으니 다시는 손을 대지 말라는 비석을 세워놓자고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후대들은 손해를 보지 않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는것이다.

가슴뜨거운 그 사연을 전해듣고 그때 얼마나 감동했던가.

나라와 민족의 만년대계를 위하시는 숭고한 그 뜻과 한없이 넓은 품이 지금 자기를 지켜주고 뜨겁게 안아주고있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신임과 사랑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날과 더불어 더더욱 뜨거워만졌다.

한번 손잡으시면 어떠한 환경에서나 끝까지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가 걸어온 과거보다도 그의 운명의 전도를 더 걱정하시면서 그를 조국과 민족이 아는 애국지사가 되도록 보살펴주시고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그 사랑, 그 믿음을 안고 그는 협산준령을 밤낮으로 톺으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동광석을 찾고찾았다. 그러나 결과는 시원치 않았다.

새로 탐사를 더하면 몰라도 당장은 거의 가망이 없었던것이다.

이렇게 되자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그에 대한 구구한 말들이 돌았다.

그는 번민속에 잠기게 되였다.

동이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을 무슨 낯으로 뵈온단 말인가?!

함께 갔던 기술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정부에서는 나를 과연 어떻게 보겠는지?…

그가 심각한 고민속에 빠져있던 그해 4월 중순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와 같이 어느 한 산에 갔다온 지질탐사관리국의 책임일군으로부터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조용히 방안을 거니시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산에 동광석이 20만t이 없다고 해도 동무들이 리종만선생에 대하여 절대로 다르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우리가 리종만선생을 믿은것은 동광석때문이 아니라 그 선생의 애국적인 지조와 민족적인 량심이라고 하시는것이였다.

그리시면서 그 산에 동광석이 20만t이 아니라 단 한t이 있어도 그것이 리종만선생이 탐사한 나라의 지하자원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귀중한것인가, 지금은 나라에 한g의 동이라도 더 많이 요구되는 때라고, 이러한 때에 한t의 동이라도 캐낼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리종만선생은 나라에 큰일을 한

셈이라고, 그러니 동무들은 거기에 동광석 20만t이 없다고 하여 그 선생을 의심하거나 박대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하시는것이였다.

《재삼 말하지만 내가 믿은것은 리종만선생의 애국심이였고 민족적량심이였습니다. 동무들은 앞으로도 리종만선생을 계속 잘 모시고 그 선생을 적극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깊은 신뢰와 뜨거운 사랑, 위대한 포용력이 넘치는 말씀이였다.

그이의 말씀을 전달받은 리종만선생은 터져오르는 오열을 막을길 없었다.

동광석 20만t을 찾지 못한것보다 그 일로 해서 마음고생을 하고있을 자기를 더 생각하시는 그 믿음과 은정, 그 일로 해서 누가 시비라도 할세라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해빛같은 그 사랑, 이 세상 천하에 어버이수령님처럼 사려깊고 인자하신 인품을 지니신 위인이 또 어데 있으랴싶었다.

그럴수록 그이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도량과 인정미를 다시한번 뜨겁게 절감할수 있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신 높은 신임을 거듭 받아안게 된 그는 값없이 살아온 지난날들이 더없이 한스러웠다.

좀더 일찌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의 곁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어느새 인생말년에 이른 아쉬움이 컸다.

그로부터 며칠후 그는 마침내 결심을 품고 내각청사를 찾아갔다.

한 책임일군을 만나자 품속에 깊이 간수했던 한장의 문서를 내놓았다.

그것은 그가 지난날에 경영하던 대동광업주식회사청사를 공화국정부에 넘겨준다는 《양도문서》였다.

그 문서를 내놓으며 리종만선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저에게는 김장군님의 신임이면 그이상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가장 귀중한 장군님의 신임을 받아안은 지금에 와서 나에게는 재산도 귀하지 않고 명예도 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장군님을 받들어 여생을 바쳐 일할 결심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그는 몸과 마음이 한결 젊어진듯 열정에 넘쳐 사업에 더욱 힘썼다.

지질탐사관리국의 한 일군에게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내가 해방전에 왜 동광을 안하고 금만 따라다녔는지 한스럽소.

내 할수 있는 일이란 이것뿐인데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동광을 꼭 찾아내고야말겠소.》

그는 새로운 결심을 품고 다시 탐사의 길에 나섰다.

그는 해방전에 표본을 뜯어 탐사흔적을 남겨놓군 했던 자리를 두루 찾아 여러곳의 전망성있는 유용광물매장지들을 찾아냈을뿐아니라 앞으로 채굴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할 수송, 기타 문제들에서 투자를 적게 하면서도 수송을 헐하게 할수 있는 조사자료를 만들어낼수 있게 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리종만선생의 노력이 정말 크다고, 리종만선생은 애국심이 높은분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끝없는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리종만선생은 어버이수령님께 다소나마 기쁨을 드렸다는 행복감에 가슴이 설레였다.

그에게 있어서 운명적인 계기로 된 이 이야기는 애국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려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도 사람들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리종만선생은 그후에도 젊은 기술자들과 함께 북방의 추위와 눈길도 헤치고 비바람과 무더위도 이겨가며 탐사의 길을 이어갔다.

70고령이였지만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스스로 나선 길이여서 삶의 희열을 한껏 느낀 그였다.

애국지사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사랑

리종만선생이 통일애국의 참된 삶을 빛내일수 있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각별한 사랑은 갈수록 뜨거워만졌다.

1955년 10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리고 그가 년로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므로 오래동안 휴식도 시켰다고 하시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 그가 맡겨진 일을 잘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1957년 8월 27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2기 대의원선거에서 리종만선생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72살이였다.

새로 선거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명단이 신문에 발표

되였을 때였다.

국내에서는 물론 그의 과거에 대해 알고있는 해외동포들까지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명단을 공개한 신문에서 리종만이라는 이름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가 인생말년에 나라의 정사를 토의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나서게 된것도 놀라운 일이였지만 지난날 수백만장자였던 남조선출신의 민족자본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된 사실에서 사람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넓고 따뜻한 품과 사랑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꼈던것이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된 리종만선생은 그저 감격하기만 하였다.

그는 자기를 찾아와 축하해주는 동료들에게 희색이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특별대우를 받고있소.

해방전에는 조국해방을 위해 싸우시는 김장군님께 의연금 한잎 내놓지 못한 기업가였던 내가 오늘 장군님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고 살자니 그저 황송하기만 하구려.

남조선에 그냥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은 식민지예속의 올가미에 걸려 기업은 파산당하고 나라는 존재는 바람받이의 등불처럼 스러지고말았을거요.

그러했을 내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으니 참말

꿈만 갈소. …》

어버이수령님께서 리종만선생에게 돌려주신 신임과 배려, 그것은 민족자본가였던 그를 조국과 민족이 아는 애국지사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사랑이였다.

그가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 제2기 대의원으로, 중공업성 고문으로 인생말년을 보람있게 보낼수 있은것은 이렇듯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깊은 사랑이 있었기때문이였다.

리종만선생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은정넘치는 사랑은 생활의 구석구석에도 따사롭게 미치였다.

1954년 초봄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이 그를 해방산기슭의 경치좋은 곳에 건설된 아담한 살림집으로 안내하였다.

널직한 방이 여러칸이고 시원한 마루방, 창고, 목욕탕, 자그마한 정원까지 달린 훌륭한 집이였다. 영문을 몰라하는 그에게 그 일군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교시가 계시여 선생이 이 집에서 살게 되였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시는 생활필수품이 들어있는 깨끗이 포장한 함을 리종만선생에게 안겨주었다.

뜻밖에 과분한 배려를 받아안게 된 그는 흥분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얼마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외국에서 갓 돌아온 그를 만나

주신적이 있었다.

그때 그의 행색에서 눈길을 돌리지 못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선생이 아직 외국에서 입고 온 옷을 벗지 못했다고 념려하시면서 며칠안으로 그의 나이에 맞는 좋은 양복과 외투를 해드리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는지 무슨 생각에 잠기셨다가 선생이 혼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식모도 보내주고 집도 조용한데 잡아주고 승용차도 해결해주어 년로한분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해주라고 당부하신것이였다.

그때로 말하면 전쟁이 갓 끝난 때라 누구나 단벌옷을 입고 다녔고 집타발할 형편도 못되였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토굴집에서 나오지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나이많은 그가 가족도 없이 홀로 합숙생활을 하고있는것이 언제나 마음에 걸리시여 잊지 못하고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그에게 가능한껏 편의를 보장해주려고 하시는것이였다.

새 집에 들어선 그날 저녁 집안팎을 말없이 몇번이고 돌아본 리종만선생은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사랑이 생각할수록 가슴뜨겁게 사무쳐와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었다.

물론 해방전이나 남조선에 있을 때 그는 좋은 집에서 값진 가구들을 차려놓고 부러운것 없이 살았다.

그렇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이 아담한 집은 그

에 대비할바 없이 따사로운 해빛이 함뿍 차고넘치는 사랑의 요람이였다.

그는 사랑의 요람에서 그저 잠들수 없었다.

남조선에 두고 온 자식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자기에게 돌려주신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은정깊은 이야기를 자식들과 같이 기쁨속에 나눌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에 밤새도록 뒤척거리며 잠 못 이루었다.

그러는 그에게 뜻밖의 기쁜 일이 생기였다. 그의 막내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던것이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에 의해 서울이 해방되자 한주일만에 입대한 막내아들이 1955년 여름 어느날 자기 아버지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 성원으로 사업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였던것이다.

아들을 만난 리종만선생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돌려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밤이 새도록 이야기해주었다.

1956년 5월 그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 성원들을 비롯한 중앙위원들과 함께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는 회의에 참가한 어느날이였다.

이날 회의를 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회의휴식시간에 중앙위원들과 함께 리종만선생을 몸소 만나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그에게 년세도 많으신

데 건강이 어떠한가고 다정히 안부도 물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또다시 만나뵙게 된 기쁨에 가슴설레이며 리종만선생은 그이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막내아들을 찾은 사연을 스스럼없이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아들을 찾아 매우 기쁘겠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시름이 풀리신듯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아들을 제대시켜 공부시키자고, 그렇게 되면 선생은 아들과 함께 살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는것이였다.

리종만선생은 정말 고맙다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지 못하겠다고 감격에 넘쳐 말씀올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즉석에서 해당 일군에게 리종만선생의 아들을 곧 제대시켜 공부시키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은정깊은 조치에 따라 막내아들은 1956년 늦가을에 제대되여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공부할수 있게 되였다.

리종만선생은 어버이수령님의 다심한 사랑에 목이 꽉 메여올랐다.

늘 혼자 있는 그를 걱정하시며 내각에서 각별히 생활을 돌봐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좋은 계절이면 때를 맞춰 경치좋은 곳에 휴양도 보내주시여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관심

해주시더니 아들을 찾아 같이 살도록 해주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쓰시였을가 하고 생각하니 어버이수령님의 깊고깊은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드렸으면 좋을지 몰랐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조치로 군대에서 제대되여 건설대학(당시)을 졸업한 막내아들은 평양시를 훌륭하게 꽃피워나가는 도시건설기사가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74년 11월 15일부 《통일신보》 2면에 실렸던 《수령님의 품에서 새 생활의 길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버지가 평양에 살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리종만선생의 딸이 해외에서 수십여년전에 헤여진 아버지를 만나고싶어한다는것을 아시고는 그가 조국을 방문하여 아버지를 만나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는 은정깊은 배려도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10여년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 성원으로 활동하던 리종만선생은 로환으로 건강이 허락치 않아 80대에 이르러 집에 들어오게 되였다.

하지만 리종만선생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보살피심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극진하기만 하였다.

어버이 그 사랑속에 고령의 나이인 88살에 그는 기적적으로 눈수술을 받고 앞을 다시 보게 되였으며 영화도 감상하면서 말년을 행복하게 보내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나이가 한해두해 지나면서 많아지

자 일군들에게 리종만선생이 절대로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도록 동무들이 그 선생을 잘 돌봐주라고 신신당부하시였고 또 어느해 봄에는 일군들로부터 그의 건강상태를 알아보시고 리종만선생이 잘 지내고있다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기도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처럼 극진한 보살피심과 사랑속에 그는 잃어버린것으로 치부하던 딸과도 상봉하게 되였으며 귀여운 손자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90살이 넘도록 행복속에 여생을 보낼수 있었다.

1977년 1월 인생말년을 행복하게 지내던 리종만선생이 92살에 로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였다.

이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못내 애석해하시며 그의 장례를 잘해주어야 하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에서 사업하고있는 책임일군을 부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을 자리에 앉히시고 리종만선생이 어제 사망하였다고, 그래서 동무를 오라고 하였다고 하시며 리종만선생은 참 좋은분이였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는 애국적지조가 매우 높았다고, 해방전에 리종만선생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있는 큰 기업가였으나 일본놈들과는 담을 쌓고있었으며 민족적량심과 지조를 지켜왔다고, 해방직후에도 남조선에서 외세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

렬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헌신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지하자원개발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민족자본가였던 리종만선생을 잊지 못하시며 높이 평가해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의 가슴에는 세찬 감동의 파도가 일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리종만선생이 그렇게도 념원하던 조국통일의 그날을 보지 못하고 간것이 가슴아픕니다.

리종만선생의 장례를 잘해줍시다. 나는 가지 못하지만 내대신 동무가 가서 유가족들에게 나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여주시오. 그리고 나의 명의로 된 화환도 보내고 신문과 방송에 부고도 내도록 합시다. 리종만선생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정무원에서 맡아하도록 하고 모든 장례비용은 국가비용으로 합시다.》

그 일군으로부터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은 유가족들은 끝없는 믿음과 영생하는 삶을 안겨주시는 그 고마움에 오열을 터뜨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한번 믿음을 주시고 인연을 맺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믿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민족애와 인간의리의 최고화신이시였다.

애국렬사들을 번영하는 민족자주의 락원우에 영생의 이름과 함께 높이 세워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대해같은 포옹력과 열화의 사랑, 그것이 그대로 드놀지 않는 고임돌이 되고 어떤 비바람에도 씻기지 않는 불변의 비석이 되고 비문이 되여 세워진 신미리의 애국렬사릉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일찌기 망국의 그 세월 수난의 풍운속에 휘말려 곡절많은 생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애국적량심을 저버리지 않았던 민족자본가 리종만선생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되여있다.

1990년 8월 만수대의사당에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조국통일상을 제정하여 통일애국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리종만선생의 민족적량심과 애국적지조를 귀중히 여기시여 그를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조국통일의 한길에 값높이 내세워주시였으며 그에게도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해주시였다.

조국통일상에는 통일애국인사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공로를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이 높이 평가해주시며 그들의 위훈과 삶을 영원히 빛내여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 다심한 사랑이 깃들어있다.

리종만선생이 세상을 떠난지도 어언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가족들에게 끝없는 믿음과 사랑을 거듭거듭 베풀어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77년 3월 해외에서 살고있는 리종만선생의 딸이 조국을 방문하여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비행기표도 마련해주도록 하시였을뿐만아니라 이 기간에 공화국의 여러곳에 대한 견학도 할수 있도록 크나큰 은정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 은정에 보답하기 위해 카나다에서 살고있던 리종만선생의 딸은 해외에서 통일애국운동에 헌신하였다.

그러다가 1995년 8월 팔순을 바라다보는 백발의 나이에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또다시 조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행사를 성과적으로 마치고 동생과 함께 애국렬사릉에 있는 아버지묘소를 찾았다.

애국애족의 걸출한 위인들의 품에 안겨 만사람이 부럽도록 값높은 영생의 삶을 누리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의 자식들은 솟구치는 뜨거움으로 눈굽을 적시였다.

리종만선생의 딸은 조국방문을 끝내고 돌아가 애국렬사릉에서 동생과 함께 찍은 여러장의 사진과 민족통일대축전참가소식을 남조선에 살고있는 오빠에게 편지로 전달하였다.

이 뜻깊은 소식을 받은 오빠는 너무 감개무량하여 북녘가까이에 있는 곳까지 수백여리나 되는 길을 단숨에 달려와 평양하늘을 우러러 허리굽혀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렀다고 한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귀중히 여기며 통일성업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한 사람이라면 출신도 경력도 불문에 붙이시고 영생의 언덕우에 높이 세워주시며 자녀들의 운명도 미래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는 가장 넓으신 도량과 위대한 포용력을 지니신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류영준 편

수난의 심연 ················ 108

구원의 품 ················ 120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없다 ················ 128

경력

- 1890년 11월 24일 평안남도 대동군 대보면에서 출생
- 1920년－1925년 도꾜의학전문학교 고학으로 졸업
- 1927년 근우회 회장으로 활동
- 1945년 서울에서 신민당에 입당
- 1945년－1948년 남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초대위원장
- 1948년 4월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
- 1949년 6월 조국전선결성대회에 참가

  최고인민회의 제1, 2기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 성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 1972년 9월 18일 사망
- 1990년 8월 15일 조국통일상 수상

인생의 열매는 그의 높은 이름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후세에까지 이름을 남기도록 삶을 빛내이는것은 바란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품어주고 보살펴주고 내세워주고 이끌어주는 령도자의 품속에서만 가능한것이다.

류영준선생이 우리곁을 떠난지도 근 반세기세월이 흘렀다.

덧쌓이는 년륜속에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여러번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곡절많은 그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결코 그의 인생이 독특하였거나 그의 삶이 비범했기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뜻은 높았어도 갈길을 몰라 방황과 좌절의 심연속에 빠져있던 그에게 옳바른 삶의 궤도를 정해주고 곡절많은 생이 통일의 길에 뚜렷한 자욱을 남길수 있도록 하여주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때문이였다.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후세들에게 참다운 인생길은 무엇에 의해 정해지는가를 가슴뜨겁게 가르쳐주고있다.

수난의 심연

1890년 11월 평안남도 대동군의 어느 가난한 농가에서 태여난 류영준선생은 열다섯살에 궁성관비로 팔려갔었다.

그가 궁성에 들어갈 당시 일제는 1902년 영일동맹의 형성과 1905년 가쯔라-타프트협정으로 렬강들로부터 조선의 지배를 인정받고 조선봉건왕조를 협박하여 이른바 《을사5조약》이라는것을 날조하였다.

일제에 의한 강압적인 조선침략과 《한일합병》에 항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목숨을 스스로 끊었는가 하면 일본군과 맞서싸운 사람들도 수만명에 달하였다.

마지막숨을 몰아쉬던 조선봉건왕조의 멸망을 눈앞에서 체험하게 된 류영준선생은 얼마 안 있어 궁중에서 나왔으며 1911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베이징에 있는 녀자학교를 졸업하고 1920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갔다.

여기에서 그는 고학으로 도꾜의학전문학교에 다니였다.

남의 집일을 해주면서 고학을 하자니 하루에 한끼정도밖에 먹지 못하고 살았다. 아침과 저녁은 맹물 한식기로 끼니를 에우고 점심은 삯일을 하면서 주인집에서 손님을 치를 때

마다 나머지 음식이 생기면 별식으로 생각하고 먹을 정도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거의 굶다싶이 하며 번 돈으로 공부를 하였다.

생활의 막바지에서도 오직 배워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안타깝게 뛰여다닐 때 함께 고학을 하던 한 남학생을 알게 되였다.

먹지 못해 허약해진 몸임에도 그 청년은 먹을것이 조금만 생겨도 먼길을 달려와 그의 손에 쥐여주군 하였다. 그때마다 청년은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도산 안창호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자들이 상해에 림시정부를 세우고 투쟁하고있으며 청사도 없어 자그마한 남의 집 웃방에 자리잡았지만 상해림시정부로는 나라를 찾겠다는 열망을 안고 망명객들이 모여들고있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당시로 말하면 일제의 가혹한 탄압만행으로 뜻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는 어쩌지 못하고 해외로 망명하여 이런저런 반일단체들을 만들어내고있던 때였다. 이런 흐름을 타고 1919년 상해에 있는 망명자들을 위주로 하여 상해림시정부가 세워졌던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 류영준선생을 하나라도 더 위해주고싶어하던 그처럼 정차고 열정적인 청년은 끝내 허약으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말았다.

상실의 슬픔에 몸부림치던 류영준선생은 그의 뜻을 이어

독립운동에 나설 결심을 하게 되였던것이다.

항일운동이 고조되는 속에 녀성운동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있었다.

류영준선생은 당시 미국에서 조직되여 중국대륙은 물론 만주, 일본, 로씨야 등지로 널리 퍼진 진리를 알면 행동해야 한다는 안창호선생의 흥사단정신에 끌려들어 민족주의수양단체로 결성된 흥사단에 입단하였으며 1920년 1월에는 흥학회 회장으로까지 활동하면서 일제경찰의 요시찰인물로 지목되게 되였다.

도꾜의학전문학교를 마친 뒤 조국에 귀국한 류영준선생은 1927년 5월 당시 미국에서 귀국한 그리스도교계녀성운동의 핵심인물들과 함께 근우회를 뭇고 활동하기도 하였다.

일제에 의하여 근우회가 해산된 후 국내의 독립운동이 저조기에 들어가자 류영준선생은 마흔이 다된 나이에 결혼을 하여 딸 하나를 보았다.

그러나 불온사상을 가졌다는 리유로 리혼을 당한 뒤에도,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다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반일의 지조는 버리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때 보천보를 다녀온 려운형선생으로부터 **김일성**장군님께서 보천보에 진출하시여 일제놈들을 쳐부시고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였다.

일제의 살벌한 탄압을 피해 결혼을 하고 가정에 들어앉

왔던 그는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조선의 넋은 살아있다, 조선의 정신도 살아있다, **김일성**장군님만 믿으면 조선은 꼭 해방된다며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던 려운형선생의 이야기에 힘을 얻고 다시 류영준산부인과병원을 개설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김일성**장군님께서 일제놈들을 족치고계시니 꼭 조국이 해방될 날이 올것이라며 살아서 그날을 봐야 한다고 신심을 안겨주군 하였던것이다.

최하층에서 일제에게 무참히 유린당한 하층계급녀성들을 동정하며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투쟁에 나섰다가 부상당한 사람들을 성의껏 치료해주었다.

일찌기 동우회, 근우회를 이끈 인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후덕한 시골할머니같은 인상을 주는 류영준선생이였다.

해방직후에는 조국을 해방시켜주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북반부에 인민을 위한 새 정치를 펼치신다는 소식에 접하면서 그곳으로 더더욱 끌리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있었다.

인간은 한생에 때로 뜻밖의 조난을 당하는 때가 있다. 믿고 기대하던것이 한순간에 꺼지고 온몸과 마음이 절망의 심연속에 깊이 잠겨드는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는것이다.

류영준선생은 해방직후 서울에서 바로 이러한 정신적고통을 체험하였다.

한때 민족주의운동을 한다던 적지 않은 인물들이 남조선을 강점한 외세를 두고 《해방군》, 《원조자》가 왔다고 떠받들

며 하루아침에 돌변한데서 받는 좌절과 실망의 아픔이였다.

1945년 가을 어느날 류영준선생은 《한국민주당》 당수였던 김성수의 청을 받고 그를 찾아갔다.

그는 류영준선생에게 자기들이 《한국민주당》을 결성하였는데 이 계렬의 부녀단체를 하나 만들자고 하니 책임지고 이 일을 맡아달라고 하는것이였다.

류영준선생은 《한국민주당》이라는게 대체 어떤 당인가고 물었다.

그러자 김성수는 《한국민주당》은 리승만을 추대하고 미군정을 지지하며 공산당이나 려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같은것을 반대하여 싸우는 당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말에 워낙 대바르고 성미가 강직한 류영준선생은 이렇게 내쏘았다.

《아니, 그래 날더러 미국을 지지하는 부녀단체를 만들라는건가요?

당신들은 말끝마다 녀성의 경제적독립을 말하는데 방직과 양잠을 해가지고 미국에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겠다고 하겠지요.

농촌에 가보면 태반의 녀성이 앞을 가릴 치마 하나 없는데 우리가 짠 베를 미국에 바쳐서 우리가 잘살겠다고?!

그건 노예근성이예요.

난 죽어도 절대로 그런 놀음판에는 끼여들지 않겠어요.》

그는 결연히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다.

김성수일파는 저들의 반동부녀단체를 뭇는데 과거 민족주의독립운동에 참여한 류영준선생을 끌어들이려 했다가 면박을 당한것이였다.

그들은 그의 경력만 보았을뿐 침략적인 외세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류영준선생의 깨끗한 민족적량심, 애국의 량심은 보지 못했던것이다.

김성수는 일본류학때부터 민족주의자로 둔갑하여 《타협적통합주의》를 내들고 일제에 붙어 한성에서 방직공장을 경영하면서 총독부의 식민지지배정책에 협조하였다. 독립운동을 한답시고 돌아치다가 미국에서 리승만을 만나서는 그의 외세의존정책에 동조하였을뿐아니라 일제대신 미국이 기여들자 때를 만난듯이 리승만을 등에 업고 자기의 야심을 실현하려 하였다. 바로 그 연장선에 류영준선생을 끌어들이려 하였던것이다.

그날 류영준선생은 분통하기 이를데없었다.

인간이 어쩌면 저럴수가 있는가?

일제대신 기여든 외세가 그렇게도 좋아서 할애비처럼 떠받들고있으니 그렇다면 지난날에 부르짖던 독립은 무엇을 위한 독립이였단 말인가?

나라를 위한것이였는가?

일신의 영달을 위한것이였는가?

일찍부터 반일독립운동에 참가하여 억압받고 멸시받는 이

나라 녀성들의 불우한 처지를 개선해보려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류영준선생으로서는 한때나마 민족주의를 표방했던자들의 반역과 배신행위에 분격을 금할수가 없었다.

녀성의 몸으로 천대받는 녀성들의 권리를 위해 분투해온 류영준선생이였기에 민족반역자들의 사대행위에 그토록 분격을 누를길 없어하였으며 사대와 매국이 판을 치는 남조선땅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하는 자각으로 번민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그자들의 청을 뿌리친 후 여러날을 두고 투쟁의 길을 모색하던 끝에 그는 혜화동골목에 있는 공산당사람들과 손을 잡을 결심을 가지게 되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에 대하여 상해에서부터 이미 쓰디쓴 환멸을 느꼈던 그로서는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조선에서 외세반대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구호로 내든것은 공산당이라고 하니 그들과라도 손을 잡고싶어서였다.

불의의 세상을 뒤집어엎을 애국의 길에 자신을 바치고싶어 찾아간 걸음이였다.

그런데 당시 남조선에서 공산당의 거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를 보고 공산당에는 받아주기 어려우니 신민당에나 가보라고 하면서 배척하는것이였다.

묻지 않아도 배척하는 리유를 알수 있었다.

그가 그리스도교를 믿고있으며 과거 민족주의운동에 참여

한때문임이 분명하였다.

배척받은 울분을 삭일수 없어 거리를 방황하던 류영준선생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선 곳에서 해방후 조선이 어느 길로 나가야 할것인가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려운형선생의 연설을 듣게 되였다.

그의 연설을 듣고보니 그와 상담해보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려운형선생과는 이미전부터 깊은 연고관계가 있었던것이다.

1905년 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했을 때 궁중에 있으면서 국채보상운동을 위한 선전을 벌리던 그에 대하여 알게 되였고 한성에 나와 학교를 다닐 때 얼마간 함께 공부한적도 있는데다가 상해림시정부에서 아저씨인 류동렬과도 함께 일하다나니 언니네 집에 찾아갈적마다 아저씨를 찾아오는 그를 비롯한 독립인사들의 일손도 도와주군 하였던것이다.

해방된 조국의 가는 곳마다에서 건국사업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는 려운형선생을 보니 그를 찾아가면 꼭 무슨 방도가 생길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새로운 희망을 안고 그를 찾아갔다.

해방된 조국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조언을 줄것을 요구하는 그에게 려운형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 당신은 의학전문기술도 있는데 왜 기술을 활용하려 하지 않고 녀성의 몸으로 사회운동에 나서려고 하오?》

《전 오늘까지 나름대로 안깐힘을 다해 독립운동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족주의자라고 공산당한테 따돌림을 받고 나니 분통이 터져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그자들이 보란듯이 더 기를 쓰고 운동을 하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길에는 주의가 상관없다는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싶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운동에 뛰여들지 말고 꼭 민족주의운동을 하시오. 그 길만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보오.》

그때만 해도 려운형선생이 평양에 다녀오기 전이여서 아직 진정한 공산주의에 대한 정확한 표상이 부족하였던것이다.

류영준선생은 오랜 고민끝에 신민당에 입당하였다.

구성이 주로 지식인들로 되여있을뿐 강령은 역시 자주였던것이다. 그는 열성을 내여 일하였다.

하지만 신민당도 3당합동문제가 제기되자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게 되였다.

3당합동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인 1946년 어느날 서울병원강당에서는 조선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하는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중 어떤자가 주석단에 뛰여올라 조선은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리승만《정권》을 따라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에 격분한 류영준선생은 그자가 내려서기 바쁘게 주석단에 올라가 주먹으로 연탁을 치며 조선이 가야 할 길은 안팎

의 분렬주의세력들이 떠드는 외세의존의 길이 아니라 공산당이 내놓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길이고 온 민족이 따라야 할분은 **김일성**장군님뿐이시라고 열변을 토하였다. 그에 관중들은 우렁찬 박수로 화답하였다.

오래전부터 싹튼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외세에 빌붙어 기생하려는 김성수의 제의도 단호히 뿌리치게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선 연단에 올라 온 민족이 따라야 할분은 **김일성**장군님 한분뿐이시라는것을 소리높이 웨칠수 있게 하였던것이다.

이 일로 하여 유명해진 류영준선생은 1946년 후반기에 남조선에서 민족민주주의전선 의장단의 한 성원으로, 전국부녀총동맹 위원장으로 사업하게 되였다.

그 나날 류영준선생은 당시 임영신과 박인덕을 비롯한 현 미군정의 관리들이 조선녀성들을 대표하여 유엔총회와 만국그리스도교대회에서 대표행세를 하고있는것을 보며 격분을 금치 못하여 전국부녀총동맹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성명에서 두 녀성의 자칭 대표행위를 다음과 같이 비난하였다.

…리승만개인사절인 임영신이 반소언구를 농하여(맞소송을 제기하는 글을 진하게 써서) 비난을 받고있으니 이는 확실히 추태이며 그 망동은 용서할수 없다.

또 박인덕은 조선대표라고 자칭하여 만국부녀대회에 참가하

고있으나 그는 과거 일제시대 일본의 《황도주의》를 고취한 록기련맹의 간부이고 현 미군정의 관리이니 그는 절대 조선대표가 아니다.

이들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어떠한 희망을 갖고있는듯 하나 이것은 일종의 환상적미몽이다. …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류영준선생은 남조선민주녀성동맹이 결성될 때 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사실 류영준선생은 남조선민주녀성동맹 위원장으로 선거되여 활동하면서 좌익계인사들과 자주 접촉하게 되였고 **김일성**장군님께서 자기를 믿어주시고 애국사업에 헌신하고있는것을 높이 평가해주고계신다는 말을 그들에게서 전해들으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어하였다.

녀성의 몸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해 애쓰는 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려운형이나 김구를 비롯한 남조선인사들이 평양에 찾아올 때마다 류영준선생에 대하여 자상히 알아보시였던것이다.

처녀의 몸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한 길에 나선 때로부터 옳바른 길을 찾지 못하여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곡절많은 과거와 그의 가정래력, 그의 열렬한 투쟁열과 민족의 태양을 따르는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마음안고 녀맹사업에 헌신하고있다는것 등…

그리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류영준선생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시하시며 높은 평가의 교시를 주군 하시였던것이다.

크나큰 믿음에 감복한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녀맹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당시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북조선에서는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천대와 멸시속에서 살아오던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하는 문제를 민주주의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였으며 그것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되고있었다.

그리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하던 녀성들의 처지는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되였다.

북조선의 녀성들이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되여 새 조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는 현실에서 힘과 용기를 얻은 그는 녀맹대렬을 각계각층의 애국적녀성들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북조선에서 실시한것과 같은 토지개혁을 남조선에서도 실시할것을 요구하고 축첩제도, 기생제도, 인신매매제도를 반대하며 남녀평등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다.

하지만 남조선에서 류영준선생의 활동은 걸음마다 난관에 부딪쳤다.

그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외세와 민족반역자들은 탄압의 촉수를 뻗치여 군중대회에서 **김일성**장군님을 지지찬양하는 연설을 했다고 그를 련행하여 체포구금하였다.

그를 모해하려는 나쁜 놈들의 모략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우심해졌다.

불순한 세력들은 류영준선생과 같은 경력이 복잡한 녀자가 어떻게 녀맹위원장사업을 할수 있는가고 여론을 퍼뜨리면서 그가 차지한 공직에서 스스로 사임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었던것이다.

류영준선생은 억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 남조선땅에서 누구를 믿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

더없이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에 싸여 류영준선생은 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구원의 품

류영준선생은 안타까운 이 심정을 하소할 인물을 남조선에서는 찾을수가 없었다.

그는 생각하였다.

이 세상에 자기를 헤아려주실분은 오직 보잘것없는 자신을 그토록 믿어주시는 **김일성**장군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한 그는 이전부터 막역한 사이인 북반부에 있는 안창호선생의 누이동생 안신호를 통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 자기의 심적고충을 하소연하는 편지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김정숙녀사께 편지를 올리기로 마음먹은것은 평양을 다녀온 려운형선생으로부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많이 전해들었기때문이였다.

항일의 그 나날 **김일성**장군님을 옹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성벽이 되시여 장군님의 안녕을 지켜드린 이야기며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기 위해 마음쓰시고 더우기 식민지노예의 질곡에서 녀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등 녀사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이를 뵙고 가르치심을 받고싶은 생각이 늘 류영준선생의 마음 한구석에 소중히 간직되여있었던것이다.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아무래도 녀맹위원장의 공직을 사임해야 할것 같다고 썼다.

그는 이런 사연의 편지를 안신호앞으로도 보내여 김정숙녀사께 자기의 편지를 꼭 올려달라고 당부하였다.

그가 이런 부탁을 한데는 그럴만한 연고가 있었다.

원래 그는 안창호와도 친분이 있었다.

도꾜에서 의학전문학교에 다니면서 흥사단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조직자인 안창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였고 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그의 인품에 끌려들게 되였던것이다.

자연히 안창호의 녀동생 안신호와도 안면을 익히게 되였다.

더우기는 안창호가 사망하였을 때 고인이 된 오빠의 수의를 해결받으려고 안신호가 찾아간것이 바로 류영준선생이였다.

그때 자기를 찾아온 안신호에게 류영준선생은 애통한 눈물을 흘리며 수의를 지성껏 마련해주었던것이다.

류영준선생은 편지마감에다 해주에 믿을수 있는 사람을 보낼테니 결과를 알려달라는것을 안신호에게 부탁하고 북으로 가는 인편에 편지를 보냈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북으로부터 그에게 기별이 왔는데 아무날에 해주로 류영준본인이 꼭 와달라는것이였다.

그날 38°선을 넘어 해주로 온 류영준선생은 자기를 마중하는 녀성이 안신호라는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한동안 아무말없이 그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윽고 안신호로부터 자기가 직접 마중나오게 된 사연을 들은 류영준선생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안신호가 가져다드린 류영준선생의 편지를 읽어보신 김정숙녀사께서 나쁜 놈들의 배타주의적책동에 격분을 표시하시고 그에 대한 믿음과 기대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잘 알려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 중요한 사업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는것이 아닌가.

그러시고 자신께서는 류영준선생에게 보내는 회답편지를 길

게 쓰지 않을터이니 안선생이 체험한 사실을 이야기해주면서 자신의 의도를 알려주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였다는것이다.

안신호는 김정숙녀사께서 그에게 보내시는 편지를 꺼내주었다.

편지에는 류영준선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남조선녀맹이 창립되고 첫걸음을 뗀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변함이 없다, 선생을 고민하게 한 장본인이 다름아닌 바로 종파분자들이라는것이 이미 밝혀졌다, 장군님께서 종파분자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였으니 선생은 조금도 념려할것이 없다, 자세한 이야기는 안신호선생한테서 들어주기 바란다, 서울의 여름은 덥다고들 하는데 나이많은 몸 부디 조심하여 건강히 지내기를 바란다는 가슴뜨거운 내용이 담겨져있었다.

류영준선생은 편지를 읽고 무어라 할 말을 찾을수가 없었다.

격동을 금치 못하는 그를 보며 안신호는 말하였다.

《류선생, 김정숙녀사께서 저를 만나주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남조선녀맹위원장을 아무 근거없이 바꾸려는것은 틀림없이 나쁜 놈들이 꾸미고있는 작간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녀성운동과 녀맹조직건설에 관한 **김일성**장군님의 사상과 어긋나게 해방전의 이른바 <프로레타리아녀성운동자>들을 위주로 하여 남조선민주녀성동맹의 간부들을 꾸리고 몇

몇 녀성<공산주의자>들만으로 녀맹조직대렬을 꾸리려는 집요한 시도의 연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초기에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이 류선생을 회유하여 저들의 녀성단체에 끌어넣으려고 책동하였는데 선생을 직무에서 떼는것은 반동진영에 선생을 넘겨주는것이나 다름없는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였습니다.》

류영준선생은 오열을 터뜨리며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아는것도 능력도 없고 나라위해 한 일도 없는 자기에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이처럼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니 그 고마움과 은혜로움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그저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이 가슴가득히 차오를뿐이였다.

이날 류영준선생은 민족주의거두의 동생이며 독실한 그리스도교신자인 안신호가 공화국에서 높은 정치적신임을 받아 녀맹간부로 활동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데 대하여 자상하게 들을수 있었다.

특히 류영준선생에게 커다란 감명을 준것은 안신호선생이 어버이수령님의 뜻밖의 접견을 받은 1946년 2월에 있은 일이였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안신호는 우리 인민정권이 섰구나 하

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선다고, 평범한 종교인인 자신을 국사를 론하는 회의에 참가시켜주신 장군님께 무슨 말로 감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아뢰였다.

그러는 그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녀성들과 종교인들을 건국사업에 불러일으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우리는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느님》을 믿을바에야 조선의 《하느님》을 믿어야지 무엇때문에 먼 미국의 《하느님》을 믿겠는가고 하시였다.

참으로 크나큰 뜻으로 가슴을 울려주는 의미깊은 말씀이였다.

《하느님》을 믿을바에는 조선의 《하느님》을 믿으라!

신앙생활에서 고질화되여온 숭미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버리고 민족의 주체성을 투철하게 살려나가야 한다는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이 담긴 이 말씀.

신앙보다 피줄을 같이하는 동족을 더 중시하라는 말도 있거니와 민족을 떠난 종교인이란 있을수 없고 나라가 있고서야 참다운 신앙생활도 있다는것을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에 통절히 체험한 그였기에 그 말씀의 마디마디가 기념비의 글발처럼 심장에 새겨지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고 안신호선생은 조선의 《하느님》을 믿는 애국적교인으로 참답게 살리라 속다짐하였다고 한다.

1946년 8월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여 로동당이 창립될

때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아무리 두 당이 합당한다 해도 안신호가 그리스도교신자인데 어떻게 당원으로 될수 있겠는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였었다. 그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를 적극 지지하고 계속 따라오는 안신호를 무엇때문에 떼여버리겠는가, 그도 로동당생활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흐지부지하는자들에게 남포시공산당이 보증한다고 말해주어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는것이다. 그 말에 류영준선생은 더 큰 감명을 받았다.

안신호와 회포를 나누면서 그에게 돌려진 믿음과 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식전기도까지 드리는것을 본 류영준선생은 놀랍기도 하였지만 그보다 반가움이 더 컸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신자라는것으로 하여 배척당하던 자기의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안신호의 생활경로가 부러웠고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숙녀사의 품속에서만 그리스도교신자인 자기의 삶도 꽃펴날수 있음을 절감했기때문이였다.

그리스도교신자인 안신호가 신임받는 일군으로 사회정치활동을 하고있는것이 자기 일처럼 기뻤고 과연 그럴가 하고 생각했던 마음 한구석의 의혹마저 씻은듯이 가셔지는것이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종교인들과 민족주의자들을 무턱대고 배척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해왔던 그였다.

안신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류영준선생은 지금까지 공산주의

라면 프로레타리아만을 위하고 종교인도, 민족주의자도 반대하는 협애한 사상인줄 알았는데 장군님의 공산주의는 온 민족을 위하는 특유한 공산주의라고 생각되였다.

안신호의 모습을 통하여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종교인이건 민족주의자이건 애국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한품에 안아 참된 길로 이끌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그이께서 자기에게 안겨주신 믿음도 바로 여기로부터 우러나오는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가슴속깊이 자리잡게 되였다.

오직 장군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자!

류영준선생은 일찌기 알지 못한 새로운 정신적앙양을 느꼈다.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없다

1946년 11월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이 합당하여 남조선로동당이 창건되였고 전국부녀총동맹을 확대개편한 남조선민주녀성동맹이 결성되면서 류영준선생은 위원장이 되였다.

서울에 돌아간 류영준선생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녀사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어버이수령님의 뜻대로만 일하였다.

녀맹조직을 꾸려도 각계각층의 광범한 민주녀성들로 꾸리고 투쟁을 벌려도 외세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통일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이것은 남조선녀성들을 식민지파쑈통치에 순종케 하며 국토를 량단하고 《단독정부》를 세우려고 하던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1947년 8월 놈들은 이른바 《8.15폭동음모사건》으로 애국적인 녀성들과 함께 류영준위원장을 체포하였다.

놈들은 류영준위원장을 잡아다놓고 있지도 않은 무슨 《반란음모》를 꾸몄다는 날조된 죄명을 씌워 가혹한 고문을 가하였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우리 녀성들이 민족의 령도자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따른것이 어찌 죄로 되느냐, 잡아가두려면 녀맹위원장인 나만을 가둬넣고 다른 동무들은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다간 천벌을 받을줄 알라고 과감히 항거하며 애국의 지조와 절개를 꿋꿋이 지켜 싸웠다.

그는 몸서리치는 폭압의 지옥에서 모진 고통을 끝내 이겨내고야말았다.

1948년 3월말부터 제주도인민들은 한나산을 중심으로 하여 산악지대에 들어가 근거지를 꾸리고 4월 3일 새벽 무장항쟁으로 넘어갔다.

《단선단정결사반대》,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은 철거하라》, 《인민의 원쑤 반동무리들을 처단하라》, 《주권은 인민위원회로》 등의 구호를 웨치며 수십만명의 봉기군중들은 적극적인 투쟁으로 제주도에서의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완전히 파탄시켰으며 적들의 통치질서를 마비상태에 빠져들게 하였다.

제주도인민들의 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한 적들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였다.

제주도4.3인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한 《토벌대》파견이 결정되였을 때 류영준선생은 단 두문장으로 된 짧은 성명을 내기도 하였다.

《우리는 동족상잔의 죄악을 절대로 용인할수 없다.

우리는 전 녀성의 이름으로 이를 단연 배격하여 제주도의 <토벌>을 즉시 중지할것을 강경히 요구하며 우리 인민들은 외군을 철퇴케 하여 조국의 통일독립과 자유를 쟁취함으로써 멸족적동족상잔을 막아내야 할것이다.》

비록 짧은 성명이였지만 제주도의 《토벌》을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남조선녀성들의 피타는 절규를 진하게 느낄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천만뜻밖에도 크나큰 영광에 접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도록 그에게도 초대장을 보내주신것이였다.

그는 꿈속에서만 그려보던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녀사를 만나뵈올수 있게 되였다는 환희와 함께 조국의 통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력사적인 회의에 참가하게 된다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초대장을 받아안자마자 남먼저 북행길을 서둘렀다.

그는 조국앞에 닥쳐온 분렬의 난국을 타개할 민족의 대회합이 열리고 그리운 장군님을 만나뵈옵게 될 북행길에 올라 며칠후에 평양에 도착하였다.

1948년 4월 력사적인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들의 대표자련석회의가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남북조선의 56개 정당, 사

회단체 대표 695명이 참가하였다. 련석회의에는 공산주의자들을 완강히 반대하던 《한국독립당》, 민족자주련맹 등 일부 우익정당대표들까지 참가하였다.

김구와 김규식도 《민족의 서광이며 성공을 확신한다.》고 담화를 발표하고 회의에 참가하였다.

평양에 들어선 순간부터 **김일성**장군님께서 류영준선생에게 베푸신 환대와 사랑은 실로 극진한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를 남북련석회의 주석단에 앉도록 하여주신 사실 하나만을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었다.

회의장에 들어선 그가 주석단성원들을 부를 때 자기 이름도 있는것을 보고 류영준선생은 놀랍기 그지없었다.

남의 집 문턱에 살점같은 아이를 내려놓고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시련의 길을 헤쳐온 항일의 녀투사들을 비롯하여 조국의 해방을 위해 헌신한 녀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한 일도 별로 없는 자기를 대회주석단에까지 내세워주시니 너무도 송구스럽기만 하였다.

주석단을 둘러보니 주석단성원들가운데 녀자는 자기 한명뿐이였다.

이에 대하여 생전에 그는 늘 감회깊이 회고했다.

《결코 그때 내가 잘나서 영광스러운 주석단성원으로 된것이 아니다.

남조선녀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메고나갈 믿음

직한 역군으로 키우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외세와 반동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 모든 녀성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의 표시이다.》라고…

련석회의에서는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적력량이 단합하여 외세의 침략기도를 파탄시키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원칙에 의한 통일정부수립을 일치하게 지지찬동하였다.

심지어 남조선의 우익정당지도자들까지도 북반부에서 실시한 제반 민주개혁을 지지하면서 그것이 조국통일의 기초로 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으며 외세와 그 주구들의 단선, 《단정》책동을 파탄시키고 민주주의적통일정부수립을 위하여 함께 나설것을 결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외세와 그 주구들의 단선음모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일적으로 조직함과 함께 도, 시, 군, 면, 농촌, 공장, 제조소, 상업기관, 사무기관 등 모든 곳에 각 정당, 사회단체련합으로 《단선단정》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할것을 결정하였으며 각당, 각파, 각계각층 전체 인민들을 투쟁에 불러일으키는 격문을 채택하였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민족분렬의 위기가 격화되였던 엄중한 시기에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적력량을 단합하여 외세의 단선, 《단정》음모를 분쇄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

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력사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가 끝난지 얼마 안되였던 1948년 4월 2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영준위원장과 리경희, 홍종희, 김남숙을 비롯한 남조선민주녀성동맹 일군들을 몸소 만나주시였다.

남북련석회의가 열리는 기간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뵙고싶은 마음이 간절하던 남녘의 녀성일군들은 바라고바라던 소원이 성취된 기쁨으로 하여 설레이는 가슴을 진정할길 없었다.

이날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동안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북반부도처에서 뜨거운 동포애의 정이 넘치는 환대를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며칠전부터 동무들을 만나보려고 하였으나 바쁜 일이 제기되여 오늘에야 시간을 내게 되였다고, 량해해주기 바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남조선에서 외세와 반동파들의 파쑈적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녀성들의 사회적해방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여온 그들에게 사의를 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녀성들의 의로운 애국투

쟁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면서 이들이 미제와 리승만도당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한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치하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들으며 감동을 금할수 없었던 류영준선생은 일어나서 이렇게 정중히 말씀드렸다.

《장군님, 우리는 이번에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고 북반부의 여러곳을 참관하는 과정에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능히 민족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고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말을 긍정해주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민주녀성동맹앞에는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선단정>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민주주의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로 광범한 녀성들을 조직동원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남조선녀성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하시는 크나큰 기대와 은정이 담겨져있는 교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남조선민주녀성동맹에서는 당면하여 광범한 녀성들속에서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에서 토의결정된 내용과 그 의의에 대하여 소개선전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번 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조선정치정세에 대

한 결정서와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격문 그리고 《유엔림시조선위원단》과 쏘미 량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요청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과 의사를 반영한 자주적인 통일구국강령인것만큼 이에 대한 해설선전을 잘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맹에서는 미제와 반동들의 《단선단정》조작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이번에 조직된 《단선단정》반대투쟁위원회의 지도밑에 여러 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들과 련계를 가지고 공장과 광산, 도시와 농촌, 어촌, 학교를 비롯하여 녀성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힘있게 전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투쟁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다고, 군중집회와 시위도 할수 있고 태업과 파업 같은것도 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리고 남조선녀맹조직들이 미제와 반동들의 《단선단정》조작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는데서 중간 및 우익녀성단체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은 중간 및 우익녀성단체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 조직들과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한 자주녀성동맹을 비롯하여 경향성이 좋은 중간 및 우익녀성단체들과 공동행동을 취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그리하여 남조선녀성들

이 단합된 력량으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선단정》조작책동을 분쇄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받아안은 이들은 앞이 확 열리고 뭐든지 못해낼 일이 없을것 같았다.

그들은 이번에 북에 와보고 통일된 조선은 북반부와 같은 민주주의사회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확신하였다고 절절하게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의견을 긍정해주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동맹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광범한 녀성들을 굳게 결속시키는것은 남조선민주녀성동맹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라고 하시면서 근로녀성들속에 들어가 녀맹조직을 복구정비하고 거기에 광범한 근로녀성들을 망라시킬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실 남조선민주녀성동맹의 사업에서는 지난 기간 동맹장성사업을 경쟁적으로, 모집식으로 하다보니 그 후과가 엄중하게 나타나고있었다.

이것은 녀맹조직건설원칙에 어긋나는 매우 잘못된것이였다.

1947년에 있은 검거선풍때 서울에서만도 200여명의 애국적녀성들이 체포되는 가슴아픈 일을 당하게 된것 역시 녀맹조직들에서 원쑤들의 탄압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바로세우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녀맹조직들에서는 여기에서 심

각한 교훈을 찾고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녀맹조직을 보존하고 녀맹사업을 잘해나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하며 정치실무수준을 부단히 높여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할뿐아니라 능숙한 사업방법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데 대해서도 일일이 강조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류영준위원장을 비롯한 남조선민주녀성동맹 일군들과 이날에 하신 담화는 남조선녀성운동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명시한 강령적인 지침이였다.

류영준위원장을 비롯한 남조선민주녀성동맹의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일을 잘해나갈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러 녀성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곁을 떠날 시간이 되였다. 한없이 자애로운 그이의 품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심정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들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려주시며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원쑤들의 발악이 더욱 심해질것이 예견되므로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고 신변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련석회의에 뒤이어 1948년 4월 30일에 소집된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에서는 외국군대의 철거와 통일적민주주의정부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남조선단독선거의 결과에 수립될 《단

독정부》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과 함께 좌익, 중간, 우익 할것없이 민족적량심을 가진 모든 애국적력량, 사회단체들이 한결같이 망국적단독선거를 거부배격하여나섰다.

회의가 끝난 후 남조선에 나간 류영준선생은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섰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곳마다에서 그는 북조선의 현실을 알려주면서 전민족이 따르고 받들어야 할분은 **김일성**장군님뿐이시라고 연설하군 하였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탄압책동이 더욱더 우심해질 때에도 그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어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었다.

망국적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거족적투쟁은 어버이수령님의 주위에 결속된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의 단결된 위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시위하였다.

그는 남조선민주녀성동맹 위원장으로 활약하던 시기에 조국해방 3돐을 맞으며 기념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남조선 800만 녀성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는 남조선민주녀성동맹은 8.15 제3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전 녀성이 총궐기하여 조선최고인민회의선거라는 이 성스러운 민족적위업

을 성공적으로 완수할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조선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외국인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세워지며 우리 인민을 대표하는 통일중앙정부를 조직하여 미군을 몰아내며 우리의 인민과 녀성리익을 보호해야 할것입니다.

미제와 국내반역도당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러한 합법적인 인민정권의 창설을 위하여 부엌에서, 공장에서, 직장에서, 농촌에서 전 녀성은 더욱 용감하게 총궐기하자.

승리의 날은 멀지 않았으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야말것이다.》

1949년 6월 조국전선결성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류영준선생이 또다시 평양으로 왔다.

그때 남조선에서 온 대표들을 서해바다가 풍치좋은 우산장휴양소에서 쉬도록 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곳에서 휴식하고있던 그를 몸소 만나주시고 따뜻한 은정을 거듭 안겨주시였으며 건강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대해같은 은정을 거듭거듭 받아안을수록 이 은혜로운 사랑에 감격해마지 않던 그는 남조선에서 온 다른 대표들이 모두 떠나갈 때 공화국에 그냥 남기로 하였다.

그는 공화국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되였으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원회 의장단 성원으로,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후에 나쁜 놈들이 류영준선생을 걸고들려 할 때에도 그 부당한 모해책동을 짓부시고 그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녀성단체들의 국제회합이 있을 때에도 여러차례나 그를 부르시여 조선녀성대표로 외국에 가서 대외활동을 잘하도록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해외에 파견해주기도 하시였다.

로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책을 맡겨주시고 이끌어주시였으며 지방출장중에 고혈압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친히 긴급의료대책을 취해주시고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였다.

80고령의 나이에 년로보장으로 넘어가게 되자 류영준선생은 공로자이므로 전과 꼭같은 대우를 해주게 하시고 여생을 편히 지내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은 애국의 량심을 지닌탓으로 오랜 세월 수난에 찬 길을 걸어오다가 광명한 세상에 안긴 녀성을 어떻게 하나 더 기쁘고 행복하게 하여주고 사람들앞에 떳떳이 내세워주고 빛이 나게 살게 하여주신 한없이 고결하고 숭고한 사랑이였다.

하기에 류영준선생은 1972년 9월 로환으로 운명하기 전에

조카와 그 아들딸들을 불러놓고 한생을 총화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여든두살이면 오래 산셈이다.

쉰여덟살까지는 일제와 미제의 통치아래서 살았고 그후 스물네해동안을 수령님의 품속에서 살았다.

내 일생에 동양삼국을 넘나들며 이름있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독립운동자, 박사, 영웅이라고 하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보았지만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이 세상 천하에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낸분이시다.

수령님께서 지지리 고생만 하던 나에게 믿음과 사랑과 영예를 안겨주신 그 은혜를 나는 이제 죽어 백골이 진토되여도 잊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잊지 말고 수령님께 꼭 충성을 다하거라.》

류영준선생은 이렇게 마지막숨을 거두었다.

암흑과 광명, 불행과 행복의 량극단을 걸어온 한생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가 사망하였다는 비보를 받으시고 몹시 애석해하시며 신문, 방송, 라지오를 통해 그의 부고를 널리 알리며 장례를 내각에서 잘 치르어주도록 할데 대해서와 조국전선중앙위원회에서 사회를 하고 허정숙서기국장이 직접 장례식에 갔다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세심한 관심을 돌

려주시였다.

묘비앞에서 유가족들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끝없이 이어지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을 가슴뜨겁게 더듬었다.

이뿐이 아니다.

그가 사망한 때로부터 14년이 지난 1986년 추석날이였다.

이날 한 일군에게 전화를 거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전날 애국렬사릉 준공식에 최덕신선생이 참가하여 매우 감동되였다고 한다고 하시면서 그의 가정에서는 아버지인 최동오와 장인 류동렬, 처이모 류영준이 애국렬사릉에 안치되였는데 류영준은 내가 잘 안다고, 최덕신의 장인과 처이모의 성은 같은 류씨로 되여있지만 한자로 류동렬은 《버들 류》이고 류영준은 《묘금도 류》자일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1987년 3월 29일, 만산이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던 그날은 청명을 한주일 앞둔 일요일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토록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안겨주시던 애국렬사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더욱 가슴에 사무쳐오시여, 준공후 첫 겨울을 난 애국렬사릉에 혹 손상이 간데는 없는지 그리도 걱정되시여 사람들이 다 휴식을 즐기고 유가족들도 찾아올 생각조차 못하는 일요일의 이날에 렬사들의 묘소를 친히 찾으시였다.

묘비구역에 있는 추모비에는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건설, 나라의 통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희생된 애국렬사

들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1986년 9월 17일》 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최덕신선생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렬사릉에 안치된 장인 류동렬, 처이모 류영준의 묘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들 두사람에 대해서도 회상하시며 그들의 성은 같은 류씨로 되여있지만 한자로 장인은 《버들 류》이고 처이모는 《묘금도 류》자일것이라고 또다시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선친의 묘비앞에서 그가 물을 떠놓고 절을 하더라는 일군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것은 《구세창세》라는 천도교의 교리에 따른것이라고 하시며 오래간만에 선친의 령전을 찾은 그가 신앙하는 종교의 례법대로 참배한것이라고 하시였다.

참으로 민족적량심, 애국적량심을 귀중히 여기시여 베푸시는 어버이사랑은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원한 사랑이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외세에 짓밟힌 나라를 찾기 위해 애국의 땀을 바친 녀성들도 많다.

하지만 세기적인 봉건의 질곡속에서 천대와 멸시의 대명사로 되여오던 이 나라 녀성들을 사회의 당당한 성원으로 떳떳이 내세워주시고 참다운 생을 빛내여주시는 그렇듯 위대한 어버이사랑속에 사는 녀성들은 없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열화같은 불변의 사랑이 있어 민주인

사 류영준선생도 통일애국의 길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게 되였던것이다.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는 렬사들속에서 류영준선생은 오늘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있다.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이 세상 천하에 그 어디에도 없다고.

김창준 편

《지상천국》의 꿈을 안고 ··························· 149
환상이 깨여지다 ······································ 156
진짜 《하느님》을 보았다 ··························· 166
조국전선서기국 초대국장으로 ······················ 181
영생의 품 ·· 198

경력

- 1890년 5월 3일 평안남도 강서군 증산면 가풍리에서 출생
- 1916년 5월－1919년 3월 종로중앙교회 목사,
  그리스도교 아시아총회 조선그리스도교 감리회 대표
- 1919년 3월－1922년 2월 3.1운동시 독립선언서를 발기한 33인중 한사람으로
  서대문형무소에 구류
- 1947년 2월 남조선그리스도교민주동맹을 조직, 위원장으로 활동
- 1948년 4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
-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 1949년 2월－1949년 4월 남조선정당, 사회단체협의회 부서기장
- 1949년 6월－1954년 5월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초대서기국장
- 1952년 12월 세계평화인민대회 조선대표로 참가
- 1954년 5월－1957년 12월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의장단 성원
- 1957년 9월－1959년 5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 1959년 5월 7일 사망
- 1990년 8월 15일 조국통일상 수상

빛과 열은 태양의 속성이다. 저 하늘의 태양은 그 빛과 열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생을 준다.

이 땅우의 모든 생명체들은 태양의 빛과 열에 의해 움트고 자라나며 열매를 맺고 대를 이어가며 자기의 존재를 유지해나가게 된다.

아무리 훌륭한 씨앗이라고 하여도 또 그것이 비옥한 토양에 뿌리내렸다 하여도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고 그 열을 받아안을수 없다면 생명체로서의 존재유무에 대해 론할 가치도 없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저 하늘의 태양에도 비길수 없는 따뜻한 사랑의 빛과 열을 지니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품에 안아주신 위대한 태양이 있으니 그이는 바로 우리 겨레가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가 비록 사상과 정견, 신앙이 다르다고 하여도 애국애족의 마음이 있다면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같이 손잡고 나갈수 있는 사람으로 믿어주시였으며 한번 품었던 애국의 뜻을 끝까지 이룰수 있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였다.

민족우에 계급이 있을수 없고 애국우에 주의주장이 있을수 없다는 한없이 고결한 조국애, 민족애의 세계앞에서는 그 어떤 리론가도, 정치인도 머리를 수그리지 않을수 없었으며

위대한 손길이 가리키는 애국애족의 대하에 합류해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누구나 그 품에 안기면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찾게 되였고 그 손길을 따르면 조국이 알고 민족이 사랑하는 애국자로 살수 있었다.

그이의 사랑은 계절도 그늘도 없었으며 대를 이어 계속되는 위대한 사랑이였다.

그 위대한 태양의 품, 그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비록 첫출발은 달랐어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자기의 생을 값높이 총화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꼽자면 끝이 없는것이다.

김창준목사 역시 외세에게 빼앗긴 아름다운 강산, 짓밟힌 민족의 설음을 안고 몸부림도 쳐보았고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에도 나섰었다.

저 하늘에 있다는 《하느님》을 착실하게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이 땅우에도 《천국》을 세울수 있다고 생각해온 그리스도교신자인 김창준목사가 어떻게 되여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고 하나의 강토에서 온 겨레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리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통일애국의 길에서 생을 빛내일수 있었던가.

《지상천국》의 꿈을 안고

김창준목사는 조선에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실현된 《지상천국》을 세워보려는 념원을 간직하고 일찌기 국내와 해외에서 신학을 공부한 오랜 종교인이였다.

1890년 5월 평안남도 강서군 증산면(당시)의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어려서부터 배움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그의 부모들도 아들을 공부시키는것을 하나의 락으로 삼고 그의 요구라면 무엇이나 아끼는것이 없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부패한 봉건통치로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은 그들의 가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바로 그 사품에 휘말려 그의 가족도 하루아침에 땅을 잃었다.

너무도 억울하고 통분하여 땅을 치며 통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겨운 정상은 그의 어린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였다.

자기 가정의 몰락과 함께 나라의 쇠퇴과정을 함께 보아온 그는 민족을 위한 옳바른 길을 찾으려면 많은 지식을 소유하

고 견문을 넓혀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1903년 13살 나이에 그는 부모들 모르게 보따리를 싸들고 집을 나와 외가집에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소학교과정안을 단 1년만에 끝마쳤다.

1904년 5월에는 평양에 올라와 당시 평양숭실중학교에 입학하였다.

8년세월 힘겨운 고학으로 평양숭실중학교와 숭실전문학교를 다니는 날들이 흐르는 속에 그는 저도 모르게 미국선교사들이 날마다 설교하는 그리스도교의 세계에 끌려들게 되였다.

그리스도교교리에 심취되여가면서 그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수 있는 길이 아닐가 하고 생각하군하였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매혹》은 곧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전도사업에 헌신하리라는 결심으로 굳어졌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던 가산까지 다 복음을 위하여 바쳤고 독실한 교인의 한사람으로 되였던것이다.

그때를 회상하여 김창준목사는 《…나는 숭실중학과 숭실전문학교를 다니던 고학시절에 서양선교사네 집에서 기르는 개가 우리 조선학생들보다 나은 음식을 먹는것을 보고 고작 생각하였다는것이 이러한 사회적불평등은 <지상천국>이 와야

없어진다는것이였다.》라고 썼다.

그가 1912년 6월에 평양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평양광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다가 일본과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신학학사가 된것도 《지상천국》을 반드시 이룩해보자는 열망때문이였다.

미국에서 종교활동을 벌릴 때에도 그의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조선사람의 피가 끓고있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넘쳐났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민족을 위한 좋은 일을 하는 종교인으로 되고싶었다.

그가 조국에 귀국하여 종로중앙교회 목사로, 후에는 상해에 있는 그리스도교 아시아총회의 조선그리스도교 감리회 대표로 활약한것도 바로 그때문이였다.

자기의 종교적리념을 이룩하려고 그는 피타게 노력하였다.

허나 나라없는 백성에 대한 천대와 멸시, 설음과 울분은 종교인이라고 에돌지 않았다.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그는 종교적리념은 고사하고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초보적인 권리와 존엄마저 무참히 빼앗겼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는 항상 오직 조선을 구원해줄것을 간절히 기원하였으며 교인들에게 애국의 넋을 심어주려고 여러모로 애썼지만 이 나라 인민들은 일제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반일감정이 강한 그는 1919년 3.1인민봉기때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33인중의 한사람으로서 반일투쟁의 전렬에 나서기도 하였다.

1919년 2월 28일 밤 김창준목사는 중앙례배당에서 600여명의 학생들과 독립선언에 관한 최후밀약을 마치고 밤새도록 고종의 장례식에 참가하였다가 내려가는 평안도인민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은 한성에 있는 태화관에서 선언서를 랑독하고 조선독립을 선언하였으며 일본인은 조선에서 손을 떼고 돌아가라고 위풍당당하게 호령하였다.

그때 33인에 속하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면서 그는 조선민족이 살아있다는것을 세상에 알릴수 있다면 서슴없이 죽을 각오가 되여있었다.

일제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강도적인 론리로 조선의 독립을 웨치며 떨쳐나선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살륙하였다.

삼천리금수강산은 잔악무도한 강도들의 칼에 맞아 흘리는 겨레의 피로 물들었다.

김창준목사 그자신도 3.1인민봉기에 대한 일제의 탄압에 의해 구금되여 3년간의 옥고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감옥에 앉아서 생각하였다.

어째서 우리 민족은 이다지도 힘이 없는 민족인가. 남에게 짓밟히고 천대받고 갖은 수모와 멸시를 당하다가 끝끝내 사멸되여야 하는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숙명이란 말인가. 어째서 저 하늘에서 인간세상의 모든 만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은 우리 민족을 굽어살피지 않는것인가. 《하느님》에 대한 우리 민족의 믿음이 부족하여서인가 아니면 《하느님》이 우리 백의민족을 외면한것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도 그에게는 앞날이 보이지 않았다. 칠칠야밤과 같은 암흑만이 그의 눈을 가리우고있었다.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도 그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선교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일제에게 짓밟힌 조선사람들에게는 바깥세상도 감옥안이나 별로 다를바없었다. 일제는 저들의 《학병권유》, 《조선그리스도교황도화》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이른바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왜왕을 숭배하지 않으며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찬양하지 않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신앙의 자유마저 무참히 유린당하고 짓밟히던 말그대로 암흑의 시기였다.

조선사람은 그저 앉아서 불우한 자기 신세를 한탄하다가 죽어야 할 세상이였다.

《배고픔도 고달픔도 다 참기 어려웠지만 그보다 더욱 참기 어려운것은 조선사람들에 대한 일제의 비인간적학대와 멸시

였다.

일부 일본의 악질적종교인들은 입으로는 <평등>과 <박애>를 부르짖으면서도 실지 행동으로써는 조선의 종교인들을 함부로 멸시하고 차별하였다.

…

조선의 종교인들이 당하는 이와 같은 불행과 고통은 다 나라를 일제에게 빼앗긴때문이였다.》

한 종교인의 회상록에 실린 이 글은 과거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아온 조선종교인의 실상과 그 근원을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는것이라 할수 있다.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종교적탄압과 멸시를 받으면서 김창준목사는 종교가 있기 전에 먼저 제 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 민족의 운명이자 종교인의 운명이라는 진리를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교인들의 권고에 의하여 1924년 8월 미국 시카코로 류학을 간 그는 미국에서 류학하면서 국민회 흥사단과 동지회, 전미조선류학생회를 총관리하였으며 미국전역의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일제를 반대하는 선전활동도 벌리였다.

타국에서 종교활동을 벌리는 그의 가슴속에는 늘 조선사람의 피가 끓고있었고 마음 한구석에는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꽉 차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민족을 위한 좋은 일

을 하는 종교인으로 살려고 마음을 썼다.

1927년 12월 조국으로 돌아온 후 이듬해 1월부터 1941년 2월까지 명동감리교협성신학교 등에서 그는 청년들을 상대로 조국애와 세계평화를 고취하기 위한 종교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나날에 김창준목사는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특히 1937년 6월 보천보전투소식에 접했을 때 그는 커다란 감동을 금할수가 없었다.

우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조선민족은 일제놈들과 《동조동근》이 아니며 우리는 놈들의 《내선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최후승리는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의것이라고 하신 **김일성**장군님의 연설내용이 그의 마음속에 환희의 파도를 일으켰다.

어제날 만국평화회의장에 나타나 일본의 죄악을 고발하며 렬강들에게 독립을 구걸하던 조선이라는 약소국에 일제침략자들을 사정없이 쳐갈기는 혁명군대가 있으며 그 군사들이 일제가 축성한 《금성철벽》을 바람처럼 넘어들어가 침략자들을 호되게 징벌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세계적인 판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날부터 그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살았다.

기도를 드려도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

의 승리를 바라며 기도를 드렸고 사람들과 만나도 백두산을 우러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였다.

참으로 백두산소식은 김창준목사가 가혹한 일제의 탄압밑에서도 민족적지조를 잃지 않고 조선사람의 량심을 지켜 꿋꿋이 살아갈수 있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환상이 깨여지다

일제가 패망한 후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였을 때 김창준목사는 그것이 장차 우리 민족에게 어떤 불행과 아픔을 가져다주게 될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사람들의 모든 《자유》를 존중하고 《평등》을 실현하는것을 저들의 《리상》이라고 부르짖는 미국의 본성을 명백히 꿰뚫어볼만 한 정치적안목이 당시 그에게는 없었다. 그때의 김창준목사에게 있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진정한 《하느님의 나라》였고 미국인들은 조선의 《해방자》였으며 신생국가를 일떠세우는데 도움을 줄 《원조자》였다.

해방후 복잡다단한 남조선의 정세하에서 그는 서로의 정견이나 주장을 내세우며 파쟁을 일삼고 피를 흘릴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그 《하느님》에 의탁하여 민중을 묶어세

워 민주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남조선에 《하느님의 나라》 미국에서 온 군대가 주둔하고있지 않는가. 그 미국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자기가 할 일은 어느 정도 용이할것이라는것을 그는 믿어의심치 않았다.

그때로부터 그는 서울장안이 좁다하게 뛰여다니기 시작하였다.

좌익과 우익계의 인물들도 만나고 종교인들과도 만났다. 민족주의자와도 자리를 같이하였고 공산주의를 한다는 사람들과도 무릎을 마주하였다.

그의 말은 언제나 하나였다.

우리 민족이 하루빨리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 부흥하자면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것이였다. 민족의 운명과 존망을 우려하는 그의 말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듯 하였다.

그런데 왜서인지 하나가 되는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호소를 해도 사상과 정견, 신앙을 초월한 민족적단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차츰 자신이 하는 일에 회의심을 품기 시작하였다.

과연 나에게 우리 민족의 힘을 하나로 묶어세울수 있는 옳바른 방략이 있는것인가. 정견도 다르고 신앙도 다른 이

땅의 사람들을 모두 동원하자면 어떠한 기치를 들어야 하는 것인가.

밤을 새우며 고심하고 또 해도 정확한 답변을 찾을수 없었다.

그러한 때 1946년 1월 10일부 《서울신문》을 읽던 목사는 놀랐다.

환하신 태양의 미소를 짓고계시는 **김일성**장군님의 영상이 신문에 실렸던것이다.

너무도 큰 감동에 한동안 눈을 슴벅이던 목사는 정신없이 신문기사를 읽어내려갔다. 서울신문사의 두 기자를 만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고 인민들에게 자신의 열렬한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란다고 하신 기사내용에 목사는 오래도록 눈길을 뗄수 없었다.

짓밟혔던 우리 민족의 멍든 가슴에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시고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본제국주의와의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마침내 이 나라에 새봄을 안아오신 장군님.

그이를 받들어 조국과 민족을 위한 일을 해보는것이 바로 목사자신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였던가.

목사는 자리를 차고일어나 서울신문사로 걸음을 옮겼다.

《서울신문》 편집국장인 홍기문을 통하여 평양을 다녀온 두 기자를 만난 그는 그들로부터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던 영광의 그 시각에 대한 소감을 커다란 감동속에 전해들었다.

그때로부터 목사의 마음은 오매불망 **김일성**장군님께로 향하였다. 언제나 마음속으로 그리며 뵙고싶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앞길에 대한 가르치심을 받고싶은것이 그의 소망이였다.

1946년 2월 목사는 이미전부터 면식이 있던 허헌선생을 찾아가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허헌선생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몇달전에 **김일성**장군님으로부터 받아안은 회답편지 한장을 내놓았다.

해방직후의 혼란한 정국앞에서 갈길을 찾을수 없었던 허헌선생은 조국에 개선하신 **김일성**장군님께 편지를 올렸었다.

그런데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그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몸소 허헌선생에게 회답을 보내주신것이였다.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김일성**장군님의 서한을 펼쳐든 목사는 저도 모르게 활달하신 그이의 필체에 온넋이 끌려들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해방과 함께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쏘미 량군이 주둔하게 된것과 관련하여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남조선의 민주인사들이 해야 할 과업에 대해서도 명백한 답변을 주시였던것이다.

수령님께서는 건국사업을 잘해나가자면 정당이나 신앙, 정치적리념의 차이에 관계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단결하여야 하며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여야 한다고, 비록 정

치적립장이 불철저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애국적요소가 있으면 그들과 단결하여나가야 한다는것을 비롯하여 대중을 전취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라고, 공산주의자들이나 몇몇 애국적민주인사들의 힘만으로는 새 조국을 건설할수 없다고, 그렇기때문에 광범한 군중을 결속하며 민주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은 목사의 눈을 번쩍 뜨게 하였다.

지금까지 그는 민주력량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해 뛰여다녔지만 그것은 광범한 대중이 아니라 개별적인 정치인물들에 불과한것이였다.

그에게는 지금까지 정치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민중의 힘을 볼 밝은 눈이 없었던것이다. 그런 그에게 장군님의 이 서한은 광명을 가져다준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한에서 계속하여 남조선인민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책동과 파벌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문제,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인사들이 서로 단결하기 위해 노력할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목사는 그때에야 우리 나라가 《자주독립국가》로 되는것을 《도와준다》는것은 미국의 본심이 아니라는것을 어렴풋

이나마 깨닫게 되였다.

인민들의 총의에 의하여 각지에 세워졌던 인민위원회들을 경찰을 내몰아 강제로 해산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로동자, 농민들의 가슴에 마구 총탄을 퍼붓는 미군, 지난날의 친일파들을 규합하여 군대를 만들고 경찰을 내오는 미국이 진정으로 이 나라에 민중이 요구하는 새로운 제도를 세워줄리 만무한것이였다.

그들은 조선에 대한 저들의 통치체계를 확립하려고 의식적으로 민족내부에 리간을 조성하고있었으며 좌익과 우익간의 사상적대립을 부추겨 우리 민족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꾀하고있었다.

목사는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고있는 한 진정으로 인민이 요구하는 새 조선건설이 이룩될수 없음을 깨닫게 되였다.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미군과 그에 추종하는 민족반역자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참으로 장군님의 서한은 남조선의 민주인사들만이 아닌 우리 전체 조선인민이 민주의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극인(허헌선생의 호), 참으로 **김일성**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야말로 우리들이 이 심장속에 깊이 새겨넣어야 할 금언중의 금언이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살기 위해 미력하나마 나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려 하오.》

목사는 허헌선생의 손을 잡아흔들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의 심장속에서 분출하는 뜨거운 용암과도 같은것이였다.

이날 목사는 남조선의 그리스도교인들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조직을 내오고 그에 토대하여 미군정과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기로 하였다.

그가 애쓴 보람으로 1947년 2월 서울의 천교당에서는 남조선그리스도교민주동맹이 결성되게 되였다.

남조선의 극우익반동들은 진보적인 종교단체인 남조선그리스도교민주동맹의 출범을 방해하려고 각방으로 발악하였다.

이날도 놈들은 수백명의 극우익깡패들을 내몰아 천교당을 둘러싸고 소동을 일으켰으며 지어 돌과 몽둥이로 창문을 들부시며 결성식을 방해하여나섰다.

깡패들의 이 란동으로 회의에 례빈으로 참가하였던 허헌선생은 축사를 하던중 깨여진 유리쪼각에 맞아 이마에 상처를 입기까지 하였다.

이에 굴하지 않고 목사는 남조선그리스도교민주동맹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의 힘으로 자주독립국가를 세울것을 지향하는 애국적종교인들의 단체임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결성식에서는 김창준목사를 위원장으로 선거하였다.

남조선그리스도교민주동맹의 결성은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세

력이 거둔 커다란 승리의 하나였으며 그리스도교를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에 저들의 식민지통치제도를 부식시키려던 놈들에게 큰 타격으로 되였다.

남조선반동들은 결성식에 참가하였던 김창준목사와 함께 450여명의 그리스도교청년들을 감금하고 갖은 고초를 다 들씌웠으나 그의 애국의 지조를 굽힐수 없었다.

지어 목사는 남조선그리스도교민주동맹을 해체하라는 강요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테로분자들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었다.

그야말로 신앙에 대한 박해였고 종교적탄압이였다.

놈들은 남조선그리스도교민주동맹이 북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리용당하고있다느니, 북조선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도교를 탄압하고 교회당도 다 없애버렸다느니, 교인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세불량립이라느니 하면서 온갖 악선전을 다 하였다. 이로 하여 남조선의 일부 그리스도교인들속에서는 북조선에 대하여 그릇되게 인식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있었다.

그러나 북조선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고있었으며 그 어떤 종교에 대하여서도 탄압하거나 그 활동을 제한하지 않았다.

대표적실례로 해방후 북조선그리스도교인들은 1946년 11월 28일에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조직하고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하고있었으며 사회적으로 아무러한 차별도 받지 않고 공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고있었다. 그들은 인민위원회 위원선거에도 다른 사람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참가하고있었으며 많은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그리스도교인들이 인민위원으로 선거되여 나라의 정사에 참가하고있었던것이다.

그때의 일을 두고 목사는 이렇게 회고한바 있다.

《미국에 대한 나의 환상은 그때 완전히 깨여졌다.

미국은 결코 조선사람의 <해방자>가 아니라 침략자였고 벗이 아니라 원쑤였다.

미국에 대한 숭배가 환멸로 바뀌고 환상이 증오로 전환된 나의 정신사상적변화는 이렇게 되여 더욱 확고부동한것으로 굳어지게 되였던것이다.》

남조선그리스도교민주동맹은 창립된 첫날부터 통일적민주주의림시정부수립을 지지하여 여러차례 성명도 발표하고 그리스도교인들을 조직동원하여 대중적인 집회와 시위도 진행하면서 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하느님의 사도》로, 《자유와 평등의 천사》로 자처하면서 《민족자결》에 대하여 떠들던 미국은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광분하였고 1947년 9월에는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갔으며 11월에는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라는것을 조작하였다.

쏘미공동위원회사업과 조선에 완전한 독립국가건설을 4개국이 원조협력하겠다는것을 약속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킨 미국이 저들의 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것이였다.

내외반동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민족분렬의 어두운 구름은 더욱 짙어가고있었다.

목사를 비롯한 남조선의 민주인사들은 가슴을 쳤다.

과연 우리 민족은 외세의 롱락물이 되여 분렬의 비극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우리 민족앞에 닥쳐온 이 비극을 가실수 있는 힘은 없단 말인가.

진짜 《하느님》을 보았다

1948년. 남조선의 봄은 어수선하였다.

여기저기에서 질척거리는 눈석이물은 마치도 지나간 겨울이 남긴 상처자리처럼 땅우에 보기 싫은 얼룩을 그려놓았고 음지의 한구석에 드문드문 남아있는 눈무지들은 겨울이 마지막 악을 쓰며 아직 봄이 되려면 멀었다고 선언하는것 같았다.

보다 더 어수선한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였다.

이른바 《국제련합》이 인정하는 《전조선독립정부》의 선거를 부르짖는 광고들이 담벽마다 어지럽게 붙어있고 이전에는 생각조차 해볼수 없었던 괴이한 몸가짐을 한 녀인들의 사진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있었다.

외세가 제멋대로 그어놓은 38°선은 국경선처럼 말없이 이 땅을 가로질렀고 기차를 타고 오고가던 저 북쪽땅은 마치 다른 나라인듯 밤에 산길을 넘어다니기도 힘들어졌다.

반만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지느냐 아니면 통일독립된 자주적인 국가로 되느냐 하는 엄숙한 시기에 그 타개책을 알수 없어 통탄하던 때인 1948년 3월말이였다.

갈피를 잡을수 없이 복잡한 서울의 거리를 다급히 걸어가는 한사람이 있었다.

두루마기를 정히 차려입은 그는 평소의 진중하고 조용하던 자기의 성미를 하루밤사이에 잃어버린듯 몹시도 흥분된 얼굴로 뛰다싶이 하며 걷고있었다. 길가에서 아는 사람들이 반갑다고 인사를 했으나 그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가 바로 남조선그리스도교민주동맹 위원장인 김창준목사였다.

집에 이른 목사는 의아한 얼굴로 마중나온 부인이 무어라 묻는 소리도 못 들은듯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난 다음에야 그는 비로소 안심이 된듯 품안에 깊숙이 건사하였던 봉투 한개를 책상우에 펼쳐놓았다.

명주천에 정성을 들여 타자를 친 편지 한장이 나타났다.

그 편지는 바로 며칠전 어버이수령님께서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에게 보내주신 초대장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외세가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흉계를 꾸미고있던 1947년 10월 3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회의를 소집하시고 북과 남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협상의 방법으로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할것을 발기하

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렇게 목사를 비롯하여 남조선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에게 친히 초대장을 보내주신것이다.

초대장의 글줄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목사의 얼굴에 감동의 빛이 뜨겁게 어리였다.

읽어보면 볼수록 애국의 열정이 차넘치는 글발들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초대장!

이것은 단순히 회의에로 부르는 통지서가 아니였다.

그것은 민족분렬의 위기를 가시기 위한 참된 길을 찾지 못해 모대기던 김창준목사를 비롯한 남조선의 애국적인사들의 애국의 마음을 귀중히 여기시여 애국애족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뜨거운 손길이였고 그 길에서 삶을 참답게 빛내이도록 불러주시는 믿음의 증서였다.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초대장을 소중히 품에 안으며 목사는 눈굽을 적시였다.

언제나 우리 민족의 힘을 믿으시고 단결된 민족의 힘에 의거하여 부닥친 난국을 헤쳐나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철의 의지와 인민에 대한 크나큰 믿음앞에 격정을 누를수 없었다.

목사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때라야 우리 민족앞에 밝은 서광이 비치고 우리 조국은 세계에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떨치는 자주독립국가로 될수 있음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장군님께서 몸소 남북련석회의를 발기하시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자고 호소하신 이상 목사로서는 그 길을 따르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았다.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소집방안은 남조선의 좌익, 중간은 물론 우익정당, 사회단체들에서도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산하 정당, 사회단체들은 물론 중간 및 우익정당, 사회단체대표들까지도 남북련석회의를 지지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남조선의 여러 신문, 방송, 통신들은 남북련석회의소집을 지지하는 남녘의 모습을 련일 대서특필하였다.

우리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며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음을 깨달은 남조선의 많은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평양으로, 평양으로 길을 떠났다.

김창준목사도 매국이 판을 치는 남조선에 더는 남아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1948년 4월 결연히 평양을 향해 길을 떠났던것이다.

장군님을 한시바삐 만나뵙고싶은 심정으로 밤길을 걸으면서도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민족통일

의 대회합을 마련하신 장군님께서 한날 종교인에 불과한 자기들을 접견해주실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은 김창준목사였다.

그런데 평양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에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으니 목사는 놀라운 가슴을 진정할길 없었다.

그리도 뵈옵고싶던 장군님을 이처럼 빨리 만나뵙게 된 흥분으로 하여 잠들수 없는 평양의 밤이였다.

활짝 열어놓은 숙소의 창문으로는 낮에 미처 다 뿜어내지 못한 꽃들의 향기가 흘러들고있었다. 봄의 훈향은 조용히 사람들의 가슴속으로 스며들어 그윽한 감정의 세계에로 이끌어가고있었다.

서울에서는 전혀 느낄수 없었던 봄의 정취였다.

창문가로 다가간 목사는 흘러드는 봄향기를 폐부깊이 들이켰다. 온몸이 그대로 봄속에 녹아버리는것 같았다. 다른 대표들이 들어있는 방에서는 환한 불빛이 흘러나오고있었다.

목사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은구슬을 뿌려놓은듯 반짝거리는 무수한 별들이 그를 내려다보고있었다. 그 별빛속에서 목사는 우렷이 떠오르는 태양의 영상을 보았다.

못견디게 그리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환하신 영상이였다.

《서울신문》에 모셨던 30대의 젊고젊으신 그이의 영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목사의 심장속깊이에서 밝은 빛을 뿌리고 있었다.

다음날 목사와 일행이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밤이 퍼그나 깊어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뜨겁게 포옹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존안을 뵈옵는 순간 그는 격정에 목이 메여 인사의 말씀도 변변히 드리지 못하였다. 그저 오래동안 떨어져있던 부모를 만난 자식의 심정이 된듯 무어라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목사와 일행에게 몸소 자리까지 권하시고 멀고 험한 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는가, 건강은 어떤가를 일일이 물어주시였다. 그는 어버이처럼 다심하신 장군님의 그 말씀에 눈물이 솟아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백두의 천고밀림, 빙설천지에서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장군님이시였다. 초근목피로 끼니를 에우시며 풍찬로숙의 날과 날을 이어오시느라 겹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오늘은 내 나라 삼천리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시려 불철주야의 로고를 기울여오시는 장군님이시였다.

피바다, 눈보라만리를 헤쳐 이 강산에 민주의 새 아침을 안아오신 민족의 위대한 구세주 **김일성**장군님께 삼가 큰절을 올리기도 전에 미거한 그리스도교인의 건강부터 헤아려주시니 그는 너무도 황송하고 분에 넘치는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장군님, 나라의 해방을 위해 별로 한 일도 없는 종교인에 불과한 저희들을 나라의 흥망을 토의하게 될 이 영광스러운 회의에 불러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이렇게 만나주시니 무엇이라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감격에 겨워 이렇게 말씀올리는 그에게 자리를 권하시며 가족은 몇이나 되는가를 물으시였다.

너무도 자애롭고 소탈하신 그이의 물음에 목사는 어느새 온몸을 휩싸고있던 긴장이 풀리여 아들과 세 딸 그리고 안해까지 모두 6명이라고 말씀올렸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놈들의 탄압이 심한 조건에서 여러 식구들을 데리고 나라를 위한 애국사업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았겠다고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창준목사에게 자신께서는 이미 위원장선생을 비롯한 남조선의 애국적그리스도교인들이 반동들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잘 싸우고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사실 남조선에서 교인들이 반동들을 반대하여 싸운다는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자신께서는 위원장선생을 비롯한 남조선그리스도교인들의 애국투쟁을 높이 평가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동안의 자기들의 활동을 너무도 높이 평가해주시는 말씀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말씀을 받아안으며 목사는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해방의 환희가 넘치던 그때로부터 근 3년간 외세의 지배가 없는 새 민주조선을 세워보겠다고 동분서주하던 그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그래도 제딴에는 무엇인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다고 목청도 돋구어보았고 여기저기 뛰여다니기도 했지만 닥쳐온 민족분렬의 위험을 한몸으로 막아나서기에는 너무도 미력했던 자신이였다. 이 나라 백성된 도리를 다할수 없어 가슴을 쥐여뜯으며 통탄하던 그밤은 얼마였으며 실패의 고배를 마시며 고민하던 날들은 또 얼마였던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지나간 날들에 쌓이고 서렸던 그의 아픈 상처를 씻어주는 다심한 사랑이였고 정이였다.

그 사랑이 클수록, 그 정이 깊을수록 목사는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위대한 경륜을 안으시고 이번 련석회의소집을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바쳐오신 **김일성**장군님의 로고에 비해 너무도 한 일이 없는 자신을 스스로 타매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어 나라앞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면서 목전의 현실은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안팎의 분렬세력들의 《단선단정》조작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는데 대하

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을 침략하고 식민지화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세상사람들이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량립될수 없다고 하시면서 교인들도 민족의 분렬을 막고 민주주의적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할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과거 우리 나라의 교인들속에는 조국광복을 위한 성업에 한생을 바친 훌륭한 애국지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선생도 3.1운동때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33인의 한사람으로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갖은 박해를 다 받았지만 반일애국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에도 많은 애국적종교인들이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하에 우리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습니다. 외래침략으로부터 자기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것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을것입니다.》

그이의 가르치심에 목사는 더더욱 커가는 자책의 심연에 빠져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의 넋마저 깡그리 짓밟히는 그 아픔을 참을수 없어 민족주의운동의 앞장에도 서보았고 예수그리스도에게 열심히 기도도 드렸던 그였다.

그러나 그 모든것이 진정한 애국적소행으로는 될수 없는것이였음을 그 시각에 그는 뼈에 사무치게 느끼고있었다.

애국의 열혈청춘들이 빼앗긴 나라를 찾을 일념으로 뼈를 깎아내리고 살을 에이는 모진 고통을 이겨내며 이국의 광야에 뜨거운 선혈을 뿌리고있을 때 자기는 해외에서 종교활동을 벌리며 하늘에 기도나 드린것이 고작이 아닌가.

지금껏 자부해오던것이 한갖 우국지사의 무맥한 몸부림이였다는 자책감이 갈마들어 그는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런데도 수령님께서는 그 지나온 나날들에 목사가 벌린 활동을 애국적인 소행으로 값높이 평가해주시는것이였다.

《장군님, 너무도 과분한 평가에 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초대장을 받아안았을 때도 저는 그저 응당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평양으로 왔을뿐인데 그것이 무슨 큰 소행이겠습니까.》

수령님께서는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남조선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업에 적극 기여하려면 굳게 단결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사실 당시의 남조선그리스도교계의 실태를 보면 일부 교인들이 장로교, 감리교 하면서 서로 교파싸움을 하다보니 단합을 이룩하지 못하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서로 장벽을 쌓고 교파싸움을 할것이 아니

라 미국의 《단선단정》조작책동을 분쇄하고 민주주의적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굳게 뭉쳐야 한다고, 더우기 미제와 남조선반동파들이 민주력량의 분렬을 획책하고있는 조건에서 교인들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더 잘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리고 교인들속에서 단합을 방해하고 분렬와해책동을 감행하는 불순분자들을 적발하는데도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남조선과 달리 북조선에서는 천도교인이든, 그리스도교인이든, 불교도인이든 교파는 서로 달라도 자기의 정연한 조직체계를 이루고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민주조선건설에 적극 참가하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자자구구 새겨가는 김창준목사의 심정은 크나큰 격정으로 설레였다. 몸도 마음도 새로운 힘을 부여받은듯 한껏 부풀어올랐다.

그의 이러한 심정을 헤아리신듯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수령님께서는 교인들속에서 숭미사상을 없앨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당시 남조선의 적지 않은 그리스도교인들은 숭미사상을 가지고있었으며 미국이 조선에 독립국가를 세워줄것처럼 생각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일부 그리스도교인들이 생각하는것처럼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천국》이 아니라고, 미국이 우리 나라를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로 발전시켜줄것이라고 기대하는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해방후 남조선에서 미국의 종교시책의 반동성에 대해 하나하나 까밝히시였다.

해방후에도 종교를 악용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반공사상과 북남대결감정을 고취하여온 미국의 책동을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들어가시며 폭로하신 수령님께서는 북반부의 종교시책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였다.

그리스도교를 전문으로 연구해온 자기보다도 종교에 대해 더 밝고 해박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목사는 지금껏 《자유》와 《박애》의 너울을 쓰고 감행해온 미국의 민족분렬책동에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러는 그의 심중을 헤아리시고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종교인들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나라가 없이는 신앙의 자유도 있을수 없습니다.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고 과거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오늘 남조선에서 애국적종교인들이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것도 바로 미군정통치가 실시되고있기때문입니다.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로 되여야 남조선의 신자들도 신앙의 자유를 실제로 보장받을수 있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떠나서 종교인의 참된 삶도,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는 심오한 사상이 담긴 가르치심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교인들은 기도를 하여도 우리 나라의 자주독립과 우리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하여야 할것이라는데 대하여 똑똑히 일깨워주시였다.

그이의 명철한 지침을 받아안으며 목사는 눈앞이 활짝 열리는것 같은 느낌에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숭미사상에 넋을 흐렸던 자신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였으며 자기가 빠진 심연에서 헤여나오자면 어떤 사고와 립장을 가져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수 있게 된것이였다.

마디마디 애국의 열의를 불러일으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말씀드렸다.

《장군님, 장군님의 천금같은 그 말씀을 듣고보니 지금껏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면서 눈뜬 소경노릇만 해온것 같습니다.

이번에 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도 느낀바이지만 우리 민족이 살아나갈 길은 오직 장군님을 받들어 모두가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는것입니다.

비록 미력하나마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이번 련석회의사업에 적극 참가하겠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목사의 말을 들으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이번 회의는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위험이 닥쳐오고있는 엄중한 시기에 남북련석회의를 하는것은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력량이 단합된 힘으로 통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고,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여 구국대책에 대한 좋은 의견을 내놓으며 회의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적극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이처럼 과분한 믿음까지 받고보니 목사는 참으로 행복하였다.

예수의 성경에서도 들어보지 못했고 또 들을수도 없었던 민족애, 조국애의 참다운 정신을 심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금언들을 자기의 뇌리속에 깊이깊이 새겼으며 언제나 그이께서 가리키시는대로만 하면 민족복락의 새날이 밝아온다는 신념을 가다듬게 되였다.

이날 밤이 새도록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의 구절구절을 되새기며 그는 종교인이기에 앞서 조선민족의 한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지워진 책임을 다하리라 굳게 결심하였다.

다음날인 남북련석회의 제2일회의에 참가한 목사는 **김일성**장군님의 력사적인 보고 《북조선정치정세》를 커다란 환희속에 받아안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북과 남의 정치정세를 과학적

으로 분석총화하시고 조선을 분할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맞서싸울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회의에 참가한 다른 대표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김일성**장군님의 이 보고를 열렬히 찬동하였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투쟁과업이야말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우리 민족은 오직 이 길로만 가야 자기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존엄높은 민족으로 될수 있었다.

목사는 그후 남북련석회의를 지지하는 군중대회에 이어 5.1절기념 평양시군중대회에 참가하여 어버이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우러르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열정을 직접 보고 느낄수가 있었다.

환호하는 군중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손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목사의 심중에 형언할수 없는 격정이 메아리쳤다.

목사는 한생 그리스도교를 믿어오며 단 한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던 《하느님》을 여기 평양에 와서 뵈웠다는 무상의 행복감에 깊이 잠겨들었다.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이 땅,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 저 하늘에서 강림하신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진정한 이 민족의 구세주, 영원한 태양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받들어모신 우리 민족은 얼마나 행복한 민족인것인가!

일찌기 그리스도교를 믿기 시작하여 반백이 되였건만 자기에게 이런 영광의 날이 있을줄을 과연 상상이나 해보았던가. 이것은 오직 어버이수령님을 구세주로 받들어모시는 조선민족에게만 차례질수 있는 행운이 아닐수 없었다.

조국전선서기국 초대국장으로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가 끝나고 적지 않은 대표들이 다시 남조선으로 나갔지만 그는 출발을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북조선에 일떠선 공장과 농촌, 학교와 병원들을 참관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다.

그저 기적이라고밖에 할수 없는 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특히 황해제철소(당시)를 참관하고 공화국북반부의 발전모습에 목사는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해방전 《겸이포제철소》로 불리운 황해제철소는 그 이름부터가 식민지의 설음을 통감하게 했었다.

제철소가 자리잡고있는 곳은 그전에는 물맑은 대동강기슭의 아름다운 포구였다. 이 고장을 고구려시기에는 약두치기현 또는 지섬, 삭두라고 했고 고려 초시기에는 송림현,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장단현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일제는 서부지역에 풍부히 매장된 철광석을 략탈하기 위하여 1917년 교통조건이 유리한 송림에 기형적인 제철소를 차려놓고 철을 원료반제품으로 뽑아갔다. 그러다가 일본의 한 재벌이 여기에서 선철과 강철을 뽑아 치부할 야심으로 제철소에 야금설비를 대대적으로 확장한 다음 이 아름다운 고장을 자기 이름을 따서 고치고 제철소의 이름도 《겸이포제철소》라고 하였던것이다.

해방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치욕스러운 그 이름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고려시기에 쓰던 이 고장이름인 송림이라는 민족적이름을 되살려주시였고 제철소를 황해제철소라고 부르도록 하시였으며 이곳 로동계급을 새 조선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호소에 고무된 황해제철소의 로동계급은 과감한 투쟁을 벌려 일제가 무참히 파괴하였던 공장을 단 몇해사이에 복구하고 1947년말에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해방후 첫 쇠물을 뽑아 세상사람들을 경탄시켰던것이다.

토지개혁의 혜택아래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은 한알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여 건국에 이바지하겠다고 땀을 흘리고있었다.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사랑속에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근로인민출신의 민족간부들이 자라나고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육친적인 사랑에 의해 세워진 만경대혁명자유자녀학원(당시)에서는 반일투쟁에 몸바친 유명무명의 애국자들의 자녀들이 선대들의 뜻을 꿋꿋이 이어나갈 기둥으로 아무런 불편없이 공부하고있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몇십년이 걸려도, 몇대를 흘러도 이룩할수 없을 민족의 대업을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근로하는 인민의 힘을 믿으시고 그들을 불러일으켜 단 몇해사이에 완성하신것이였다.

성서에서 나오는 《천국》을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지상의 현실로 펼쳐주신것이였다.

《여기가 바로 지상천국이요. 내 한생을 두고 찾아온 지상천국이 여기에 펼쳐졌소.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과시 하늘이 낸분이시오!》

감탄에 감탄을 거듭할수록 이러한 지상천국을 우리 민족을 위해 세워주신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감정이 더욱 솟구치고 그이께서 계시는 여기 평양에서 살고싶은 생각만이 목사의 심장을 꽉 틀어잡았다.

평양에 남아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일하자. 그것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길이고 민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도리이다.

목사는 마침내 이런 결심을 내렸다.

아직도 남조선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각이 발목을 붙잡지 않은것은 아니였다. 그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서울로 나가고싶었다. 그들과 함께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단란하게 생활하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머리를 저었다.

미군정의 통치가 더욱 심해지고 전체 조선인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강행된 5.10단선으로 하여 미구에 출현하게 될 식민지정권의 통치하에서는 한가정의 행복도, 종교인으로서의 생활도 옳바로 유지할수 없음을 이미 그는 깨닫고 있었던것이다.

오직 민족의 넋이 살아숨쉬는 땅,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여기 평양이야말로 자기가 뿌리를 내려야 할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1948년 6월 22일 김창준목사는 또다시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목사는 당시 북조선인민위원회 서기장으로 활동하고있던 강량욱선생과 함께 그이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갔다.

언제나와 같이 태양처럼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그를 만나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간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를 일일이 물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세심한 배려로 아무런 불편없이 명승지들을 다니면서 휴양도 하고 북조선 각지를 참관도 했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속담에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도 있는데 년세도 많으신분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데 왜 불편한 점이 없겠는가고 하시였다.

강량욱선생으로부터 김창준목사가 남조선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싶어한다는 말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생각은 좋은것이나 남조선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는가고 근심어린 어조로 물으시였다.

친부모보다 더 다심하신 그이의 이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느끼며 목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군님, 우리 가족에 대한것은 저의 개인사정입니다. 그러니 과히 심려치 말아주십시오. 제 가족에 대한것은 좀 두고보아도 일없습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김창준선생이 정말 단단히 결심을 한것 같다고, 그럼 우리 함께 손잡고 일해보자고 하시였다.

순간 그는 마치도 온 천지를 자기가 다 받아안은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르고 환희에 넘쳤다.

그리도 애타게 바라고바라던 열망이 이렇게 쉽사리 성취될수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다가 그러

면 오늘 종교에 관계하고있는 두분이 다 있는데서 종교문제에 대해 좀 이야기하자고 하시며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해방된 조선인민은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여야 하며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과업은 몇몇 공산주의자들이나 애국적인 민주인사들의 힘만으로는 될수 없다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상과 정견의 차이, 당파나 신앙의 소속을 가리지 말고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성취될수 있는 민족의 대업이라고, 여기서 그리스도교인들이 례외로 될수는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외세와 반동분자들의 악랄한 반공선전으로 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그리스도교인들을 묶어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정치조직체로 내온 북조선그리스도교련맹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있으며 적지 않은 그리스도교인들이 파벌싸움으로 시간을 보내고있다는데 대하여 하나하나 그 실태를 설명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근심어린 안광을 우러르며 목사는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

수령님을 받들어 일하겠다고 평양에 남았으나 뚜뚜한 방책도 없이 그간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한것밖에 없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장군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교양

은 목사인 자신이 응당 앞장에 서서 진행해야 할 일이 아니였던가.

그런데 자기가 처신을 옳바로 하지 못해 국사에 다망하신 장군님께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생각하니 죄송함을 어쩔수 없었다.

《장군님, 제 지금껏 장군님을 받들어 일하겠다고 평양에 남아서 허송세월을 하면서 무엇 하나 똑똑하게 해놓은것도 없고 아직 이렇다할 방책도 세운것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우리 교인들때문에 그토록 심려하시니 같은 교직자로서 제 머리를 들수가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 강량욱목사님을 도와 북조선의 그리스도교인들과의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 그리스도교인들의 대부분이 서북지방에 있는데 김창준선생은 평안남도가 고향이므로 서북지방에 아는 교인들이 많을것이라고, 그들만 잘 설복해도 많은 신자들을 그리스도교련맹에 망라시킬수 있을것이라고 믿음에 넘친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그리스도교인들과의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미국을 믿을것이 아니라 제 나라 인민의 힘을 믿게 하며 《하느님》을 믿어도 조선의 《하느님》을 믿게 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명철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목사의 눈앞에는 지난 기간 미국과 남조선에서 체험한 가지가지 일들이 떠올랐다.

겉으로는 불쌍한 조선사람들을 《동정》하는것처럼 《자선》과 《평등》을 부르짖지만 식민주의를 옹호해온 미국, 자기들을 진정한 《하느님의 사도》로 자처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천국》을 옹호하는 미국의 리면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그래서 목사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식민주의를 옹호하는 미국선교사와 책상을 치면서 싸우던 일들을 어버이수령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미제의 본성이라고, 남조선에 《해방자》의 탈을 쓰고 기여든 미제는 침략자이며 략탈자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교인들속에 깊이 박혀있는 숭미사대주의사상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어 목사에게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을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도 계속할수 있다고, 선생은 남조선종교인들속에서 명망이 있는것만큼 여러가지 사업을 통하여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가 친일파, 친미파, 민족반역자들을 규합하여 세우려는 《단독정부》를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서 전조선적인 정부를 세워야 하며 며칠후에 열리게 될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에서 새로운 구국대책을 세우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는 흥분된 심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이께 이렇게 말씀올리였다.

《장군님, 제 비록 힘은 없지만 장군님의 애국의 뜻을 받들어 힘껏 일하겠습니다. 이제 제 여생을 장군님을 받드는데 바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이도 있는것만큼 건강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내외의 반동들이 민주인사들뿐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한 탄압도 강화하고있는 조건에서 선생의 가족도 빨리 데려올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진정 친어버이도 줄수 없는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품은 그가 지금껏 찾아 헤매던 조국애와 민족애의 위대한 결정체였다.

그 품은 근로민중뿐아니라 사상과 리념, 신앙이 다른 자기와 같은 종교인도 따뜻이 품어주는 대해와도 같은 품이였다. 그 품이 있어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부강한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울 날도 멀지 않았다는것을 확신할수 있었다.

그 앞날을 그려보며 그이의 집무실을 나서는 목사의 얼

굴에는 지금껏 볼수 없었던 환희와 격정이 파도치고있었다.

평양에 남은 김창준목사는 어버이수령님의 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되였으며 새 조국건설과 통일애국을 위한 현실적인 투쟁대오의 일원으로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나게 되였다.

1949년 6월 25일 평양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는 대회가 전체 조선인민의 커다란 관심속에 열렸다.

김창준목사는 이 대회에 남조선그리스도교민주동맹을 대표하여 참가하게 되였다.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가지게 된 기쁨과 **김일성**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대의원으로 선거된 긍지가 한껏 어려있는 그에게 있어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조직을 결성하는 이 대회에 참가한것은 또 하나의 경사로 되였다.

민족의 태양을 받들어 일하겠다고 평양에 남은이래 그는 날마다 더해만 가는 기쁨과 환희속에 날과 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지경이였다.

그저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더 잘 받들어나가지 못하는것만 같은 조바심이 앞서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인들을 그이의 두리에 묶어세울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뿐이였다.

그는 성대한 결성대회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깊은 의도를 더 잘 알고 그 높은 뜻을 받들어나갈 결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북과 남의 애국적정당, 사회단체들의 통일전선 조직체로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결정과 조국전선강령, 규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어버이수령님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또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상설기구로서 서기국을 조직하였다.

김창준목사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신임에 의하여 조국전선서기국의 초대국장으로 사업하게 되였다.

대회가 끝난 6월 28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목사와 서기국의 책임일군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대하여 상세히 가르쳐주시였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투사라는 자각을 굳게 가지고 언제나 선봉에 설데 대한 믿음을 주시였다.

별로 한 일도 없는 자기와 같은 불민한 종교인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신것만도 미처 다 갚을수 없는 은혜인데 오늘은 이렇게 영예롭고도 무거운 임무를 맡겨주시며 근로인민의 선봉투사의 한사람으로까지 내세워주시니 정녕 어버이수령님은 하늘이 낸분이시며 민족성원모두를 한품에 안아 복락의 천국에로 이끌어가시는 구세제민의 화신이심을 이날 목사는 다시한번 심장으로 느낄수 있었다.

그 위대한 품을 떠나서는, 그 인덕의 손길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고 종교인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가치마저 잃고만다는것을 그는 자신의 뇌리속에 깊이 새겨넣었다.

오직 그이를 받들고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 조국과 민족이 흥하고 그 미래가 휘황하다는것을 목사는 자기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심장으로 절감하였던것이다.

그때의 나날들을 돌이켜보느라면 저절로 감회가 새로와지는 그였다.

그후 남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협의회 부서기장으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결성될 때에는 초대서기국장으로 사업하였으며 빠리와 모스크바, 쁘라하와 윈에서 있은 평화옹호세계대회들에 종교인으로, 조선민주대표로 참가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평화적조국통일방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가 발휘한 열정은 놀랄만 한것이였다.

김창준목사는 결코 자기의 육체적능력이 뛰여난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의 몸에서 샘솟는 열정과 일하고 또 일해도 피곤을 모르는 정력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의 불사약이 낳은것이였다. 그것이 있었기에 환갑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처럼 마냥 뛰여다니고싶었고 하루가 24시간밖에 안되는것이 아쉬울 정도로 일에 전념하였다.

목사는 북과 남으로 갈라진 우리 조국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대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을 언제나 굽히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평화》와 《박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목사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리승만역적패당은 공화국의 정당하고도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로선을 끝끝내 외면하였으며 1950년 6월 25일 평화를 사랑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에도 불구하고 이 땅우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야말았다.

전쟁!

이것은 청소한 공화국에 있어서 커다란 시련이였을뿐아니라 매 인간들의 진면모가 검증된 시금석과도 같은것이였다.

좋은 때 백날을 따르기보다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하루를 따르는 사람이 진짜 충신이라는 말도 있다.

준엄했던 전화의 그 나날 어버이수령님만을 믿고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만을 따르는 인민들의 그 마음에는 변심이 없었으니 김창준목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대적인 무력증강책동으로 말미암아 락동강계선에서 불리한 사태가 조성되고 인민군대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였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승리는 확정적인것이라고 목사는 굳게 믿고있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내고 최고사령부가 있는 북으로의 걸음을 중단없이 다그칠수 있었던것이다.

온 나라가 조국앞에 닥쳐온 엄중한 난관을 타개하고 신성한 조국땅을 완전히 강점하려고 미친듯이 날뛰는 침략자들을 종국적으로 섬멸하기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고있던 준엄한 그 나날 목사는 자강도 만포에 있으면서 여러차례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창준목사와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의장단 성원들, 서기국 일군들을 만나실 때마다 언제나 그들의 생활형편과 건강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을 돌려주시였을뿐아니라 북과 남의 인민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데서 조국전선이 수행하여야 할 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 가르치신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고 언제나 승리만이 약속되여있다는 신념을 잃지 않았기에 목사는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수령님의 심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다.

목사의 가슴속에는 오직 이 나라의 이름없던 종교인에 불과한 자기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크나큰 일을 맡겨주시고 한걸음이라도 탈선할세라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는 그이의 사랑과 믿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그 한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시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의 노력을 기울이시면서도 언제나 김창준목사를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더더욱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52년 12월에 그를 오스트리아의 수도 윈에서 열리는 세계인민평화대회에 조선인민대표의 한 성원으로 몸소 추천하여주시고 그리스도교인인 목사가 토론까지 하게 하여주시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별로 한 일도 없는 자기가 이제 온 세상사람들앞에 **김일성**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공화국을 대표하여 나서게 된다고 생각하니 목사는 흥분되는 마음을 억제할수 없었다.

대회의 연단에 올라선 그는 자기를 지켜보는 대표들앞에서 토론을 시작하였다.

《오늘도 조선에서는 미국의 야수적폭격으로 패여진 폭탄구뎅이들, 무너진 담벽과 불타는 집안에서 들려오는 비참한 울부짖음, 아직도 신경의 경련이 남아있어 파동치는 팔과 다리, 질벅하게 흐르는 피, 죽은 아이를 찾는 엄마의 원한에 사무친 소리, 죽은 어머니의 가슴에 매달려 우는 아이들, 이런 전률할 살륙의 수라장이 매일같이 벌어지고있음을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목사의 이 절규에는 미국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격분이 력

력히 담겨져있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반만년의 기나긴 세월 다른 나라에 돌멩이 하나 던진 일 없는 우리 민족이 오늘 과연 그 누구에 의하여 이런 비극을 체험해야 한단 말인가.

이 땅우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전대미문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온 강토를 재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잔인하게 앗아가는 살인마.

외세가 퍼붓는 폭탄은 적십자표식이 뚜렷한 병원도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십자가를 높이 세운 교회당과 성당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였다.

원쑤들의 야만적인 폭격에 피흘리며 쓰러진 사람들, 그들은 생의 마지막까지 놈들을 저주하였고 자기들의 복수를 부탁하였다.

조선전쟁을 통하여 놈들은 《하느님의 사도》로 자처하던 저들의 검은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놓았으며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무고한 인민들이 흘리는 피는 더욱 많아질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리스도교인으로서, 목사로서 40여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그의 격분에 찬 토론은 대회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특히 그리스도교인대표들에게 미국에 대한 증오와 규탄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전 쏘련의 니꼴라이대승정과 영국의 칸티버리부승정, 카나다의 감리교목사 엔티코스 등 55명의 각국, 각 교파의 종교인들이 미국의 조선침략전쟁을 즉시 중지할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에 서명하였으며 호소문이 발표되자 그리스도교, 로마교, 불교, 이슬람교, 카톨릭교, 정교 할것없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 운동에 궐기해나섰다.

국제무대에서 거둔 목사의 사업성과를 두고 제일로 기뻐하신분은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창준목사가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앞에서 미제의 천인공노할 살인만행을 낱낱이 폭로하고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늘이는데서 큰 공로를 세웠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그이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으며 목사는 생각하였다.

하늘을 믿어도 미국의 하늘을 믿을것이 아니라 조선의 하늘을 믿어야 한다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천만번 지당한것이였고 절세의 위인의 손길에 떠받들려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의 생이야말로 얼마나 보람있는것인가를.

영생의 품

김창준목사가 공화국에 와서 누려온 생활에 대하여 총화하면서 말년에 남긴 유고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공화국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사상과 리념이 다른 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일시적인 동맹자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걸어갈 민족의 성원으로 여기여 아무런 구별과 변심을 모르는 고결함, 의리인 동지적사랑으로 굳게 믿어주고 품어주는 진실한 애국자들이다.

내가 만일 공산주의리상과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과연 오늘과 같은 삶의 보람에 대하여 상상인들 할수 있었겠는가.

나는 해가 바뀌고 나이가 더해가며 생각이 깊어질수록 공산주의리상과 손을 잡은것이 얼마나 천만다행한 일이였는가 하는것을 더욱더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참말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충복들이며 열렬한 애국자들이다. …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땅우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고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김

창준목사에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고 크나큰 사랑을 돌려주시였다.

1954년 4월 25일 당중앙위원회 한 책임일군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간 김창준목사가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서기국장으로서 사업을 잘해왔다고 하시면서 그가 이제는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해하므로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의장단 성원으로 활동하게 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조국전선의장단 성원으로 국가의 중요회의와 정치행사에 내세우고 활동하게 하면 각계각층 군중들에게 주는 영향도 좋을것이라고 하시며 그 방향과 방도도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으며 김창준목사는 끓어오르는 감격을 어찌할수 없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언가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뛰여다니던 그리스도교인인 자기를 남북련석회의에 불러주시던 그때로부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남조선에 다시 나가지 않고 북에 남은 그에게 명승지들에서의 휴양도 조직해주시고 반동들의 손에 잘못될가 저어하시며 가족들도 모두 데려오게 하신 어버이수령님.

하기에 목사와 그의 자식들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조국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용약 떨쳐나서 조국과 민족앞에 떳떳하게 싸울수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던 아들 김기조는 전쟁이 일어나자 정치공작대로 나가 공작대활동을 맹렬히 벌리며 용감히 투쟁하였다.

둘째딸 김영조는 인민군협주단 배우로 전쟁시기 전선순회공연의 길에서 병사들의 옷도 빨아주고 밤이면 해진 옷까지 기워주면서 병사들을 성심성의로 돌보아주어 군인들의 《어머니》로 떠받들리였다.

막내딸 김현조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전쟁시기에는 인민군통신원으로 최전선에서 싸웠으며 제대된 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크나큰 신임속에 외국류학도 다녀왔다.

맏딸도 의사로 있으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애썼다.

목사자신도 전쟁시기 후방사업을 맡아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와 인민군부대들을 방문하는 과정에 수십차례나 적폭탄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용기백배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7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부터 로력훈장을 수여받게 되였다.

교인으로서 조국을 위해 응당한 일을 한 자기에게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안겨주시며 사랑에 사랑을 덧쌓아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그 사랑, 그 믿음에 비해 너무도 한 일이 적은 자기를 성쌓고 남은 돌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일군으로 믿어

주시는 그이의 하늘같은 사랑은 목사가 죽어서도 영원히 안기고싶은 복락의 세계였다.

목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시는 그 사랑에 자기의 여생을 깡그리 바쳐 보답하려는 하나의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남조선의 그리스도교인들과 인민들에게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조국통일방침들을 적극 선전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서 할 일이 많았지만 그는 남조선의 그리스도교인들과 인민들의 머리속에 깊이 인박힌 숭미, 공미사상과 반공사상을 뿌리빼기 위하여 많은 글들을 썼으며 자신이 직접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목사는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잘 알고있은 그때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멈추거나 뒤로 미루지 않았으며 자기가 걸어온 길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에서 부끄럼없는 길이였음을 긍지높이 총화할수 있었다.

1959년 5월 한 일군으로부터 김창준목사가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그는 그리스도교목사로서 지난 기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를 받들어 많은 일을 하였다고, 특히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온 세계에 폭로하는데서 공로가 있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시면서 그는 남조선그리스도교민주동맹 위원장이였지만

우리 당에서 장의식을 잘해주어야 한다고,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였던 그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하도록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목사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그의 자녀들을 친부모를 대신하여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돌이켜보면 인간세상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많고많아도 한 종교인에게 돌려주신 절세의 위인의 이토록 크나큰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기록된적이 없었다. 이것은 오직 인민을 하늘처럼 믿으시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넓고도 깊은 사랑이 안아온 위대한 인간사랑의 서사시라고 해야 할것이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목사가 사망한지 30여년세월이 지났지만 공화국에서 조국통일상이 제정되였을 때에는 그에게도 수상자의 영예를 안겨주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커다란 공로를 세운 애국자들을 안치하는 애국렬사릉에 그를 안치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한생 《하느님》만을 믿어온 그리스도교목사,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으면 죽어서도 《영생》을 얻는다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던 이 나라의 이름없는 한 종교인이 애국렬사들과 나란히 자신이 그처럼 갈구하던 영생의 언덕에 올랐을 때 유가족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들이 뜨거운 감동에 잠겨있었다.

영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원하여 몸부림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갈망하여 노래와 전설을 만들어냈던가.

그러나 인간이 그토록 바라던 영생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사람들은 육체는 죽어도 《령혼》만은 길이 남아 《천당》이나 《극락세계》에 가려고 종교를 만들어냈다.

했건만 종교에 대한 숭배도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하였다.

오로지 인민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의하여 영생에 대한 사람들의 소원이 참다운 빛을 볼수 있게 되였다.

오늘도 애국렬사릉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은 애국렬사 한사람한사람을 따뜻이 품에 안아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히 새겨주는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최고정화에 깊이 머리숙이며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루어줄수 없었던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감사의 큰절을 드리고있다.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는 렬사들속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김창준목사는 오늘도 말하고있을것이다.

— 누구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깊이 품고있으라.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위대한 태양의 품에 자기의 모든것, 자신의 오늘은 물론 후대들의 운명도 서슴없이 맡기라.

오직 그 품만을 믿고 따르며 그 손길이 가리키는 길을 따

라가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자기의 소망을 이루게 되리라.

그 품에서만이 인생은 영원한것이고 그 품이 있어 인간은 끝없는 행복만을 알게 되리라.

백두산위인들의 품은 만민을 안아 생을 주고 복을 주고 영생을 주는 위대한 태양의 품이다. —

목사는 생의 마지막시기에 이런 글을 남겼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장군 만세!》

백 남 운 편

저항의 길을 택하다 ·· 208

민족대단합의 격류속에서 ································ 215

공화국의 첫 교육상 ·· 233

크나큰 신임과 은총속에 ································ 247

생이 다할 때까지 ·· 251

경력

- 1897년 3월 19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출생
- 1918년－1924년 일본 도꾜 상과대학 졸업(정치경제학)
- 1924년－1938년 한성 연희전문학교 교수
- 1938년－1941년 서대문형무소 구금
- 1948년 3월 근로인민당 부위원장, 조선학술원 원장,
  민족문화연구소 소장, 민전의장
- 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에 참가
- 1948년 9월－1956년 교육상
- 1956년－1967년 과학원 원장
  1957년 12월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중앙위원
  1960년 12월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상무위원
  1961년 3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1967년－197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의장
- 1979년 6월 12일 사망
- 1990년 조국통일상 수상

집필한 도서

- 《조선사회경제사》(1933년)
- 《조선봉건사회경제사》(1937년)
- 《**김일성**동지의 영웅적위업》(1968년)

일본에서 고학으로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의 교단에 섰던 백남운선생의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조선사회경제사》이다.

일제가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를 압살하고 조선민족이라는 말자체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여있던 때 그가 이 책을 쓴것은 대단히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볼수 있었다.

한성 연희전문학교에 경제연구회라는 비합법적인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순한 학술연구단체를 혁명적인 색채가 짙은 적색연구회라는 조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주동적역할을 한 사람도 바로 백남운선생이였다.

나라가 해방되여 공화국에 내각이 조직될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러한 백남운선생을 첫 교육상으로 임명해주시였다.

그후에는 과학원 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의장으로도 내세워주시였다.

백남운선생을 애국애족의 길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기억하는 영생의 삶으로 빛내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고도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그의 생활의 갈피마다에서 찾아보느라면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저항의 길을 택하다

1897년 3월 전라북도 고창의 한 시골량반의 가정에서 둘째아들로 태여난 백남운선생은 엄격한 봉건량반가문에서 부모들로부터 한문을 배웠다.

16살까지 한문을 배우다가 종로 황성그리스도교 청년학부 종합부에 입학하여 2년간 공부하였고 18살 나는 해에는 수원에 있는 농림학교에 갔다.

1913년부터 이곳에서 받은 신식교육과 학교생활이 그의 생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가 졸업후 《거친 음식도 맛이 있고 괴로움도 즐거웠다. 과학적정신이 길러지는 곳, 기쁨이 가득한 생활이 잠자는 곳》이였다고 이때의 생활을 추억한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수원농림학교시절은 지식을 갈망하던 그에게 목마른이가 정갈한 샘물을 찾은것과 같은 만족감을 주었고 새 세계에 대한 넓은 안목을 열어준 계기로 되였던것이다.

1916년 학교를 졸업한 백남운선생은 강화보통학교에서 교원생활을 하면서 일본류학을 결심하고 1918년에 일본류학의 길

에 올랐다.

일제와 그에 기생하여 겨레의 고혈을 짜내는 착취계급에 대한 울분을 참을수 없었던 백남운선생은 그 시기 조선의 지식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조인 맑스주의에 심취되게 되였다.

일본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새로운 사조를 파악하는 동시에 스스로 조선경제사를 맑스주의적립장에서 개척할것을 지향하였다.

하숙집주인이 운영하는 좌익경향의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였던 백남운선생의 관심을 끌었고 출판사의 일을 도와주는 과정에 사회주의에 깊숙이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수년간의 고학끝에 도꾜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백남운선생은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하게 되였다.

도꾜에서 맑스주의리론의 기초를 닦은 백남운선생은 연희전문학교에 있는 동안 경제사학의 리론을 더욱 심화시켰고 그 리론을 조선사에 적용하는 연구도 진행하였다.

조선사연구에서는 유물론사학을 개척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황민화》정책에 대한 도전의 첫걸음에 지나지 않았다.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맑스주의경제학을 소개하던 리순탁과 함께 경제사를 가르치던 백남운선생은 사회주의

운동을 지향하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경제연구회라는 학술단체를 만들었다.

그는 이들에게 새 사조를 주입시키는 동시에 조선경제의 구체적비판을 전개하면서 조선경제사집필을 다그쳤다.

그 당시 백남운선생이 민족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것은 1927년에 쓴 《조선자치운동에 대한 사회학적고찰》이라는 글을 보면 잘 알수 있다.

이 글은 민원식의 자치론, 리광수의 《민족적경륜》에서 표현된 자치론 그리고 1926년에 조직하려던 《연정회》의 자치운동 등 자치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여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에 비판을 가한 글이였다.

이 글이 발표되자 자치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반격이 벌집쑤셔놓은것처럼 일어나게 되였으며 이로 하여 일본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였다.

그는 그해에 《조선계에 대한 사회학적고찰》이라는 글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사를 리해하는데 있어 력사의 특수성과 일반성의 문제 즉 맑스주의력사학을 적용하는 론리에 대한 방향을 제기하고있는 글이라고 할수 있었다.

1932년에 쓴 《향약의 부활에 대하여》라는 글은 당시 현실문제에 대한 글로서 우리 나라의 봉건적잔재가 일본식민주의와 밀착되여가는데 대한 비판론문이였다.

이 시기에 맑스주의에 기초한 조선경제사연구라는 그의 학

문적틀도 완성되였다.

자기의 전공인 사회경제학연구를 계속하는 과정에 백남운선생은 일제가 식민지정책을 미화분식할 목적밑에 내걸었던 《일선동조》론과 친일역적 최남선의 《문화사관》의 부당성을 깨닫게 되고 그 부당성을 론증하였을뿐아니라 계급투쟁의 관점에 서서 1933년에 우리 나라의 력사를 분석한 《조선사회경제사》라는 론문을 집필하였다.

《조선사회경제사》는 조선민족의 형성으로부터 유구한 력사와 함께 독자적인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발전하여온 조선사회경제발전과정을 비교적 력사적인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서술한것이다.

조선의 원시, 고대, 중세의 사회경제에 관한 연구는 조선의 경제사학발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였다.

특히 일제가 민족경제를 압살하고 조선민족이라는 말자체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였을 때 백남운선생이 조선의 사회경제사를 쓴것은 애국적인 행동이였고 일제의 《황민화》정책에 대한 도전이였다.

《조선사회경제사》는 일제어용학자들의 《일선동조》론을 론박하고 반일기운을 고취한 내용 등으로 하여 학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백남운선생이 근 10년간의 피타는 고심끝에 완성한 이 글이 발표되자 《조선학연구를 한단계 우로 올려놓았다.》며 학

계가 끊었다.

1937년에 그는 조선사회의 특수성을 해명하고 이미 발행된 《조선사회경제사》의 부족점을 보완하는 《조선봉건사회경제사》사전을 집필하였다.

연희전문학교시절 그의 반일애국적인 활동에서 특히 주목할것은 동료교수들과 학생들을 규합하여 단순한 학술단체였던 경제연구회를 적색연구회라는 혁명적인 색채가 짙은 지하조직으로 발전시켜나간것이다.

그것은 항일유격대 정치공작원과의 련계가 이루어진것과 밀접히 련관되여있었다.

국내로 떠나가는 정치공작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니가 있어서 자식이 있는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민족의 품에서 태여나며 죽어서도 민족을 떠날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민족이라는 한집안에서 하나의 피줄로 이어져있다, 그러므로 민족을 지키는 투쟁에서는 주인과 손님이 따로 있을수 없다, 혁명도 민족을 위해 하는것이며 무장투쟁도 민족을 지키기 위해 하는것이다, 우리가 되찾자고 하는것은 조국의 땅덩어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력사와 문화, 민족 그자체이다, 때문에 동무들은 전민항쟁준비를 잘하며 학자들, 교육가들, 언론인들, 문예인들을 비롯한 광범한 지식계층속에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여 그들모두가 민족의 얼을 지키는 불꽃이 되고 총탄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군 하시였다.

정치공작원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의도를 알게 된 백남운선생이 속한 적색연구회 성원들은 방학때에는 모두 대중속에 들어가 계몽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당시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발행한 《최근에 있어서의 조선치안상황》이라는 관헌자료에는 적색연구회가 공산혁명달성의 목적밑에 연구토론회, 강습회, 독서회 등을 열어 회원들에게 선진사상주입과 선전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해왔다고 씌여있다.

백남운선생은 항일유격대의 보천보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사람들속에서 퍼져나오는 항일유격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한겨울에 뜨뜻한 방에서 편안히 지내는것이 죄스럽기만하여 찬 랭돌바닥에서 지냈으며 무엇인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일에 하나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널리 선전하는 사업에 앞장섰고 보천보의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돌아온 려운형을 초빙하여 강연도 조직하였다.

1938년말에 일제는 연희전문학교에 적색연구회라는 비밀결사가 있었다는 혐의로 그 련루자들을 검거하였다.

백남운선생도 동료교수들과 함께 잡혀갔다가 1941년 7월경에야 풀려나왔다.

감옥에서 나온 뒤 백남운선생은 이러저러하게 일제의 혹독

한 위협공갈을 받았지만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무직으로 은거생활을 하면서 《조선봉건왕조실록》을 번역하여 발취하였다고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38년말에 <동아일보>는 서울 연희전문학교에 적색연구회라는 비밀결사가 있었다는 혐의로 그 련루자들이 검거되였다는 기사를 실어 독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공화국의 초대교육상이였던 백남운도 적색연구회의 조직성원이였습니다.

굴복하면 <사람대접>을 받고 저항하면 짐승취급을 당하던 험악한 세월에 백남운은 지식인으로서 민족성을 고수하고 견지하는 저항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평가하시였듯이 그가 《조선사회경제사》라는 글을 쓴것이라든가, 경제연구회를 적색연구회로 발전시킨것이라든가, 《조선봉건왕조실록》을 번역하기로 마음먹은것은 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황민화》정책에 대한 도전이였다.

이렇듯 백남운선생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불우한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애국의 뜻을 품고 반일의 길에서 민족적량심을 꿋꿋이 지켜냈다.

민족대단합의 격류속에서

나라가 해방된 다음 백남운선생은 남조선신민당 위원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인민의 새세상, 북반부에로 마냥 쏠리였다.

강도 일제를 격멸소탕하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께서 평양에 개선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그는 평양으로 달려가고싶은 마음을 걷잡을수 없었다.

해방직후 서울에서 홍명희, 허헌 등 유명한 애국인사들과 함께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항일유격대의 정치공작원이였던 최일천이 쓴 도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를 출판하는 일에도 학술원 원장으로서 발벗고 나섰던 백남운선생이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당시 신민당의 당수로 있던 그에게 꿈같은 행운의 시각이 다가왔다.

평양을 다녀온 한 신민당관계자로부터 자신에 대한 크나큰 믿음이 담겨진 어버이수령님의 은정깊은 교시를 전달받은 것이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서울에서 온 남조선로동당창당준비위원회 신민당측 상무위원을 친히 만나주신 자리에서 원래 그는 량심적인 학자로서 애국적민주운동에 나선 사람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고 한다.

그러시고는 그가 남조선에서 진행되고있는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창립하기 위한 합동사업에 신민당 당수로서 크게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믿음도 안겨주시였다는것이였다.

백남운선생은 황송하기도 하고 한편 부끄럽기도 하여 몸둘바를 몰랐다.

사실 그가 당수로 있는 신민당으로 말하면 그처럼 고대하던 해방을 맞이한 후 새 조국건설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할 일념밑에 량심적인 지식인들을 비롯하여 경제계의 인사들과 얼마 안되는 지지자들이 망라되여있던 독립동맹 서울특별위원회를 명색상 정당으로 개칭한데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아무리 작은것이라도 애국을 위한것이라면 소중히 여기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아직 강령이나 기본임무도 명확한것이 없고 정당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신민당이였지만 그와 동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있는 애국의 뜻을 굳게 믿으시고 공산당, 인민당과 합동하여 근로대중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 성스럽고도 보람찬 투쟁에 불러주신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은 백남운선생은 형언할수 없는 흥분과 함께 그이의 믿음에 보답할 열의로 뜨겁게 달아

올랐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어버이수령님의 독창적인 통일전선사상과 높으신 뜻을 미처 헤아릴수 없었던 그는 3당합동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있지 못한데로부터 남조선공산당의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고있던자들의 분파적인 행위에 격분한 나머지 제3의 이른바 《사회로동당》을 내오기까지 하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되였다.

그에만 그친것이 아니였다.

그는 외세가 남조선에 식민지지반을 구축하고 민주력량을 사분오렬시키려는 목적밑에 꾸며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의 《좌우합작》놀음에 은근히 기대를 걸기도 하였다.

결국 외세와 그에 야합한 반동들의 집요하고도 간교한 리간술책에 넘어가 갈팡질팡하던 백남운선생은 끝내 민주진영으로부터 《분렬주의자》, 《우익기회주의자》로 지탄받고 정계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일제의 식민지탄압속에서도 꺾일줄 몰랐던 애국적신념과 량심을 해방된 제 나라, 제땅에서 어지럽힌 백남운선생은 억울함도 없지 않았지만 달리 어쩌는수가 없었다.

아, 과연 나의 운명이 이렇게 되는가.

가슴을 쥐여뜯으며 통탄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어느 누구도 돌아보는이가 없었고 친지들도 외면하였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는 어느 정도 참을수 있었다.

그보다도 그를 못견디게 괴롭힌것은 그처럼 굳게 믿으시고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린데 대한 뼈저린 죄책감이였다.

실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엄중했고 용서를 바란다는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였다.

그는 모진 광풍을 만나 날개를 무참히 꺾이우고 자그마한 돌멩이처럼 무섭게 땅에 내려꽂히는 새의 운명도 자기보다는 나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향방을 잃고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여버린 백남운선생이 이루 형언할수 없는 고독과 허탈감속에서 방황하고있을 때 그의 정치적운명을 두고 누구보다 더 가슴아파하시며 잠 못 이루신분이 바로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시시각각으로 박두해오고있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위기를 벌써부터 절감하고계시던 수령님께서는 백남운선생의 문제를 단순히 남조선의 민주진영내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분렬행위나 우연한 대립현상으로만 보지 않으시였다.

장차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여 우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통일적인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면하여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였던것이다.

이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근로대중의 정당들의 단결에 저애

를 주는 일체 분파행동을 극복하며 투쟁강령과 활동목적, 근본리익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굳게 뭉칠데 대한 가장 공명정대한 방침을 제시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느날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때 일군들에게 합동문제에 대한 백남운선생의 립장과 태도가 아무리 그릇된것이라 할지라도 그를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민족적량심도 있고 애국심도 지니고있는 그가 여전히 근로민중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진정 온 우주도 무르녹일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하해같은 믿음은 본의아니게 나라와 민족앞에 죄를 짓고 영영 매장될번 하였던 백남운선생으로 하여금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나게 한 재생의 자양분, 새 삶의 원동력이였다.

그리하여 남조선민주력량의 단합에서 백해무익한 존재이며 분파의 산물이였던 《사회로동당》이 해체되고 1947년 5월 광범한 중간계층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사명을 지닌 근로인민당이 결성된 후 그는 부위원장이라는 중임까지 지니게 되였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후 근로인민당을 비롯하여 12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정당협의회가 우리 나라에서 쏘미 량군철수와 민주주의적통일정부수립을 행동강령으로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을 호소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고 백남운선생에게 거듭 크나큰 믿음을 베풀어주시였다.

1948년 3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분렬시키려는 미제와 리승만도당의 음모책동을 북과 남의 단합된 힘으로 분쇄하고 우리 인민의 힘으로 조국의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는 남북련석회의 초대장을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에게 보내실 때에도 백남운선생을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존함이 모셔진 초대장을 보내주시였다.

정치무대에서 사라질번 하였던 그는 이렇게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민족의 단합을 위한 애국위업에 나설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이것은 그에게 다시없을 행운이였다.

그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검질긴 검거소동과 악랄한 방해책동을 과감히 박차고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러나 그 흥분의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그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무상의 영광을 받아안게 되였다.

련석회의를 앞둔 시각에 그처럼 오매불망 뵙고싶던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를 친히 만나주신것이다.

마치 오래전에 헤여졌던 구면지기를 만나신듯 다정히 이름을 불러주시며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다고 따뜻이 위로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앞에서 그는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서울

에서부터 가슴깊이 품고 온 인사말을 드리는것조차 까마득히 잊고 그이께 자기의 두손을 맡긴채 그냥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신 삼십대의 혈기가 한껏 넘쳐나는 름름하신 그 기상에 끝없이 밝고 전도양양한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다 담겨진것만 같아 그이께 온넋을 맡기고 황홀경에 휩싸여있었다.

한참이나 무아경에 잠겨있던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전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과분한 평가의 교시를 주실 때 다시 한번 세찬 격정의 파도에 휘감기고야말았다.

정말이지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자기는 그 시기에 조선의 사회경제사를 집필하고 《조선봉건왕조실록》을 초록할 엄두도 낼수 없었을것이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백남운선생은 연희전문학교내의 학술조직을 일제를 반대하는 비밀결사조직으로 발전시키고 반일의식화활동을 벌린것과 자기가 보천보전투소식을 들은 그해 겨울부터 서재로 쓰는 방의 난로에 불을 때지 않고 랭방에서 강짜로 지낸 사실까지도 수령님께서 죄다 알고계시는것이 놀랍기만 하였다.

그래서 그는 《장군님,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춘하추동 사계절 가랑잎을 덮고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나라의 광복을

위하여 풍찬로숙하시는 장군님에 대한 도의감을 지닌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하였을 평범한 일이 아니옵니까.》라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아뢰였다.

그런데도 한없이 겸허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잃은 불우한 지식인으로서 응당한 도리를 지킨데 지나지 않은 그의 소행을 두고 애국적행동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는것이 아닌가.

더우기 해방후 서울에서 3당합동시에 범했던 과오며 려운형선생이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에 의해 희생된 후 근로인민당지도부내에서 발생했던 권력다툼에 대하여 탓하실 대신 힘과 고무를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뜻깊은 말씀은 그의 심장을 세차게 울렸다.

마음속으로 뜨거운것을 삼키며 예비회의에 이어 모란봉극장에서 열린 련석회의 본회의에 참가했던 그는 또다시 뜨거운 격정에 휩싸이게 되였다.

한때 일시적이나마 민주진영내에 분렬을 조장한 책임을 지고 정치무대에서 제거되다십이 했던 부끄러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력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전민족적인 대회합에 남북조선 수백명 대표들중의 한사람으로 선출된것도 꿈처럼 믿기 어려운 일인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주석단에까지 내세워주시였던것이다.

만장을 진감하는 축하의 박수소리에 실려 주석단에 올라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는 대표들의 정열에 넘친 모습들을 하

나하나 눈여겨보는 그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개중에는 반공을 필생의 좌우명처럼 력설하며 한생을 민족주의로 늙어온 두루마기로인들도 보이였고 한때 미국을 우상화하면서 리승만을 지지해나섰던 정객들도 있었기때문이였다.

놀라운것은 대부분이 자기처럼 애국애족을 한다면서 무사분주히 뛰여다녔지만 공적보다는 과오가 더 많은 사람들이라는것이였다.

그처럼 평소에 서로 원쑤 대하듯 하면서 지어 죽일내기까지 하던 그들이 마주앉기조차 꺼려하던 과거는 언제이던가싶게 어깨나란히 앉아 주석단을 향해 너나없이 박수를 보내고있었다.

후날 백남운선생은 그날의 감회를 두고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썼다.

《물론 잊을수 없는 4월남북련석회의는 8.15후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국의 <단선단정>조작책동으로 인하여 우리 겨레앞에 조성된 국토량단의 엄중한 위기를 타개하려는 력사적인 취지에서 볼 때 중차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수 있었다.

허나 그때 나를 못견디게 흥분시킨것은 그보다도 계급적처지와 정당소속, 정견과 신앙, 생활경위가 판이한 남과 북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앉아 흉금을 터놓고 나라와 겨레를 구원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한것

이였다. …

돌이켜보노니 5천년을 헤아리는 파란많은 배달민족의 갈피속에 나라와 겨레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경각의 시기는 허다했건만 가물가물 꺼져가는 그 가엾은 운명을 건지고저 재산의 유무와 귀천을 막론하고 사심없이 무릎을 마주한적 언제 한번이나 있었던가. …

묻노니 애국의 뜻은 품었어도 외세에 짓밟히고 권세에 유혹되여 본연의 웅지는 간 곳없이 뿔뿔이 흩어져 아귀다툼만 일삼던이들 개개인의 량심을 일깨워 고금동서에 다시없을 애국애족의 대회합을 마련해주신분은 과연 뉘신가.

아, 그분은 천연암벽도 단숨에 녹여내릴 열화같은 인간애와 무변대해에도 견줄수 없는 넓은 도량, 한없이 소탈한 풍모, 하늘도 머리숙일 거대한 포옹력과 고결한 덕망으로 겨레를 한품에 휩싸안고계시는 **김일성**장군님이시다. …》

이러한 그의 심정은 일찌기 백두광야를 주름잡으며 력사에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혈전을 벌리시는 나날에 벌써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조선사람들을 계급과 계층, 리념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는 대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으시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결성하시여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하신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서 우러나오는것이였다.

또한 해방직후 조국인민들과 개선인사를 나누시는 감격적인 연단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부강한 새 조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한 애국애족의 로선을 제시하시고 해방의 열의에 넘쳐있는 그들을 건국위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시여 2～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민주의 락원을 일떠세우신 걸출한 령도자에 대한 북받쳐오르는 경모의 마음의 분출이였다.

하기에 백남운선생은 축사의 연단을 빌어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오늘 이 회의를 이곳에서 성립하도록 하고 또 그 성공을 미리 보장하고있는 북조선의 광휘있는 민주세력의 제 사업을 인민의 선두에서 인도하고 통일적민주주의인민정권의 확고부동한 지반을 조성하여주신 조선민족의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위원장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

티끌만 한 가식도 꾸밈도 없는 그의 진심의 목소리는 회의 두번째 날에도 온 회의장에 울려퍼졌다.

그날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을 대표하여 《남조선의 현 정치정세에 대한 보고》를 백남운선생이 하였던것이다.

그는 자기의 생활체험까지 렬거해가며 암담한 남조선의 정치정세를 신생의 기상이 차넘치는 북반부와 대비하였고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모신 남다른 민족적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긍지높이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장군님께서 력사적인 보고에서 제시하신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주체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통일정부를 세울데 대한 방침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앞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하면서도 유일무이한 통일방안이며 민족적량심과 애국의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파와 소속,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배제하고 민족대단합에로 부르시는 그이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민족의 위대한 은인을 모시여 백남운선생은 수난많은 세월과 더불어 인생의 절망감속에서 헤매이다가 마침내 애국애족의 광휘로운 해발을 받아안고 새 삶의 환희와 격동에 넘쳐있을수 있었던것이다.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가 성과적으로 막을 내린 후였다.

련석회의를 경축하는 예술공연과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을 지지하는 평양시민대회 그리고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 등 여러 정치행사들과 모임들에 백남운선생을 참가시켜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경치가 아름다운 대동강 한가운데 있는 쑥섬에서 련석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대책을 토의하실 때에도 홍명희, 김구, 김규식 등 명망높은 인사들과 함께 백남운선생도 불러주시였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날 한 일군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북련석회의

에 참가한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분들인것만큼 우리가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백남운선생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꼽으시며 옷을 성의껏 잘 만들어주자고 하시였다.

이런 사연을 알리 없는 백남운선생은 며칠후 새옷을 받아안았을 때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백남운선생, 기뻐하십시오. **김일성**장군님께서와 김정숙녀사께서 선생에게 새옷을 보내주시였습니다.》

《예?! 장군님께서와 녀사께서요?!》

전달하는 일군도, 반문하는 그도 떨리는 목소리였다.

《어서 한번 입어보십시오. 선생의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김정숙녀사께서 친히 색갈과 모양까지 보아주신 옷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녀사께서 잊지 말고 꼭 함께 보내주라고 신신당부하신 모자와 신발입니다.》

《…》

옷은 신통히도 그의 몸에 꼭 맞았다.

그리고 색갈과 모양새도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신비할 정도였다.

일군이 백남운에게 아예 다른 사람같아 보인다며 연거퍼 탄복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울고있었다.

온몸을 따뜻이 품어안아주고 마음까지도 후덥게 감싸안아

주는 백두산위인들의 사랑이 너무도 뜨거웠던것이였다.

세상에 이보다 더 다심하고 살뜰한 은정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문득 그는 누군가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근로인민당 당수였던 려운형이 **김일성**장군님께 맡긴 두 딸을 백두산시절부터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싸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친히 저택에까지 데려다가 친자식처럼 돌봐주셨다는 들을수록 놀라운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주시는 백두산위인들의 사랑에 목이 메여 종시 새옷우에 눈물자욱을 남기고야말았다.

어느날 백남운선생은 또 다른 감격적인 사실에 접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배려로 금강산에 가서 휴식의 나날을 보내게 되였던것이다.

그가 20여일간에 걸치는 즐거운 휴식을 마치고 강원도에서 올라온지 이틀째 되는 그해 6월 22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청사집무실로 백남운선생을 불러주시였다.

《백남운선생, 어서 오십시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따뜻이 맞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뵈옵자 그는 자신이 알게 모르게 받아안은 은정과 배려가 일시에 모두 떠오르면서 사무쳤던 격정마저 새로워짐을 느

끼지 않을수 없었다.

《장군님, 이번에 장군님의 배려로 금강산에까지 가서 충분히 휴식하고 왔는데 무슨 탈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그가 진정어린 목소리로 말씀드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건강하다니 매우 기쁘다고 하시면서 화제를 돌리시여 지난 4월 남북련석회의에서 국토완정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전조선인민이 떨쳐나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데 대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 의하여 지금 남조선에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로 구성된 식민지《정부》가 서는것이 목전에 다달았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백남운선생은 이에 무어라고 대답을 드릴수 없었다.

그러지 않아도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했던 수많은 남조선대표들과 마찬가지로 날로 첨예해지는 분렬의 위기를 직감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전전긍긍해있기만 하였던것이다.

예지가 빛나는 안광으로 백남운선생을 잠시 바라보고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놈들의 식민지적이며 매국배족적인 책동에 대하여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단독정부》를 세울것이 아니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써 전조선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미국이 남반부를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며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외세에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행위에 대하여 성명이나

발표하고 우리의 립장이나 표명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수 없다고, 결정적으로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시면서 남북조선 전 지역에 걸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립법기관을 세우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실시하며 통일적인 중앙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려고 한다는데 대하여 힘있게 강조하시였다.

순간 백남운선생은 눈앞이 시원하게 확 트이는것만 같았다.

마치 복잡하게 뒤엉켰던 실토리가 한꺼번에 풀리고 막혔던 물목이 일시에 열린듯 가슴이 후련해지기까지 하였다.

그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어버이수령님앞이라는것도 감감 잊고 아이들처럼 신이 나서 《장군님의 방침이야말로 현시기 국난을 타개할수 있는 아주 현명한 방침이옵니다.》라고 큰소리로 말씀올렸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소탈하게 웃으시며 이와 같은 결정적인 구국대책을 세우기 위해 이달 말경에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남조선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도 선생과 같은 립장인것만큼 근로인민당에서도 보고를 준비하였다가 협의회에 제기하라는 뜨거운 믿음의 교시를 주시였다.

그리고 그에게 남조선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함께 오늘부터 우산장에 가서 충분히 휴식하면서 앞으로 토의

하게 될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의논하여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는것이였다.

그는 마음속으로부터 솟구치는 눈물을 가까스로 삼키였다.

《이제야 우리 조선이 진짜 주인을 만났소.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겨레가 일일천추로 바라마지 않던 구세주가 아니겠소.

이것저것 볼것 없이 **김일성**장군님만 믿고 받들어 일하면 우리 민족은 살길이 열리오.》

민족주의만이 정통애국주의라고 고집하면서 남조선정치의 일인자로 자처해나서던 완고한 김구가 련석회의를 마치고 서울로 나가기에 앞서 했다는 이 말은 정말이지 자기의 심정 그대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뵈옵고 지금껏 목격할수 없었던 위인상을 체험한 백남운선생은 비록 문필가는 아니지만 붓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속의 충동을 억제할수 없었다.

일찌기 일본제국주의의 압제아래 피눈물나는 암담한 처지에서 헤매이고 질식당하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존함과도 같이 민족의 태양이였고 유일무이한 희망이였던 **김일성**장군.

여적 보아온 공산주의자들과는 달리 사대와 교조가 아니라 강한 자주정치를 펼치시며 계급보다 민족을 우선시하시는 새형의 진정한 공산주의자.

사람들의 상상력과 년령기를 무색케 하는 거대한 친화력과

포옹력으로 그처럼 짧은 시일내에 그것도 극도의 반공사상에 물젖어있던 사람들을 련공애국의 길로 돌려세워 민족대단합의 경륜을 마련하신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가…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품은 정처없이 방황하던 형형색색의 인간들까지도 너나없이 떠날래야 떠날수 없는 운명의 보금자리로, 자기들의 애국적삶이 활짝 꽃펴날 토양으로 여기고 따르는 진정한 삶의 품이였다.

어제는 불신으로 메말랐던 가슴에 쇠물보다 뜨거운 믿음과 정을 부어주시고 오늘은 진정한 애국의 길로 함께 가자고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이 사랑.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부터인지 알수 없으나 지심깊이 뿌리박고 나날이 더욱 푸르러만지는 억센 소나무마냥 변함없을 하나의 의지가 샘솟고있었으니 그것은 후에 쓴 그의 수기의 글줄마다에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버이수령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그 품에 운명을 맡길 결심을 한것은 내가 결코 남보다 공부를 많이 한 학자이거나 남달리 영민해서가 아니였다.

그것은 남과 북에 살건 그 어떤 정견과 신앙을 지녔건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령도자로 모신 조선사람이라면 절대 달리될수 없었던 운명의 필연적인 선택이였고 그 귀결이였다.

누구든 말해보라, 그 아무리 수치스럽고 욕된 과오라 할지라도 일절 불문에 붙이고 운명의 각이한 행로를 걸어온 각

양각색의 인간들을 애국의 대오에 한사람같이 내세워주시는 그 넓은 도량과 인품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자 그 누구이며 민족자주의 기상이 나래치고 겨레의 번영이 담보되여있는 그 품을 따르지 않을자 그 어디에 있으랴…》

정녕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떠나서는 애국은 고사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커녕 자기 개인의 운명도 다시 비참해질수밖에 없음을 피눈물로 절감한 그였기에 민족의 륭성번영과 창창한 래일이 확고히 기약되여있는 어버이수령님의 품, 단재가 그토록 념원하며 그려보던 꿈하늘세상같은 공화국에 백남운선생은 영원한 삶의 닻을 내릴수 있었던것이다.

공화국의 첫 교육상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의 총선거에 의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던 1948년 9월초 어느날이였다.

가을이라고는 하지만 해별이 재글재글 내려쪼이고 가끔 소슬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오는 쾌청한 날이였다.

이날 백남운선생을 집무실로 불러주시고 자리를 함께 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수립되는 공화국정부가 실시할 교

육정책의 인민적성격과 내용들이며 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그리시고는 백남운선생에게 선생은 과학자인데 자기의 전문과는 좀 어긋날지 모르지만 우리 나라 후대교육과 간부양성사업을 맡아주어야 하겠다고, 나라의 후대교육을 담당한 공화국 교육상을 맡아주면 고맙겠다고 하시는것이였다.

그는 크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교육자의 년한을 가지고있다고는 하지만 기껏해야 전문학교교원으로 몇해 있은것뿐인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것이 어설픈 자기를 굳게 믿으시고 나라의 미래를 통채로 떠맡겨주시는것이 아닌가.

너무도 아름찬 중임앞에서 망설이던 그는 가까스로 용기를 내여 어버이수령님께 그 신임은 고맙지만 능력이 딸려 감당해낼것 같지 못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가 그러리라고 짐작하고계신듯 그의 손까지 잡아주시면서 그런 겸손한 말은 그만두고 꼭 이 사업을 맡아주셔야겠다고 하시는것이였다.

그리신 후 다시 미더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새 나라, 새 사회건설에서 선생 같은 지식있는 간부들이 매우 귀중하다고, 우리 지혜와 힘을 합쳐 일제가 남긴 식민지노예교육의 잔재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전체 인민이 마음껏 배울수 있는 교육정책을 실시해나가자고

간곡한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며칠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시는 력사적인 자리에서 백남운선생을 공화국의 첫 교육상으로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신임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날 밤 그는 자기가 받아안은 영광과 행복이 꿈만 같고 믿어지지 않아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한다.

망국노의 처지에서 식민지지식인의 치욕도 맛보았고 원쑤들이 살판치는 남녘땅에서 번뇌에 찬 나날을 보낸적도 있는 자신이 공화국의 새 력사와 더불어 그처럼 값높은 삶을 지니게 될줄 언제 한번 감히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그 고마움을 새길수록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드는데서 자기의 준비정도가 너무 어리고 미숙하면 어쩌나 하는 근심이 커만 갔다.

그의 이런 남모르는 마음속의 고충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가 교육상으로 사업을 시작한지 10여일쯤 되여오던 1948년 9월 하순 어느날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토의하는 내각인민회의를 마련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교육부문에 아직 남아있는 일제식, 부르죠아식학교관리운영방법의 잔재에 대하여 일일이

지적하시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교육제도에 맞는 건전한 학교관리운영체계를 세우며 학용품과 교과서를 눅은 값으로 공급하여 지난날 돈이 없어서 배울래야 배울수 없었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계급출신 새 세대들의 교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백남운선생의 놀라움은 비할바없이 컸다.

아무리 민족의 미래와 관련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워낙 방대한 자금이 들고 그 효률성도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교육부문에 그것도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그런 막대한 투자를 기울인다는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기때문이였다.

그로부터 몇달이 지난 12월 중순의 어느날 어떻게 해서든지 1950년도부터 전반적초중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그 준비사업을 미리부터 잘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또다시 받아안은 그는 그때에야 비로소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가를 깊이 뉘우치게 되였다.

교육사업을 결코 자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실무적사업이 아니라 민족의 흥망과 직결되는 중대사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켜나가야 할 선차적인 분야로 보시고 교육사업에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교육사상에 머리가 숙어진것이였다.

그래서 해방직후 건당, 건국, 건군위업을 이룩해나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차회의 첫 의정으로 온 나라의 어린이들과 문맹자들의 교육에 필요한 연필생산문제를 상정하도록 해주신것이였구나.

아, 그래서 나라의 방방곡곡을 다니시며 인민들의 생활을 보살펴주실 때에도 아이들의 학교부터 먼저 찾아주시고 새로 지은 학교의 이름도 깊은 의미를 담으시여 친히 《삼흥중학교》라고 달아주신것이였구나.

그는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그의 눈앞에는 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헤아릴수 없을만큼 나라의 도처에 우후죽순처럼 새로 솟아난 학교들이 그대로 안겨왔다.

그 심오하고도 원대한 교육사상의 시원은 그 어디인가.

간고했던 항일전의 나날 왜놈들의 겹겹포위속에 있는 유격근거지에서 벌써 빛나는 실천으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의무무료교육제도도 결국 이 주체적인 교육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이 아니던가.

그의 생각은 차츰 깊어갔다.

인류사회가 형성된 시기부터 교육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인간생활과 떼여놓을수 없는 불가분리의 한 부분으로 되여왔다.

대개 교육자들이기도 했던 동서고금의 수많은 이름있는 철

학가, 정치가들이 교육에 대하여 제나름대로 내린 정의를 보더라도 인간에게 지식을 배워준다는 의미이상 더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심지어 어떤 정치가들은 교육을 통치와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교육은 그 어떤 가르침이기 전에 인간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여야 한다는 세상의 그 어느 고전에도 있어본적이 없는 독창적인 교육관을 지니고계신다.

파고들면 들수록 가장 숭고한 교육관에서 출발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에 감복을 금할수 없었던 백남운선생은 그이께서 그처럼 중시하시는 민족간부양성사업과 후대교육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리라 굳게 마음다지였다.

이것은 나라의 교육사업을 책임진 상으로서만이 아니라 민족의 한 지식인으로서도 너무도 마땅한 도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그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공화국이 창건된 이듬해 봄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을 친솔하시고 력사적인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실때였다.

백남운선생을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불러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출발에 앞서 그를 친히 만나주시고 이번 방문기간에 사

회주의건설을 위한 다른 나라 인민들의 투쟁과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많이 연구하고 돌아와서 더 많은 일을 하자고 하시면서 외국방문기간에 해야 할 사업까지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던 전화의 나날에도 그에게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신임과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백남운선생은 지금 교원들까지도 손에 총을 들고 전선으로 달려나가는 이때 교육상이 할 일이 무엇인가, 차라리 나이때문에 참군할수 없다면 딸처럼 정치공작대원으로라도 싸움터에 나갈수 없을가 하는 《기발한 착상》을 무르익히고있었다.

그런데 1950년 7월초 그는 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백남운선생을 최고사령부의 작전대결으로 불러주시고 《조선봉건왕조실록》을 구출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여야 하겠다고, 《조선봉건왕조실록》은 우리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재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지금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이 도발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조국이 시련을 겪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적들에 의하여 파괴소각되거나 도난당하고있다고, 《조선봉건왕조실록》도 피해를 입거나 없어질수 있다고, 우리는 이에 대하여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다고 하시

면서 민족의 귀중한 재보인 《조선봉건왕조실록》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선봉건왕조실록》을 반드시 구출해야 한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조선봉건왕조실록》과는 어지간히 인연이 있는 그로서도 너무도 뜻밖이여서 아무 말씀도 드릴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물론 전시의 어려운 조건에서 그 방대한 《조선봉건왕조실록》을 사소한 손상도 없이 구출한다는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조선봉건왕조실록》을 후방의 안전한 장소에 옮기고 잘 보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교육성에서 《조선봉건왕조실록》구출사업을 책임적으로 할수 있는 우수한 일군들을 선발하여 시급히 서울로 파견하여야 하겠다고, 모든 기관들과 인민군부대들에서 《조선봉건왕조실록》구출사업을 잘 보장하여주도록 하기 위하여 동무들에게 나의 명의로 된 신임장을 주겠다고, 《조선봉건왕조실록》을 운반해올수 있도록 군용자동차를 동원시켜주겠다고, 그리고 서울에 주둔하고있는 인민군부대에 지시하여 《조선봉건왕조실록》의 운반을 적극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눈물이 샘솟듯 흘러나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온 나라가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전투마당으로 화하고 군대와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결사전에

떨쳐나 전선에 단 한명의 군인, 한대의 자동차가 더 긴요한 이 시기에 천수백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조선봉건왕조실록》을 구출하시려고 수많은 군인들과 군용자동차들까지 동원되는 하나의 대작전을 펼치고계시는것이 아닌가.

철과 철이 서로 맞부딪치고 불과 불이 대결하는 이 전장에서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정까지 합쳐 백남운선생은 어버이수령님께 이렇게 아뢰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주의자들도 애국자라고 하셨지만 진정으로 조국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민족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만고의 애국자, 절세의 위인은 오직 수령님 한분뿐이십니다. …》

가렬한 전화의 불길속에서 무장호송까지 달린 군용자동차에 실려 포성과 폭음을 모르는 안전한 곳에 보관되여 오늘까지도 원상그대로 전해지고있는 《조선봉건왕조실록》!

《조선봉건왕조실록》에는 당대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와 풍습 그리고 외교분야의 자료들이 풍부하게 수록되여있었으며 주변나라의 일부 력사와 문화와 관련한 자료들도 담겨져있었다.

민족문화유산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어버이수령님의 대용단에 의해 《조선봉건왕조실록》구출작전이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와중에 이루어지는 경이적인 사변이 일어난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임무를 받은 교육성의 일군들과 학자들이

폭격과 전투로 수라장이 되여있는 서울시내를 발칵 뒤져나가며 무진 애를 쓰다가 규장각에서 한구석에 쓰레기처럼 뒹굴고있는 《조선봉건왕조실록》을 찾아내였다. 그것을 학자들이 달라붙어 분류하여 평양으로 군용자동차들에 실어보냈다.

이렇게 되여 사장될번 했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인 《조선봉건왕조실록》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파괴되거나 소각되지 않고 기적적으로 구출될수 있었던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그의 방대함과 사료적가치에 감탄은 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티끌만 한 흠집이나 손실도 없이 보존될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덜 미치군 한다.

과연 미제의 공중비적들이 평양의 련광정이나 을밀대, 안주의 백상루, 경주의 불국사 등 온 삼천리강토의 력사문화유적은 물론 자기들을 《하느님의 사도》로 숭상하고있는 례배당까지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면서 《조선봉건왕조실록》까지도 재가루로 날려버리려고 하지 않았다고 누가 자신있게 단언할수 있었겠는가.

남조선의 출판물에 이런 글이 실린적이 있다.

《…6.25가 시작된지 열흘도 채 안된 1950년 7월초 **김일성**주석의 지시에 따라 최고사령부의 작전지도에 <조선봉건왕조실록>구출경로가 그려졌고 수송을 위해 전선을 오가던 군용차량이 배치되였다는것, 서울에서 가져온 실록은 최고사령부 문서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였다는것이다.

그 실록은 당초 묘향산 사고본으로, 적성산으로 이관된 때가 1633년이니 417년만에 다시 평양으로 돌아간셈이다.》

오로지 민족의 넋이 깃든것이라면 아무리 사소한것일지라도 천만금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세계를 뜨겁게 절감하며 백남운선생은 그이의 뜻을 더 잘 받들어나갈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그러나 마음뿐이지 전쟁이 일어난지 한달이 지나도록 백남운선생은 교육사업을 전시조건에 맞게 개편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던 1950년 7월 26일이였다.

교육성의 책임일군들과 무릎을 마주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현 교육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교육성에서 모든 교육일군들이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가지고 이미 수립된 교육제도를 공고히 하면서 교육사업을 더욱 전투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전쟁승리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우선 교육사업을 전시환경에 맞게 개편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총을 잡고 적과 싸우는것만이 전투인것이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교육사업도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는 중요한 전투로 보시고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교육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는것이 아닌가.

그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시체제에 맞게 교육출판사업도 개편하도록 하시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끝났을 때에는 전시교과서편찬사업을 위해 전선에서 수많은 학자들과 작가들, 대학교원들과 편집일군들을 후방으로 소환하도록 해주시였다.

그리고 교과서들이 단순한 교재로서만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에게 옳은 전쟁관점과 전쟁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심어주는 교양자료가 되도록 교과서의 편성방향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1951년의 설날 그를 또다시 최고사령부로 불러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새해에 백남운선생의 건강을 바란다고 하시면서 은정깊은 축배잔까지 부어주시였다.

자신께서는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밤잠을 잊으시면서도 그의 수고를 더 생각하시는듯 전시하의 교육사업이라는것이 힘들다고, 우리도 산에서 싸울 때 아이들을 교육해보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어버이수령님앞에서 그는 솟구치는 격정에 종시 머리를 숙이고야말았다.

교육사업에서 나타난 부족점들을 두고 나무람할 대신 오히려 전시교육사업이 힘든 일이라고 하시며 새로운 힘과 신심을 안겨주시는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에 그 누구인들 솟구치는 격정을 누를수 있겠는가.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사업

을 한시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전후복구건설에 필요한 기술일군양성을 위하여 전선에서 대학생들을 제대시켜 다시 공부시키는것과 함께 외국에 류학생들을 많이 보낼데 대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눈물을 머금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또박또박 적는 그의 마음속에는 교육이라는 한 부문을 놓고봐도 그이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전쟁에서 벌써 이겼다는 확신이 한껏 넘쳐나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백남운선생을 자신의 가까이에 두시고 힘이 진할세라, 신심이 흔들릴세라 새 힘과 용기를 주시며 현실을 정확히 료해할줄 알고 사업방법도 터득하고 그 어떤 무거운 책임도 감당해낼수 있는 능력있는 일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무척 마음쓰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쟁이 한창 벌어지던 1952년 과학원을 창립해주시면서 백남운선생을 공화국의 첫 원사로 내세워주시였다.

그이의 두터운 신임과 각별한 사랑은 그 누구에게나, 그 어떤 경우에나 다 그러한것처럼 그에게도 견인불발의 의지로 되였고 자신으로서도 믿기 어려운 무서운 힘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승리에 대한 배심을 든든히 하고 자기가 직접 교과서 배낭을 메고 심산오지의 학교들을 찾아갔으며 교과서출판사

업을 맡은 일군들을 만나 고무격려하였다.

그 길은 때로는 눈사태때문에 길이 막혀 부득이 키를 넘는 눈무지를 수십리나 헤쳐야 하는 힘겨운 길이기도 했고 적들의 맹폭격을 맞받아나가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길이 전시교육사업때문에 늘 심려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다소나마 덜어드리는 길이고 수령님께 지워져있는 막중한 중하를 다문 얼마만이라도 덜어드리는 길이기에 그는 추호의 주저함이나 두려움도 몰랐고 오히려 행복감만 느낄뿐이였다.

전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당과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고있던 종파분자들이 이른바 《선진국》들의 교육체계이니, 교육방법이니 하는것들을 강압적으로 내려먹일 때에도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옹호했고 철저히 관철해나갔다.

그리하여 교육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잔재를 없애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인민적인 교육체계를 세우는 사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크나큰 신임과 은총속에

1956년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백남운선생을 몸가까이 부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제부터 과학원 원장으로 사업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일이 좀 힘에 부칠수 있지만 전쟁시기처럼 일하면 얼마든지 해낼수 있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련이어 베푸시는 크나큰 신임에 백남운선생은 목이 메여올랐다.

그를 믿음에 찬 눈길로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과학자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과학연구사업을 전개할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연구사업을 현실과 결부하여 진행하는 문제 등 사업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그를 찾으시여 자연과학은 물론 사회과학에 이르는 폭넓고도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한 선을 그어주기도 하시고 전문가들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도 찾아주시여 안목을 틔워주시군 하시였다.

어느날인가는 밤늦도록 백남운선생과 마주앉으시여 과학

원사업을 전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장시간에 걸쳐 과학원의 장래운명에서 나서는 문제들과 함흥에 과학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과학원 분원을 내오는 문제 등 동력 및 화학분야의 연구사업방향도 명시해주시고 주체적립장에서 최근 우리 나라의 100년력사를 잘 연구서술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1956년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전쟁 못지 않게 간고하고 힘겨웠던 시기였다.

비록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람들이 끼니도 건느면서 악전고투를 벌려나가던 시기였지만 백남운선생은 수령님의 손길아래 륭성하는 부강조국의 래일이 눈앞에 펼쳐지는것만 같았다.

함흥에 과학원 분원을 내올 때에 더욱 그러하였다.

몸소 현지에까지 나오시여 앞으로 건설될 함흥분원의 터전까지 잡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때에도 백남운선생을 친히 곁으로 부르시고 분원을 장차 굴지의 대과학연구기지로 전망성있게 꾸려나갈 방도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도 다 그러하지만 과학연구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아직 어려운 인민생활을 우리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무엇을 하나 연구하고 무엇을 하나 건설해도 인민부터 생각하고 우리 식대로 해야 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심장으로 새

겨안은 백남운선생은 그후 어렵고 힘겨운 속에서도 신심에 넘쳐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갔으며 그 나날에 나라의 과학발전에 남다른 공적을 남기였다.

백남운선생이 직접 집필한 력사부문의 저서들이 공화국에는 아직 적지 않게 보존되여있는데 그 저서들은 다 그가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사회과학분야에서 주체의 사관을 확립해나가던 나날에 집필한것들이였다.

1957년 가을에 력사학계를 들끓게 했던 주요쟁점을 둘러싸고 민족허무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것으로 하여 그는 우로부터 모종의 정치적압력을 받게 되였다.

더우기 불순한자들이 자기의 지나온 경력까지 거들며 철직시키겠다고 위협해나서자 그는 고민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충실한 일군들을 당의 품에서 떼여내려고 음으로양으로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는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죄행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선생은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일을 잘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시기 학계에서 론의가 많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료해하시고 력사연구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던 그 준엄한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며 우리 수령님께서 베푸신 그 믿음, 그 사랑을 다 일일이 렬거하자면 몇권의 책으로도 모자랄것이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57년 12월에 진행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제2차대회에서 당시 과학원 원장이였던 백남운선생을 중앙위원으로 선거받도록 내세워주시였으며 1960년 12월에는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상무위원으로 내세워주시였다.

특히 조국통일사업을 전담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결성된 이후에는 그 부위원장의 직책까지 겸임시켜주시고 중국, 웰남, 스위스 등 세계 각국을 방문하는 과정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과 공화국의 대외정책을 관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전후 백남운선생이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한 제네바국제회의에 우리 공화국을 대표하여 참가하였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그는 회의장에서 연희전문학교시절의 후배교수였던 남조선의 외무부 장관과 부딪치게 되였다고 한다.

기절초풍한것은 그자였다.

그도 그럴것이 북에 들어온 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우익기회주의자로 규탄받고 《숙청》되였다고 자기들이 혀가 닳도록 떠들었던 백남운선생이 자주와 존엄의 상징으로 빛을 뿌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엿한 상이 되여 눈앞에 나타났으니 어찌 황겁하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어찌나 바삐맞았던지 그자는 명색이 외무부 장관이라는것도 다 잊고 《선생님!》 하며 백남운선생앞에 굽석 절하듯 머리를 푹 떨구고는 한참이나 굳어져있었다고 한다.

그때 백남운선생은 타향만리에서 머나먼 평양의 하늘을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큰절을 올렸다.

그처럼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도량과 천품을 지니신 어버이수령님께로 달리는 불같은 마음안고…

생이 다할 때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 후 백남운선생은 각별한 믿음과 총애를 받으며 사소한 우여곡절도 모르고 애국의 직행길을 꿋꿋이 걸어왔다.

그가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사업하는 기간은 순간순간이 뜨거운 사랑속에 끝없는 행복으로 이어진 감격의 나날들이였다.

백남운선생이 환갑을 맞던 때가 전후시기였는데 때가 때인지라 그는 가족들에게 아예 환갑이라는 말을 입밖에도 꺼내지 못하게 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낯모를 사람이 백남운선생을 찾아왔다.

그로 말하면 어버이수령님께서 백남운선생의 환갑날이 가까와오는데 환갑날에 새옷을 입게 하자고 하시면서 친히 보내주신 고급재단사였다.

백남운선생은 너무나 감격하여 그에게 온몸을 맡긴채 혼백이 나간 사람처럼 한참이나 우두망찰 서있었다고 한다.

그의 예순돐생일 당일날에는 더욱 가슴뜨거운 광경이 펼쳐졌다.

중구역 창전동에 자리잡고있던 그의 집을 몸소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새 양복을 입고 달려나와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를 우리 공화국의 첫 교육상이였다고 다정히 불러주시면서 한집안식구처럼 스스럼없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해주시였다.

이름할수 없는 격정의 파도가 집안에 차고넘쳤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4월남북련석회의와 민주교육의 기틀을 쌓고 나라의 과학적성과를 이룩하는 길에서 그가 세운 공적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전후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한 제네바회의에 파견되였을 때에도 그렇고 특히 준엄한 전쟁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도 자신을 굳세게 다잡고 정말 많은 일을 하였다고 분에 넘친 평가도 해주시였다.

평소에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손에 무장을 들고 백두산에서 왜놈들과 싸우지 못한것을 늘 후회하고있던 그는 전쟁이 일

어나자 아들 홍기가 선참으로 전선에 달려나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인천방어전투에서 전사했다는 통지서가 왔을 때에도 사업에 묵묵히 심신을 다 바쳐왔다.

이러한 백남운선생의 속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시였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손수 그의 손에 축배잔까지 들려주시면서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부디 건강하라고, 선생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건강해야 한다고 따뜻이 말씀해주시였다.

그는 옷깃을 여미고 자리에서 일어섰으나 목이 메여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종시 흐느끼고야말았다.

그러는 그의 손을 잡아 자리에 앉혀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건강을 잘 돌볼데 대한 《특별분공》도 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까지 안겨주신 다음에야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다음날 백남운선생의 가족은 갑자기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였다.

영문을 몰라하는 그에게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하는 일군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환갑연이 있은 그날 저녁이였다.

집무실로 돌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당 부문의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고 오늘 백남운선생의 집에 가보았는데 집이 불편하겠더라고, 과학원 원장으로서 행정사업도 하고 저

술활동도 하려면 집이 비좁을수 있으니 방도 넓고 칸수도 많은 집으로 바꾸어주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는것이였다.

바로 그렇게 마련된 사연깊은 집에서 백남운선생이 일흔돐생일을 맞이할 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진귀한 수예품과 여러가지 장수식료품들도 보내주시였다.

그후에도 년로한 그의 얼굴에서 조금이라도 피로해하는 기색을 보시면 지체없이 경치좋고 마음드는 곳에 가서 쉬면서 건강을 돌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고 부득이 그가 입원생활을 할 때면 몸소 치료대책도 세워주시고 바쁜 시간을 내시여 병문안도 하여주시고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에는 노루와 꿩을 비롯한 여러가지 건강식료품들을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1968년 9월초 어느날 공화국창건 20돐 행사장에서 백남운선생을 만나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자신께서 병원에 알아보았는데 백남운선생은 앞으로 20년은 건강하게 사업할수 있다고 하시며 그에게 힘을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

백남운선생은 격정이 북받쳐 더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정녕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정은 그에게 있어서 명실공히 온갖 로쇠와 그 어떤 병마도 이겨낼수 있게 하는 사랑의 불사약이자 생명력이였다.

하기에 진정 하늘같은 그 사랑속에서 그는 로년기에도 로당익장의 패기를 안고 더욱 활력에 넘쳐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수 있었던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해만 가는 어버이수령님의 배려에 보답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늘 괴로와하던 백남운선생은 여가시간을 아껴가며 절세의 위인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에게는 짬만 있으면 뒤적이군 하던 두툼한 수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적일가분들에 대한 자료가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혀있었다.

그로서는 난생처음으로 써보는 위인의 전기인지라 힘에 부치기도 하였고 욕망과는 달리 뜻대로 되지 않아 고민에 잠기기도 했다.

아무리 해박한 지식과 높은 문필기량을 가진 재사라고 한들 어찌 절세의 위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한 력사를 진실하게 그것도 한권의 도서에 다 반영할수 있겠는가.

하지만 수령님의 은총을 받는 전사로서 절세의 위인의 불멸의 위업을 보여주는 책을 미숙하나마 제손으로 직접 서술하여 후세에 남긴다는 크나큰 긍지와 행복이 그의 가슴을 한껏 부풀게 하였다.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그의 영광이자 영예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 대해서와 수령님의 유년시절로부터 출발하여 불후의 초기혁명활동과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 등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아로새겨질 불멸의 위인의 혁명업적을 집대성한 도서 《**김일성**동지의 영웅적위업》이 1968년에 드디여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도서에 대한 반향은 대단히 컸다.

이 사실을 두고 누구보다 기뻐하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진 **김일성**훈장을 수여받도록 해주시였으며 얼마후에는 영원히 변색을 모르는 순금처럼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라는 의미를 담으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사랑의 금시계를 또다시 그에게 선물로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사회과학원에 백남운선생을 위한 부원장의 직제를 하나 새로 내오게 하시고 말년에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과학저술활동을 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거듭되는 배려를 받아안을수록 백남운선생의 생각은 깊어졌다.

좋은 책을 내놓았다고 축하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이미전에 《**김일성**동지의 영웅적위업》과도 같은 책들을 쓸 생각을 못한 자신을 타매하였고 팔십에 이른 나이이지만 불세출의 위인

이신 우리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만고의 업적을 후대들의 마음속에 새겨주기 위한 책을 쓰는것이 자기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또다시 새로운 도서를 집필할 일념을 안고 분발해나섰지만 그는 위대하다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수 없는 수령님의 업적을 무엇부터 어떻게 엮어나갔으면 좋을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속을 태우고있던 1974년 2월 어느날 그는 온 사회를 어버이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작을 받아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의 과학적인 예지가 반영된 로작이 그에게 앞으로 저술하고저 하는 도서의 집필양상과 그 근본핵을 안겨준것이였다.

바로 그것이였다.

주체사상이야말로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가운데서도 정수이자 최고봉이고 그 모든것을 관통시키고 하나로 련결시키는 구심점이였다.

주체는 애국이고 애국은 주체이다.

너무도 의미심장하게 안겨오는 명언이였다.

마침내 그는 로년기의 열정과 기력을 다 바쳐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조국과 민족이 걸어온 력사적과정을 보여

주는 방대한 규모의 책을 집필할수 있는 종자를 잡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폭넓게 보여줄 이 도서는 원고지로 무려 3천여매를 훨씬 넘는것이였다.

책자의 구성과 방대한 자료수집을 마치고 집필에 몰두하던 그는 로환으로 쓰러지면서 미완성원고를 남기는것을 못내 죄스러워하였다.

그는 마지막기력을 깡그리 모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여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의 날도 반드시 오리라는것을 확신한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글이였다.

이렇게 1979년 6월 여든두살의 백남운선생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사망한 후에도 끊임없는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두고두고 잊지 못해하시는 사람이라시며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백남운선생을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연깊은 쑥섬에 통일전선탑을 세우실 때에도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의 나날에 공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의 이름도 비문에 새겨주시는 등 아낌없는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어찌 그뿐이랴.

그이께서는 백남운선생의 반일투쟁자료를 발굴하도록 하시

여 50여년이 지난 1993년 12월 그를 반일애국렬사로 내세워 주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북과 남, 해외의 애국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조국통일상도 안겨주시였다.

떠나간 렬사들을 잊지 못해하시며 그들의 위훈과 고귀한 넋을 후대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하해같은 은덕은 한없이 숭고한것이였다.

하기에 애국렬사릉의 사랑의 돌사진앞에서 한 교포기자는 《나는 북조선을 다녀온 사람들이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님의 품을 가리켜 우리 겨레가 모두 안겨살 세상에서 가장 큰집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였던지 여기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였습니다. …

예로부터 흥망성쇠는 례상사라고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흥할 때가 있으면 쇠퇴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에 **김일성**조선에는 영원한 번영만이 있을것입니다.》라고 자기의 격정을 터놓은것 아니랴.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산천이 열백번 변해도 더해만 갈뿐 영원히 그끝을 모르는 지극히 숭고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그 사랑, 그 은정앞에서 렬사들의 생도 영원할진대 그 사랑의 이야기 역시 어찌 끝이 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통일의 길에 이름을 남긴 애국인사들
5

저 자 박사 고 영 숙
장 정 채 대 성
교 정 조 경 희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9(2020)년 10월 13일
발 행 주체109(2020)년 10월 16일

ㄱ—1484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29—6

삶이란 무엇인가.

외세에 의해 두동강난 강토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 민족성원들의 삶, 애국의 삶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분명 통일에 있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운명이고 삶이다.

통일에 뜻을 두고 통일에 심신을 깡그리 바치는 그러한 삶이 조국이 알고 민족이 기억하는 참다운 삶, 애국의 삶인것이다.

ISBN 978-9946-31-129-6